(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750 1982년 2월17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Wednesday, February 17,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illegible] Street
[illegible]
[illegible] CANADA M5S [illegible]

세계최대 해상원유시추장 뒤집혀

84명 전원 익사(?)

뉴펀들랜드 해역서 폭풍과 격랑으로

◇사고 위치

뉴파운랜드 해안 세인트·존스 270㎞동쪽 바다에서 세계최대규모의 석유시추장이 심한 폭풍으로 뒤집혀 84명의 인명을 앗아간 사건이 15일 발생했다.

침몰소식을 듣고 달려간 캐나다특공대소속 헬리콥타는 즉각 현장에 달려갔으나 속수무책 이었다.

103특공대소속 브라운병장은 사고직후 현장에서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보고 밧줄을 타고내려가 손목을 움켜 쥐었으나때마침 강풍으로 놓쳤다.

이것이 시도된 구출작전의 전부였다.

"그사람의 손목을 움켜 쥐는순간 거센파도가 몰아쳐 물벼락을 맞고나니 아무도없이 다시 잔잔한 바다였다"고 브라운병장은회고했다.

금세기 캐나다 역사상최악의 참사로 기록될 이 석유시추장 전복사고는 80마일의 강풍과함께 수십길이 넘는 파도와 더불어 84명의 인명을 삽시간에 삼 킨뒤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세계최대의 석유 시추장으로 알려진 이곳은 지금까지 여러번 사고가 발생, 선원들 사이에 원래이름인 "바다의 감시선(Ocean Ranger)"아닌 "바다의 위험물(Ocean Danger)"로 불리워지곤 했다.

지난5일에는 새벽 5시30분 선원들로 하여금 비상대기 구명정을타고 바다로 뛰어들도록 명령을내린 사건도 있었다.

시추장 소유주인 캐나다 모빌석유회사는 10일 전의 사고가 이번 참사와 관련 없다고 주장하나 80년11월 이 시추장이 건설된 이 후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음은 시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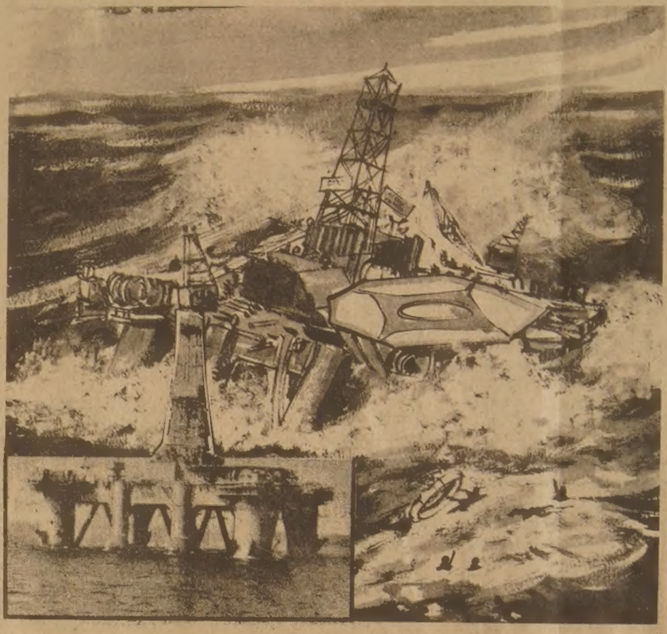
연방정부의 진·루페핀교통장관은 15일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시추장이 뒤집힌 직후선원들은 구명정을타고 탐사장을 떠나도록 명령을 내렸지만 구조헬리콥타가 현장에 도착했을때는 사람은 없는 빈 구명정만 몇대떠있을 뿐이었다고 회사측은 발표했다.

전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원84명중 10명은 미국인, 25명은 캐나다본토인, 나머지는 뉴파운랜드 주민이었다.

인근해역에는 두대의 다른 시추장(Sedco706과 Zapata Ugland」가 있었으나 이두곳에서는 아무런 사고가 없었다.

이 시추장은 일본 미스비시 중공업이 76년 제조한 것으로 25000피트 해저까지 시추할수 있도록 됐었다.



◇세계최대 시추선 오션·레인저호.

◇오션·레인저가 뒤집힌 모습을 상상, 만화가 앤디·도네이토가 그려본 사고 후의 모습. 35층, 건조비 5천만불 규모의 이 시추선은 50피트 높이의 격랑에 무너졌고, 84명의 목숨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한일협력위회장에

남덕우 전총리

(서울15일=연합)남덕우전국무총리는 전주일대사 김영선씨의 뒤를 이어 새로 한·일협력위원회 한국측 회장이 되었다고 15일 보도했다.

한편 대한 산업연맹은동양나일론의 총인상 회장을 동연맹의 부회장및 부속기관인 대한경제연구원 연구소장으로 임명했다.

군사훈련 상호 파견

북한측 강력반대

북한은 15일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돕기 위해 남북한의 대규모 군사훈련시 양측에서 대표단을 파견, 서로 관찰할 수 있게 촉구한 제안을 거부했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의「내외통신」에 의해 보도됐다.

북한외무부 대변인이 발표한 성명에서 평양측은 유엔사의「팀·스프릿82」한·미합동군사훈련에의 초청을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1월23일 판문점에서 열린 제410차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에서 유엔사는 공식적으로 5명의 북한과 중국 군사정전위원을「팀·스프릿82」훈련의 관찰단으로 초청한 바 있다.

성명에서 북한은「팀·스프릿82」를 정전협정의 위반이라고 공박했다.

이민직원 쏜뒤 추방자빼내

자메이카인 6명 경찰수배

불법이민자를 수용해 놓는 모텔에서 방문자로 가장, 이민국 직원을 총으로 쏘고 추방을 기다리는 한 여인을 탈출시킨 사건이발생했다.

남자4명 여자1명의 일당은 방문객을 가장, 13일 공항부근 에어포트·로드에있는 배비용 모터 호텔에 들어와 14일 추방예정인 자메이카 여인 쉐런·모리슨(20)을 데리고 나갔다.

이들은 이날 호텔 뒷문으로 들어와 호텔을 지키고있던 이민국직원 키쇼·애스나니(18)를 22구경 권총으로 쏜 후 사라졌는데 애스나니군은 현재 이토빅콕 제너럴 병원에서 가료중이다.

수사당국은 15일 범인일당이 모두 자메이카 억양을 가진 흑인으로 이들의 신분을 대체로 파악하고있다고 밝혔다.

"민족상" 4월말 마감

전국적 널리추천바라

토론토 한국일보사가 제정, 캐나다 한인 민족상위원회(위원장 구상회)가 주관하는 82년도 제2회「한인민족상」첫 준비회의가 지난12일저녁 토론토 블루어거리의 클링톤 하우스에서 열렸다.

14명 위원중 구상회, 김창열, 강신봉, 안병원, 박충도, 김춘탁, 김명규, 이석현 등의 8위원의 참석으로 진행된 이 모임은 이석현총무의 경과보고에 이어 구위원장 사회로 작년 제1회 민족상에 대한 검토, 평가에 들어갔다. 작년도는 예술상(음악 박재훈, 무용 김용순), 공로상(전택균)봉사상(장근수)의 3개부문에만 시상되고, 학술상은 추천된 후보가 없어 시상치 못했었다.

또 첫해였던 관계로 비지역 후보들이 적게 나왔음에 비추어, 금년 제2회에는 전국 각 한인회장에 공문을 띄워 전국적으로 널리 후보가 나오도록 힘쓰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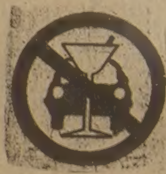
한편 민족상 신청마감은 4월말로 정하고, 시상은 6월중 하기로 결정을 보았다.

한국일보사는 캐나다사회에서 한국문화를 보전하고 한인사회의 지위향상을 위한 촉매작용을 사명으로 삼으며, 더한층의 봉사를위해「한인민족상」을 제정, 각 분야에서 공이 큰 인사에 시상하며, 작년이 그 첫해였다.

시상부문은 예술상, 학술상, 봉사상, 공로상으로 나뉘며 필요에 따라 부문은 추가제정될 수 있다.

수상자격은 캐나다 거주 한국계 캐나다인또는 단체 및 도의적, 법적으로 큰 결함이 없는 개인또는 단체이고, 추천방법은 캐나다각지의 단체가 1명씩 소정양식에따라 해당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추천할 경우 10명이상의 추천이 필요로 된다.

◇구상회 위원장



"제 5 계절"
필진이 바뀝니다

한인사회의 비중 큰 이정표 "제5계절"의 필진이 바뀝니다.

작년 10월28일부터 신춘 1월21일까지 3개월간 계속된 "제5계절" 제1진의 필자로 수고한 안토니오·코레아((한인조상의 후예, 이태리인), 박충도(문인), 김숙희(교육가), 유형승(도서학자)께 독자와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자에 제2진의 글이 나가겠읍니다.

석광옥(스님, 불광사 주지), 안병원(작곡가, 지휘자), 장연탁(조각가), 이해원(토론토대학생) 4씨의 건필을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 집 자)

오늘의 예금금리 (2월6일 현재)

종 별	기 간	신 용 조 합	일 반 은 행
정 기 예 금	30~59일	13.75%	12.5~13.5%
	60~89일	14%	12.75~13.75%
	90~179일	14.25%	13~14%
	180~1년	14.5%	14.25%

보험이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 533-9387~8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B) 497-3800
R) 284-9052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랙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KAWAI 피아노 인벤토리 대매출 기간 : 2월27일까지

⊙본사에서는 교민들을 위한 특별무이자 할부판매(6개월한도내)를 단행했읍니다.
⊙은행대출알선이(1년 3년) 가능합니다

UPRIGHT 피아노

802-1
$3.995(Reg) $3.395(Sp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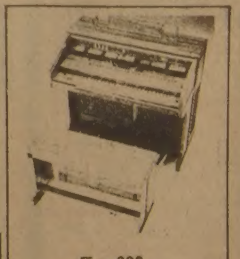
802-M
$3.995(Reg) $3.395(Spec)

KS-3F
$4.595(Reg) $3.900(Spec)

그랜드 피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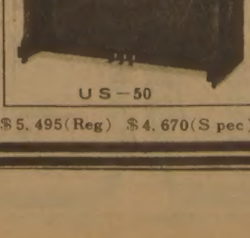
KG-3

전자올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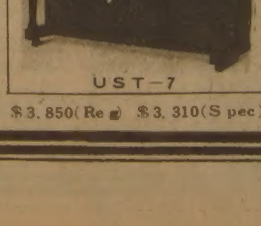


E-6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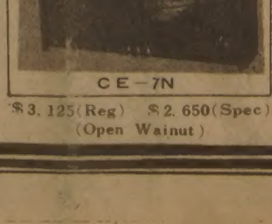
E-360



US-50
$5.495(Reg) $4.670(Spec)



UST-7
$3.850(Reg) $3.310(Spec)



CE-7N
$3.125(Reg) $2.650(Spec)
(Open Wainut)

GS-30

대표 : 윤 호 섭

MARKHAM PLACE
2900Steeles Ave. E.
Thornhill
881-8211

HILL CREST MALL
9350 Yonge St.
Richmond Hill.
883-9407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토론토 심포니 연주일정 발표
9,10월중 정경화·정명훈과 협연

토론토 심포니(TS)(지휘 앤드류·데이비스)는 정명훈, 정경화와 협연등 82년9월부터 83년6월까지의 새 시즌 연주계획을 발표했다.

허작·펄만, 세이지·오자와, 이마뉴엘·액스·에리히·쿤젤, 요요마, 에후디·메뉴힌등 세계정상급 연주가들과의 협연이 포함된 이번 시즌에는 톰슨홀(뉴 메시홀) 공연한다.

교민들의 관심사

정경화양과의 협연은 9월 29일과 30일, 앤드류·데이비스 지휘로 모짜르트심포니 41번 K.551〈주피터〉교향곡과 할로의 스페인교향곡, 프리드만의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세계초연)을 연주한다.

정명훈군은 일본제 피아니스트 켄·노다와 함께 10월 6일과 7일 맥밀란의 서곡 A장조,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1번, 리하르트·슈트라우스의 아인·헬덴레번등을 연주한다.

토론토 심포니는 정기가족 티켓갱신마감일을 3월 20일까지로 하고 이날 이후부터는 새 정기가족을모집한다.

정기가족권은 요일별, 시리즈별, 좌석별로 가격이다르다. 예를 들어 정경화, 정명훈의 음악회를 둘다가고 싶은 경우 매주 수, 목요일인 시리즈B를 신청하면 되고 값은 12회 음악회에 좌석의 위치에 따라 $81.00, $135.00, $180.00 $225.0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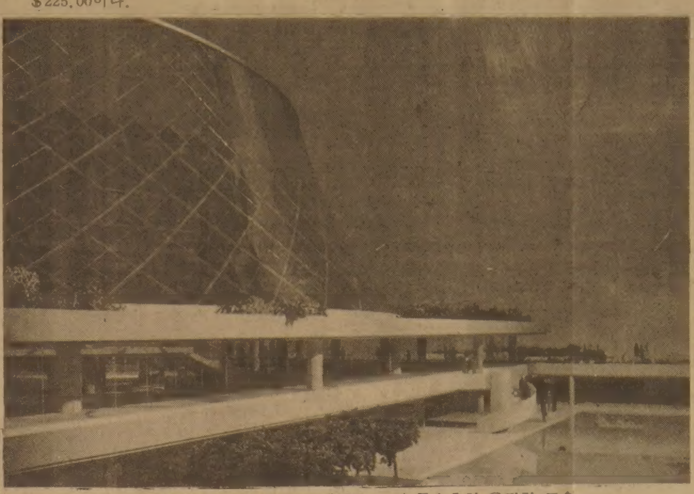
노인과 학생에는 신분증명서를 지참한 경우 50% 디스카운트 해준다.

연주회별 예매권 판매시기와 티켓값은 9월이후에 발표된다.

토론토 심포니의 한국계로는 제2바이올린에서 박영대, 백형선씨가 활약하고 있다.

티켓과 스케쥴에 관한문의는 ☎363-0374, 598-3375.

(조미래 기자)


◇TS의 새연주장인 새매씨홀 로이 톰슨홀의 웅장한 모습

새영화 "나비"에서 섹시한 연기로 지난주 골든 글로브상을 탄 올해 25세의 피아 자도로양이 그녀의 백만장자 남편 메슈람 리클리스씨와 열광적인 춤을 추고있다.

캐나다제일의 메트로도서관
150만 이용,70개언어의 각종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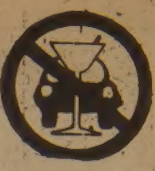
영스트릿 789번지의 메트로토론토 중앙도서관은 캐나다에서 제일 큰 도서관.

5층까지의 전 건물이 도서관으로 사용되며 약 365,000스퀘어피트의 도서장소가 있다.

1,500개의 좌석이 있는 동 도서관에는 70개국의언어로 된 각종책이 진열돼 있다.

년간 약 150만의 시민이 이용하는 이 도서관에서제일 오래된 책은 1,469년에 발행된 역사책으로 라틴어로 되어 있다.

영어로 된 가장 오래된 책은 1568년 발간으로 캐나다에 대해서 기술한 앙드레·때벳의 「신세계(The New World)」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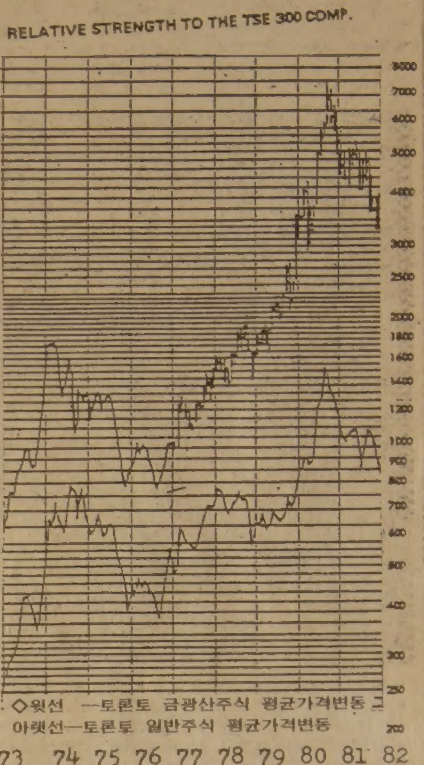
회장단 유임
성균관대동창회총회

지난13일 하오7시 성균관대학동창회(회장김영[illegible])는 토론토의 클린톤하우스에서 40여명 회원 참석으로 제2회 정기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현회장단을재선출, 유임시켰다.

회장 : 김영[illegible]
부회장 : 김경식, 전창원
총무 : 김영창

금과 금광산 주식의 가격변동 비교

경제생활과 우리 ⑩
투자상담편 ‖ 담당 강상옥(메릴린치증권회사 근무)



◇윗선 —토론토 금광산주식 평균가격변동 그 아랫선—토론토 일반주식 평균가격변동

윗 도표는 토론토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금광산 주식의 평균 가격변동을 보여준다. 78년부터 3년간 일반적으로 5배가 올랐지만 30~50배씩 오른 주식도 많다. 광산주식은 금값의 변동에 따라 같이 움직이지만, 주식이 실제 금보다 더 많이 오르고, 내려올 때는 더 천천히 그리고 덜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

$10만로 전부 금을 사서 2배가 오르면 자산은 $20만가 되어 원금은 2배밖에 넘지 않는다. 그러나 같은 $10만로 남의돈 $90만을 빌려 $100만의 매장량을 갖고 있는 회사를 사들였다 하자.

$90만를 빌려 이 경우 금이 2배 오르면 매장된 금도 2배 오른 $200만의 값어치를 갖게 되고, 빚진 $90만를 갚고나면 순 자산은 $110만로 자기돈의 11배가 된다. 이러한 원리 때문에 금값이 오르면 금광산주식은 더 높은 비율로 올라간다.

반대로 금이 떨어질 때는 광산주식은 천천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① 금값이 떨어지더라도 광산회사는 금이 상승할때 번 이윤으로 회사가 성장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주식의 경우 주식 값을 조작할 수 있는 대주주가 주식 값의 하락을 원치 않기때문에 하락 방지책을 쓴다.

그러나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의 경우는 다르다. 선물시장에서는 사는 사람이 100명이면 파는 사람도 100명이라 볼 수 있다. 판 100명은 금값이 내려가야 돈을 벌 수 있다. 더구나 이 Short(판)한 사람들이 바로 큰 투자가나 전문가 들이라는 것을 안다면 왜 금이 떨어져야 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주식이 투기성 적어
파는사람보다 사는사람이 많어

이처럼 선물거래의 경우는 사고 파는 비율이 같으나 주식의 경우는 99%가 구입이고 단지 1% 정도만이 Short sale이다. 따라서 주식은 하락하면 모두가 돈을 잃고, 상승하면 모두가 돈을 버는데 금은 한 쪽이 잃어야 다른 한쪽이 돈을 벌게 되어 있다. 여기에 바로 주식시장과 선물시장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금이나 은을 살 때 알아야 할 것은 금은 값이 전적으로 선물시장에 의해 결정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은을 사는 자체가 이미 선물시장에 뛰어든 것이다. 선물 시장이 지극히 투기적이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가격의 변동이 빠르다는 것을 안다면 막연히 금, 은은 샀다가 남으면 팔지 하는 생각으로 금을 사기보다는 먼저 전문가와 상의를 한 후 결정하는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본것처럼 금값은 Technical한 요소들이 가격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나 주식은 국가의 경제나 해당 회사자체의 건실성등 Fundamental한 요소들이 주로 가격을 결정한다.

③ 금은 Margin이 10%, 주식은 50%이므로 하락할 때는 금이 훨씬 빨리 떨어진다는 것은 이미 설명했다.

이상의 문제들을 종합하면 일반대중에게는 주식에 대한 투자가 금·은에 대한 투자 보다는 안전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기대가 좋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부동산 주식값과 비교하면서 부동산은 왜 폭등했는 가를 알아 보겠다.

(계속)

제5계절 너와 나의 마음이 흐르는 말(愛語)

석 광 옥(스님, 불광사 주지)

◇석광옥 스님

필자소개 : 석광옥(佛名)
- ●43년5월25일 남
- ●59년 불문(佛門)에 입산
- ●동국대학교 불교과 졸업
- ●비구니 초대 중앙포교사 역임
- ●76년 국제포교사로 캐나다 이주
- ●현재 토론토 불광사 주지

사람은 언어를 통해서 자기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다. 인간은 언어를 수단으로 하여 생각하며, 자기를 표현하고, 따라서 언어는 그사람 됨됨이(人格)를 이루는 것이다.

언어를 통해 서로 사귀고, 언어를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며, 서로의 의사소통은 물론이고, 감정이 나 인격의 교류도 언어를 통해서 가능하다. 무언의 표정이나 몸짓도 사실은 언어의 「중간세계」를 통해서 읽어지고 이해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언어는 인간관계를 형성시켜 주는 보이지 않는 「끈」이라고 하겠다.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을 말씀하신 진리에 이르는 여덟가지 길 팔정도(八正道) 가운데에는 바른 말(正語)이 들어있고, 중생을 섭수(攝受)하여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는 네가지 방편 가운데 사랑의 말(愛語)을 제시한 것은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언어는 그사람의 인격의 표현이며 알맹이인 동시에 인간관계를 좌우하는 끈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말은 경우에 따라 여러가지로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즐겁게 해주는 말(可喜語)이 있는가 하면, 맛있는 말(可味語)도 있고, 부드러운 표정의 말(舒顔平視語)도 있으며, 웃음을머금고 하는 말(含笑前行語)도 있다. 위로하는 말 (先言慶慰語)이나 잘왔다고 반기는 말(善來語)도 사랑의 말속에 들어있다.

이러한 말들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진실한 말들이다. 진실을 바탕으로 한 말만이 비로소 사랑의 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진실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말은 아무리 상대방을 즐겁게 할지라도 그것은 사랑의 말이 아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면 아첨에 속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인생을 진실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만이 사랑의 언어를 창조할 수 있고, 또 실현할 수 있다.

참다운 사랑의 언어는 너와 내가 하나일 때에만 가능하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닌 상태에서만 인간은 이기주의를 넘어설 수 있다. 너와 내가 하나로 체험되면서 진실한 말을 할 때 비로소 사랑의 말은 나타난다. 이러한 것을 불교의 전문용어로 표현한다면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애어(愛語)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사랑의 말은 꼭 듣기 좋게 하는 말만은 아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 스스로를 호되게 꾸짖는 경우를 본다. 이는 지극한 자기애(自己愛)의 발로가 아니겠는가. 상대방을 꾸짖는 말이 때로는 지극한 사랑의 말일 수 있다.

"원수가 될 망정 아첨으로 벗을 사귀지 말라" 는 말이 있다. 문제는 얼마나 진실에 입각했으며, 너와 내가 하나인 체험 속에서 진실을 바탕으로 할 때, 그럴때에만 사랑의 언어는 너와 나를 하나로 묶는 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일 저런일◆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인 다니엘·바렌보임이 베토벤학회가 3번째로 수여하는 기념메달을 받았다.

80년도의 제1회 메달수여자는 작곡가·지휘자 레오나드·번슈타인, 제2회 수여자는 피아니스트 루돌프·제르킨이었다.

◇바렌보임

베토벤기념메달은 매년 베토벤음악의 창조적 정신을 살리며 음악계에서 공헌이 뛰어난 사람을 선정 수여된다.

지난주 다니엘·바렌보임은 뉴욕 카네기홀에서베토벤 연주회를 가져 호평을 받았고, 메달 수여식도 이날 연주회 인터미션중 거행됐다.

●제작자 칼로·폰티와 25년간 결혼생활을 해 온 이탈리아의 여우 소피아·로렌은 최근 맥콜(McCall)과 가진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그녀가 풍겨온 좋은 아내, 훌륭한 가정주부의 이미지와는 다른 얘기를 해 화제!

◇소피아·로렌

다년간 남편을 위해 헌신해 온 그녀는 "지금부터는 안정감(Security)을 찾기 보다는 여자로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 내 감정에 충실하며, 실험적인 인생을 살고싶다"고 말했다.

남편 폰티씨가 그녀의 새로운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묻자, "남편과는 이런 일을 토의하지도 않는다. 그는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보스턴의 모 방송은 전화 여론 청취프로를 마련, 18세이상의 캐네디언을 대상으로 백만달러를 준다면 캐나다가 미국의 제51번째 주로 되는 것을 찬성하겠느냐고 물었으나 이 프로에 응한 캐나다인 모두가 이를 거부했었다고 토론토·선지의 폴·림스테드가 12일 자신의 컬럼에서 밝혔다.

●지난9일 로스·앤젤레스의 가정법정에선 전챨리스·앤젤 파라·퍼셋(34)은 별거중인 전 남편인 6백만불의 사나이, 리·메이저즈와 결혼하기전 사귈때는 물론 결혼후에도 빨래 다림질등 가사를 도왔으므로 237만5천불짜리 말리부 해안의저택은 비록 메이저즈가 총각일때 사둔 집이었다 할지라도 자기소유가 돼야한다고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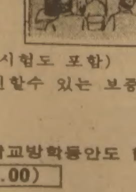
이혼소송을 위해 이날법정에 나타난 두사람은 6년간 결혼생활후 작년에 별거에 들어갔는데, 그이후 리·메이저즈는 캐나다 국립발레단 소속의 세계적발레리나 캐런·케인과 데이트했고, 파라·퍼셋은 배우 라이언·오닐과 계속 붙어다녀 결혼설까지 나돌고있다.

◇이혼법정에 나타난 파라·퍼셋.

운전교습

SOUTHERN ONTARIO DRIVER TRAINING CENTRE

운전을 배우실 분들! 아래와 같이 3가지 종류가 있으니 택해 보세요.



1. 완전코스($199.00)
- ●25시간의 실내강의
- ●10시간의 운전교습(운전시험도 포함)
- ●차보험 액을 최대로 할인할수 있는 보증서 발급
- ●인캄텍스 공제

※저녁과 토요일, 그리고 학교방학동안도 함.

2. 짧은(MINI)코스($69.00)
- ●3번의 운전레슨
- ●운전시험때 차대여해줌

3. 씽글(SINGLE) 레슨($15.00)
- ●한번의 레슨

※운전시험때 차대여는 $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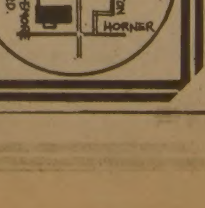
All Courses Approved & Registered by the Ontario Safety League

2489 BLOOR ST. W. STE. 210
(JANE지하철 근처임)
766-4441, 766-4644
월~금 : 9시~6시30분, 토 : 9시~1시까지

한국인의 도매상
한인연합상사

Feb.10 - Feb. 20		Spec.	Reg.
ABC Detergent	24x1.51	21.39	23.30
Cottonelle Bathroom Tissues	24x4's	31.69	35.10
Royal Bathroom Tissues	24x2's	18.99	20.50
Royal facill Tissues	36x3's	29.00	31.90
Pamper toodler	12x24's	54.29	57.25
Pamper extra-ab.	12x24's	43.33	45.85
Twizzler super sicorice	70x5¢	1.89	2.29
Catellie-Ready cut macaroni	24x500g	15.85	18.10
" Long macaroni	24x500g	15.85	18.10
" Long spagattie	24x500g	15.85	18.10

한인연합상사
251-6578
U.K.L.CASH & CARRY
27 RANGEMORE DR.TOR.



머리털이 빠져 고민하십니까?
머리털을 보존 하십시오.

STOP HAIR LOSS NOW!

●위험신호 :
①당신이 머리를 빗을때 빠지는 머리털을 많이 보십니까?
②머리가 가렵거나 비듬이 많으십니까?
③당신의 머리털이 건조하거나 아니면 기름이 많으십니까?
④당신의 머리가 잘빠지거나 불균형 하게 자랍니까?

당신이 위의 말 어느곳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늦기전에 전문가를 만나보십시오.

※상담은 FREE입니다.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오후8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3시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537-3104

54회 아카데미 映畵賞 候補作品·배우

「레즈」·「黃金연못」 독무대

(헐리웃-AP) 54회 아카데미 영화상 후보 작품및 배우들의 명단이 11일 발표되었다.

미국공산주의자가 혁명초기의 소련에서 겪은 이야기를 영화화한 「레즈」(빨갱이)와 노인의 생애의 의지를 묘사한 「황금연못」가 각각 12개와 10개의 후보지명을 받아 석권했다.

최우수작품상 후보로는 「레즈」와 「황금연못」이외에 「애틀랜틱 시티」「불의 전차」「잃어버린 보물의 약탈자들」등이 지명되었다.

최우수남우상후보에는 워렌·비티(레즈), 헨리·폰다(황금연못), 버트·랭캐스터(애틀랜틱 시티), 폴·뉴먼(악의의 부재), 더들리·모어(아서)등이 지명되었고 최우수여우상후보로는 캐더린·햅번(황금연못), 다이앤·키튼(레즈), 마아사·메이슨(내가 웃을때만), 수잔·새런든(애틀랜틱 시티), 메릴·스트리프(프랑스 중위의 여자)등이 지명되었다.

캐더린·햅번은 이미3번이나 아카데미 상을 받았으며 이번이 12번째 지명이다.

최우수 남자조연상후보는 77세의 존·길거드(아서), 제임스·코코(내가 웃을때만), 이언·홈(불의 전차), 잭·니콜슨(레즈), 하워드·롤린스(래그타임)등이 지명되었으며, 최우수여우조연상후보로는 제인·폰다(황금연못), 멜린다·딜런(악의의 부재), 조운·해케트(내가 웃을때만), 엘리자베스·맥가번(래그타임), 모린·스테이플튼(레즈)등이 지명되었다.

「황금연못」에서 공연한 헨리·폰다와 제인·폰다 부녀, 그리고 캐더린·햅번은 모두 최우수남우, 최우수여우, 최우수조연 여우상후보로 지명된데다가 영화자체도 최우수작품상으로 지명되어 이채를 띠웠다.

워렌·비티가 주연감독한 「레즈」도 최우수작품, 최우수남우, 최우수여우, 최우수 조연남우상 후보지명을 받아, 「황금연못」과 「레즈」가 54회 아카데미 시상식(3월29일)을 휩쓸것으로 예상된다.

각각 12개·10개부문서 受賞후보지명받아 席卷

제54회 아카데미상 후보가 결정됐다. 최우수작품상후보인워렌·비티 감독 작품 "Reds"는 최우수 남우및 여우 주연상, 감독상등 12개 부문 후보로 올랐으며 제인·폰다와 헨리·폰다 부녀가 함께 공연한 "On Golden Pond"는 남우 주연, 여우 주연, 여우 조연상등 10개 부문 후보로 올랐다. 그밖에 최우수 작품상 후보는 영국영화 "Chariots of fire" "Ragtime", "Raiders of the lost Ark"등 5개 작품이다. 사진은 On Golden Pond"의 한장면.

駐韓美軍과 僞裝결혼 美이민알선 3명검거

〈서울본사〉 한국 치안국 외사과는 위장결혼으로 이민알선을 해온 남녀 일당 3명을 체포하고 나머지 1명을 수배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들은 한국여인과 주한미군을 거액의 수수료를 받고 위창결혼시켜 미국이민을 알선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 중에는 이미 미군수사당국에 이첩된 주한 미공군 병사도 끼어 있다.

경찰은 관악구 거주 길두용(32세·통역책임)과군산거주 윤창현(33세)을 체포했고 주범인 윤정모(45세)를 수사중이다.

〈장편연재소설〉

영원의 방랑객 ⑩

첫 부 임(고샷갓)

고마태오(종옥 : 토론토한인천주교신부)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캐나다에 정착해서 그들의 푸른 꿈을 실현하게 되기를 나도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교님 우리 한국인들이 모래알지역에 정착하게 될 때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을 위한 이민사목에 관해서 무슨 특별한 계획같은 것이라도 있소?"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했읍니다마는 앞서 말씀 드린대로 저는 2년 내지 3년간은 보좌신부로서의 본당사목을 하고 싶읍니다. 그러는 한편 이민교포들을 도와주고 싶읍니다. 한국 이민이 본격화되려면 아직도 2년 내지 3년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동안 저는 이민 오는 교포들을 위해 전교위주의 이민사목을 하지 않고, 우선은 그들의 정착을 돕는 일종의 사회봉사자의 입장에서 도와주고 싶읍니다. 달리 말씀 드린다면, 이민교포들의 정치성과 종파와의 차이를 초월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준 다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훌륭한 생각이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우리는 그에게 도움을 베풀어 줘야하오. 우리가 남을 도와주고 사랑하는 것은 그가 우리와 같은 신자이거나, 또는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이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느님의 모상인 동시에 주님이신 예수님의 분신이 아니겠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은 누구나가 다 「또하나의 그리스도」임을 선언하셨소. 「너희가 여기있는 형제중에 가장 보잘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내게 해준것이다」, 주님께서는 여기서 「곧 내게 해준 것이나 다름없다」 등의 표현을 쓰지 않으시고, 「곧 내게 해준 것이다」라는 직설법을 통해 모든 사람을 「또하나의 그리스도」로 삼으셨던 것이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듯 그를 사랑해야 하오. 그리고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차별 없이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하느님의 그러한 너그러움을 갖고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오."

"명심하겠읍니다, 주교님. 최선을 다해 주교님의 뜻을 받들겠읍니다."

"젊은 신부답게 의욕적으로 일해 보시오. 내가 협조해 드리리이다."

"감사합니다. 주교님. 노력하겠읍니다."

"나는 당신을 쌍 루이 드 프랑스 본당의 보좌신부로 임명하였소."

"어느 본당이든 주교님의 임명에 순명하겠읍니다."

"쌍 루이 드 프랑스 본당은 5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대교구에서 신자수로나 재정면에서나 5대본당의 하나였는데, 도시인구의 변동에 따라 이제는 5대 가난한 본당으로 전락되었소. 그 지역에 이민자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으며, 그만큼 문제도 많은 본당이오. 하지만 보좌신부로서 일해볼만한 곳이라고 나는 생각하오. 거기서 당신은 당신이 계획하고 있는 한국인을 위한 이민사목에 대한 좋은 경험을 하게 되리라 나는 믿고 있소. 그리고그 본당의 기이에 본당신부는 우리 대교구내에서 모범 본당신부로 존경 받고 있는 분이오. 그분은 당신을 따뜻하게 맞이해줄 것이며, 많은 것을 지도해 줄 거요. 그럼 임지로 가시오.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의욕적인 본당과 훌륭한 본당신부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읍니다. 주교님, 저에게 강복을 주십시오."

그레고알 보좌주교의 지시로 주교청에서 일하고 있는 한 신부의 안내로 나는 쌍 루이 드 프랑스 본당에 도착했다. 기이에 본당 신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분은 키가 크고 인자한 품에 귀족적인 인품을 가진 분이었다. 그분은 나를 내방까지 친히 안내해 줬다. 넓직한 서재와 아담한 침실과 깨끗한 욕실이 구비된 방이었다. 가난한 본당이라고 말 듣는 것과는 달리 사제관은 현대식 건물에다 아주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기이에 신부는 쏘파에 앉으며 짐 보따리라고는 손가방 하나 밖에 없는 나를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입을 열었다.

"태오 신부님, 다른 짐은 다 어디 있소?"

"이 손가방 하나가 제 짐의 전부입니다, 본당신부님."

"아, 그렇소…? 그럼 옷도 입고 있는 옷 한벌 뿐이란 말이오?"

"네, 그렇읍니다. 없어서 가난하기보다 홀가분해서 좋읍니다."

나는 멋적게 웃어 보이면서 말했다.

"수도회에서 나온 사람이라지만 그래서야 어디 살 수 있겠소? 내가 많은 돈을 줄 수 없지만 당장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을 정도는 협조해 주리다."

"감사합니다. 본당 신부님. 돈을 꿔주시면 다음에 갚아 드리겠읍니다."

"내 호의는 호의로서 그냥 받아주시오. 그리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데 있어서 서로의 사고방식의 차이와 이해부족등으로 마음이 상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어떤 오해도 없지 않아 있을 거요.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신앙 안에 같이 사는데서 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의 사제답게 살아갑시다. 한 2~3일간 휴식을 취한 다음 보좌신부로서의 당신의 임무를 맡기리다. 자, 그럼 편히 쉬시오."

이렇게 해서 나는 신부로서의 첫 부임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이에 신부가 내 새방을 나가자, 나는 벽에 걸려있던 십자가에 오래오래 영부라스했다.

(계 속)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매혹의 저음가수
배 성 : 특별출연
기 간 : 2월18일부터
매주 목, 금, 토, 일
오후8시30분부터
히트곡 : 사나이부르스
망 향
기적소리만
향 수
무정한 여인등 20여곡

거구장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파티 예약환영
영업시간 :
평일 오전11시~새벽2시
일요일 오전11시~새벽1시
밴 드 :
목, 금, 토, 일 저녁8시30분~2시까지
권순근과 그의 악단
5 BETHRIDGE RD.
742-1618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醫療보험 5人事業場까지

全대통령、保社部보고받아 올해부터 擴大실시키로

酬價현실화…86년에 一元化

藥品판매값 正札표시제로

83년까지 無醫村 해소…서울에「成人病검진센터」

보사부는 올해부터 1종의료보험의적용사업장을 현재의 16인이상사업장에서 5인이상사업장으로 확대실시키로 했다。또 현재 3개郡(軍威·洪城·沃溝)에 시범실시중인 제2종지역의료보험을 올하반기부터 木浦·報恩·江華등 3개시·군에 추가, 확대하는한편 현재 3원화된 의료수가를 86년까지 일원화시키기위해 올해부터 의료보험및 보호수가를 각각 현실화, 접근시키는 대신 일반수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가제(認可制)의 강력한시행을통해 이를 규제해 나가기로했다。

보사부는 11일하오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문란한 의약품 유통구조와 가격질서를 바로잡기위해 앞으로 과다표시된 가격을 실거래가격으로 인하조치, 에누리 없는 정찰제를 실시키로하고 이를위해 1차로 오는 4월부터 우선 年매출액 10억이상의 시장주도 1백개 의약품목 부터 엄격한 정찰표시가제를 시범실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또 오는83년까지 공중보건및 장학의(奬學醫)등을 활용, 무의(無醫)지역(81년말 현재 4백51개지역)을 완전해소하고 국민개보험(皆保險) 시대에 대처하기위해 오는6월까지 전국적차원의 보건의료망 편성계획을 확정, 현행 행정권중심에서 생활권중심으로 의료전달체제를 전면 개편해나가기로했다。

보사부는 이밖에 ▲금년중 정신보건법(가칭)을제정、정신장애자에대한 의료보호예방사업을 제도화 시키고 ▲약사(藥師)수련제도를 채택, 약국개설전에 병원·약국등에서 조제실무수련을 받게하고 약사국가고시제도도 개선,현행 필기시험외에 실기시험을 병과시킬 방침이다。

또 성인병환자의 조기발견, 검진을위해 서울에 年2만명을검진,관리할수있는「성인병검진센터」를 설치하고 성인병종류별로 특수전문치료기관을 지정해 중점적으로 육성키로했다。

또 일정한자격·시설기준에 따른 소독대행업허가제를 채택, 극장·학교·공공건물등 법정건물잡소에대해서는 연간 일정횟수이상 청결소독의무를 제도화 하기로하고 이를 위한 관계법규개정작업을 금년 내는대로 올하반기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현재 일부시·도에서만 행정지도 형식으로 실시하는 식품접객업소위생등급제를 위생시설·사용식기등 기준을따로정해 제도화해 금년부터 전국에 확대실시하고 갑종(甲種)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감시등을하지않고 또 두자율에맡기며 갖가지 행정지원과 편의를 주도록할방침이다。

보사부는 또 두부나 면류(麵類) 제조등 영세업자들에 대해서는 전자동화시설등 불필요하고 감당키어렵게 의무화된 현행 시설기준을 없애고 지역실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키로했다。

◇全斗煥대통령이 千命基보사부장관으로부터 소관업무계획을 보고받고있다。

全대통령指示

"軍 戰力向上위주로 改編"

不良 식품·藥品제조 강력 團束토록"

全斗煥 대통령은 11일상·하오 국방부와 보사부로부터 각각 새해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尹誠敏국방장관과 房炳源병무청장 관계국장 9명으로부터 소관업무계획을 보고받고 『軍은 책임과권한을 각급예하부에 대폭이양함으로써 각 단위부대의 창의력과 능력발휘를 최대화하도록하라』고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또 『軍의 구조를 戰力향상위주로 개편, 발전시키고 정신전력을 강화해 방위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고 『국방예산을 생산적으로 운용하도록하고 예비군의 관리와 교육에 철저를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방부측은 全대통령에게 현군사정세에관한 정부차원의 분석、北韓의 작년말 軍사훈련상황、北傀軍 증강상황과 이에 대비한 우리의 방위태세、軍需현황、兵務행정등을 보고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이날하오 千命基보사부장관과 朴準圭환경청장 관계국장 6명으로부터 소관업무계획을 보고받은뒤『전국의 無醫지역을 연차적으로 해소해 의료혜택이 모든 국민들에게 고루 돌아갈수있도록 유의해야한다』고 강조하고『불량식품·불량약품 제조업체의 단속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이를 강력히 추진토록하라』고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또『환경보호를 위해 특히 고급전문가양성과 확보에주력하고 水質보호·공기오염및 海域오염방지에 중점을두어 착실한 환경보호대책을펴나가달라』고 당부하고 『국민들의보건위생관념을體質化하기위해 교육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아울러 급성전염병등의 예방활동에 주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임시國會 22일께 召集

政府·民正 對政府질문·法案등처리 會期10일쯤

정부와 民正黨은 오는19일 民正黨중앙당사에서 금년들어 두번째 黨政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제110회 임시국회의 소집과 서울올림픽준비대책등을 협의한다。

民正黨은 제110회임시국회를 약10일정도의 會期로 오는22일 소집、국무총리의 國政보고와 주요정당의 대표연설을 들은뒤 國政전반에걸쳐 對政府질문을 벌이고 계류안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검토하고있다。

정부와 民正黨은 이에앞서 12일 黨政실무 기획협의회를 갖는다。

中浪川 淨化추진

漢江本流 오염防止시범지역으로

환경청報告

환경청은 중랑천(中浪川)을 漢江정화의 시범지역으로 정해 오는84년까지 중랑천수질오염도를 현재의 수준에서 전반이하로 떨어뜨리기로 했다。

11일 환경청은 청와대업무보고를통해 한강本流의 오염방지와 하천정화사업의 모델이될만한 방법제시를위해 84년까지 3단계에걸친 중랑천정화사업을추진, 중랑천수질(BOD기준)을 현재의 50~90PPM(하류)에서 25~45PPM이하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랑천은 서울지역 4개구(道峰·東大門·城北·城東區)와 議政府市·楊州郡및 南楊州郡등 대도시·농촌지역·중소도시를 함께 관통하고있다는 위치성의 특징때문에 앞으로 전국적인 하천정화사업의 표준방법을 제시할수있어 시범정화지역으로선정됐다。

중랑천의 1일 총 폐·하수량은 53만여톤으로 죽은하천(死川化)이 되고있는데 이하천유역 1천5백14개 산업체의폐수가 7만7천톤(15%) 유역주민 32만가구(1백49만명)의 생활하수가 45만3천톤(85%)을 차지하고있다。

환경청은 이에따라 앞으로 산업폐수 규제뿐아니라 일반생활 오수(汚水)도 소규모 지역단위 처리시설을거쳐 방류토록할 계획이다。

환경청은 금년중 1단계사업으로 오염원·오염도의 정밀조사, 배출업소에 대한 집중점검·단속등과 하수관정비및 하수와 직결시킨 불량업체 對주민계몽 홍보활동을 펴고 2단계로 내년까지 중랑천 전체하천 준설, 하상정리, 공해극심업소의 폐쇄·이전을 단행하고 84년까지 가정하수(분뇨포함)까지 합께 처리, 방류하는 지역단위 소규모 오수(汚水) 처리시설을 끝내도록할 예정이다。

시리아流血폭동 內亂化

叛徒、市街점거…空軍조종사들 爆擊不服

政府軍·회교도衝突 千4百명死傷

中部하마市서

【다마스커스 11日=AP·UPI=聯】 反政府과격 회교형제단의 거점인 시리아중부 하마市의 시민들이 하페즈·아사드 대통령의 시리아정부에대해 반란을 일으키고있으며 이를 진압하려는 1만2천명의 시리아軍과 반정부 회교세력의 전투로 적어도 1천4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다마스커스의西方외교소식통들이11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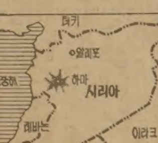
이 소식통들은 하마市의반정부폭도들이 지난2일 한 정부군 순찰대를 기습、이들을 모두 살해한데 이어 공군기와 헬리콥터、그리고 적어도 1백대이상의 탱크가 하마市에 파견됐고 이에 회교수니派지도자들의 호소로 하마시민들이 반정부폭동에 가담함으로써 노골적인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정부군은 현재 시리아 제5의 도시인 하마市 일원을 포위한채 계속적인 포격을가하고있는데 반란중인 반정부세력은 이에 대항,최초로 로켓추진식 수류탄발사기와 기타 重武器를 사용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들은 하마市의 반정부세력이 하마市에서 불과 1.6㎞떨어진 한 공군기지에 계속 포격을 가하고 있으며 오론테스江의 교량하나가 반정부세력의 포격으로 파괴됐다고전하고 정부군과 반정부세력간의 전투로인한 사상자수는 반정부세력측이 1천~2천명, 정부군측이 4백명 정도라고 말했다。

같은날 요르단 관리들은 시리아 정부군중일부가 무기를 소지한채 반정부군에 가세했을가능성이있다고추측했다。

【워싱턴10日聯】 하페즈·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정부에 도전하는 대규모무장반란이 수도 다마스커스북방 1백90㎞의 하마市에서 발생, 반도들이 도시전역을 점거하고 하마市일원은 정부당국에 의해 봉쇄되어있다고 10일美국무성이 밝혔다。



익명을요구한 국무성의 한 대변인은 하마市에서『심각한 소요사태』가 계속되고있으며『매우 긴박한 상황』으로 보이나 지난 79·80년의반정부봉기와는 달리 사태가 하마市에 국한돼 있는것같다고말했다。

딘·피셔국무성대변인은 워싱턴당국이 다마스커스 주재美대사관과 직접연락을 계속해왔다고 밝히고『우리는 하마市의 소요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이 도시는 시리아당국에 의해 봉쇄돼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의 시리아 인권위원회는 다마스커스로부터의 보고를 인용, 반정부군의 무장봉기로 인구17만의 시리아 제4의도시인 하마시가 반란군에 의해 완전히 점거되었으며 공군조종사들이 이도시의 상공폭격을 거부했으나 폭격명령에 불복했다고전했다。

"北傀 權力移讓시작"

日紙 金正日 1~2개월내 政府요직 임명"

【東京11日=宋孝彬특파원】 북괴 金日成은 1~2개월내에 그의아들 金正日을 정부요직에 임명함으로써 사실상 정권이양을 시작한것이라고 11일 일본의 마이니찌신문이 美정부소식통을 인용、보도했다。

金正日은 金日成의 후계자로 지목되어 80년10월 조선노동당 6차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중앙위원회총서기라는黨要職에 지명되었으나 정부요직에는 임명되지않았다。

이 政務院(내각)에 임명할 가능성이 크며 빠르면 2월16일 金正日의생일을 전후하여 단행될 공산도 없지않다고 전망했다。

워싱턴소식통은 4월15일 金日成의 생일을계기로 金正日을 당요직과함께 정부요직 …

精神文化院 기구改編단행

부원장金雲泰·대학원장金大煥씨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11일상오 이사회를열고 부원장에 金雲泰교수(서울大)、부원장 한국학대학원장에 金大煥씨(精文研부원장)등의 임명을 승인하는 한편 기구개편안을 의결했다。

기구개편내용은 연구·기획·국제협력기능을 담당하는 기획처를 신설하고 연구1·2부를 통합하여 연구부로, 도서실을 도서관으로, 총무부를 사무국으로 승격, 강화시키는 것으로되어있다。

이날 실시된 인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획처장=韓昇助(高大·정치학) ▲연구부장=黃性模(精文研·사회학) ▲교육부장=朴合憲(서울大·교육학) ▲편찬부장=宋炳基(檀國大·한국사) ▲사무국장=徐政根(東國大·공안행정) ▲도서관장=趙東一(한국학대학원·국문학) ▲대학원 교학부장=金炯孝(精文研구2부장·철학) ▲비서실장=權奇悰(東國大·불교사)

北傀 한국政情 不安하면 南侵우려

【東京10日=聯】 訪日중인 美국방부차관 리처드·스틸웰(前駐韓유엔군사령관)은 현재 북한의 경제상태는 극히 어려우나 한반도공산화라는 목표를 위해 소련을 등에업고 군사력을 증강하고있으며 경고、없이 남침할 가능성이 있다고 10일 강조했다。

스틸웰차관은 이날 東京 힐튼호텔에서 일본여대방위청장관및 퇴역 막료부장、日정부 언론및 각연구기관 인사 약 1백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안전보장연구센터 주최의 강연에서 이같이 말하고 北韓의 남침기도는 한국의 정치가 불안한때를 이용하려하고있다고 말했다。

스틸웰부차관은 그러나 현재 한국의 정치는 안정되고 있으며 경제 또한 81년도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으며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일어날때 즉각 한국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中小企業 작년輸出 6·9%目標모자라

지난해 국내중소기업들의 총수출실적은 65억1천6백만달러로 연간목표인 70억달러에 비해 6·9%가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證管委長·年金公團이사장에 劉總理 임명장수여

劉彰順국무총리는 11일하오 朴熙烷신임증권관리위원장과 尹炯燮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주었다。

北傀、「20개示範事業」거부

南北韓 50명씩의 「政治協商」주장

【서울=聯】 평화통일의 대도를 밝힌 全斗煥대통령의 「民族和合民主統一方案」을 北傀의 위장평화선전조직인 이른바「조국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 金一명의로 거부의사를 밝힌바있는 北傀는 이어 2월1일의 孫在植국토통일원장관의 「20개항 평화통일示範事業」제의마저 거부하는 내용을 또다시「조국평화통일위원회성명」이라하여 10일 발표했다。

北傀는 이성명에서 6천만 민족의 염원과 국제여론을외면한채 南北정치협상회의를 제의했는데 이는 종래 당국자와의 대화거부자세에서 한걸음 더나아가 國內 모든 現存정당·단체마저 일괄하여 통일협상대상이 될수없다고 함으로써 더욱 경직된 자세를 나타내고있다。

北傀는 이번 위장평화제의에서 정치협상회의의 참가범단을 南北 각각 50명씩 일방적으로 지정했는데 北傀측은 金一·康良煜·朴成哲·林春秋·徐哲·鄭浚基를 포함한 그들 정권기관 주요인물 10여명을 비롯, 許貞淑·洪起文등 대남 통일전선조직인 다수와 北傀黨의 외곽단체및 위장종교단체표, 그리고 朝總聯간부 一色으로 지명한 반면 韓國측 대표는 전반적으로 제외한가운데 일부정치인과 종교인과 주로 犯法者로서 현재 服役중에 있는 在所者、北傀지령을 받고 해외에서 反國家활동을 하고 있는 崔德新·崔泓熙등 해외親北교포에다 그들의 對南흑색모략선전에 이용하고 있는 소위「統革黨」대표라는 유명인물까지 포함시키고있다。

全斗煥 대통령의 획기적이고도 실천지향적인「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과 이를 구체화한 20개항 평화통일示範事業이 국제여론의 전폭적인 지지와 호응이 뒤따르고있는 시기에 北傀는 이번에 또다시 유명무실한「祖國平和統一委員會」를 앞세워 지난날그들이 주장했던 「大民族會議」 「全民族會議」 「民族統一促進大會」를 각색, 변형한데불과한 政治協商을 들고나온것이다。

地平線

나를 벌줄수있는 행정법률이 3백63개나 있다고 한다。箕子 八條禁法의 秦조을 끌어댈 것까지는 없겠으나 은근히 겁이 나기도한다。벌칙이 그렇게 많다보면 범법지 않고 할 수 있는 일, 또는 하지않을수있는 일이 무엇무엇일까 하는 생각이든다。

▼행정법률이 아니라도, 우리는 퍽 나 복잡한 형사법규를 갖고있다。법전의 목차를 펼쳐보면, 그 것을 실감한다。형법이 있고, 국가보안법이 있고, 마구잡이 경범죄처벌법이 있고, 무슨 단속법, 무슨 임시 특례법, 무슨 특별조치법이 줄을 잇는다。법을 주는 쪽의 律師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법을겁내는쪽에서보면 그것은 마치 삼엄한숲속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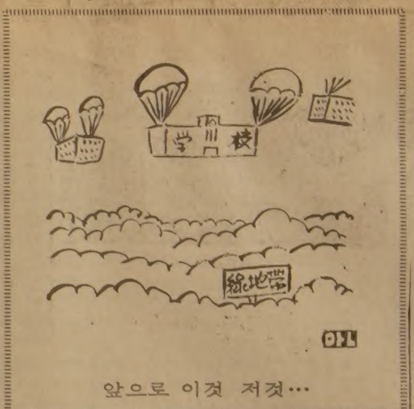
▼한걸음 더 나아가 법조문들을 찾아 보면、더욱 난감하다。가장 알기 쉬울듯한 경범법을 훑어보니、이런 조문이 나온다。『姻煮·洗滌·網皮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食用에 供하는 食品에 覆蓋를 設置하지 아니하고…行商을 한 者』—이것은하나의예문일뿐이다。경범법하나 제대로 읽자면, 적어도 「府役」「折採」「貼紙」「禁牌」「懸札」「變事」「惡戲」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한다。

▼같은 경범법에 「嫌惡感을 주게 한者」가 몇군데 보이고「불쾌감을 준 者」도 나온다。같은 뜻으로 쓰인 것이지만, 하나는「행위를 한 사람」이요, 하나는「행위를 하도록 시킨 사람」이다。어투는 뒷것이 우리말 다운데, 이것은 재작년 개정때의 신설조문。앞의것은 일본말투의 「惹起한者」의 직역이거나 오역이다。

▼위에 보인「嫌惡感을 주게한 者」에는「他人을 追隨…한者」가 포함된다。우리 말 사정을 보면, 「追隨」는 「追逐」이요, 그 뜻이 「벗 사이에 서로 왕래하며 교제한」으로 나와 있다。아무래도 여학생을 따라다니는 따위에 쓰는 말은 아니다。마찬가지로, 경범법은 길에서 「火藥類를 造作한者」도 처벌한다。그러나「造作」은 만든다는 뜻이다。「操作」의 잘못인가도 싶지만, 「火藥類의 操作」은 좀 어색하다。「使用한 者」 「터뜨린 者」라야 옳다。

▼이래 저래 처벌법규는 많고, 그 내용은 딸딸한것이 시민을 처지다。『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투를 빌어、『법은 멀고 벌은 가깝다』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법무부는 행정罰則의 過重·過輕이 없도록 재정비한다고 밝혔지만、법의 체계와 표현까지 검토하는 작업도 시작되었으면 한다。줄일것은 줄이고, 있어야 할 것은 알기 쉽게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법을 지키게하는 첩경이다。

社會漫評



앞으로 이것 저것…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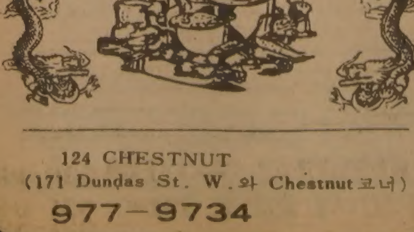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 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 R. S.P
922-3111 (B)
791-8196 (R)

한국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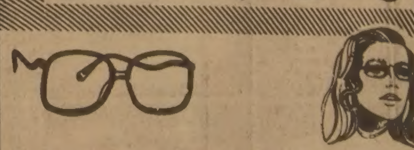
533·2361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4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 4 AM
토~일 : 12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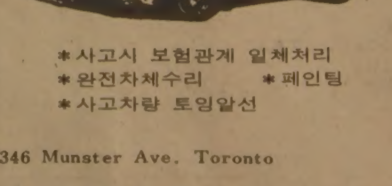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977-9734

블루어안경



● Zeiss(Marwite) ● Rodenstock
● Christian Dior ● Nina Ricci
● Menrad ● 안경제조. 수리. 복사처방
● 안과의사알선(No Appointment)
● 정부 보조 안경지정영업소
●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 합니다.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영업시간 : 월~목 · 9 : 30AM~7AM
금 · 9 : 30AM~8PM
토 · 9 : 30AM~6PM
635 BLOOR ST. W
531—2236 (B) 886—0722(R)

L&K
AUTO BODY
완전바디와 완전정비
완벽한 기술과 친절한 써비스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완전차체수리 * 페인팅
* 사고차량 토잉알선
346 Munster Ave. Toronto

오 세 호
(B)231—6951
(R)742—5406

초대합니다

기쁨으로 아뢰옵기는 본 교회 창립 7주년을 맞이하여 아래와같이 기념예배및 장로 장립식을거행코저 하오니 부디 오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장로장립 : 조용선 · 김규
장 소 : 오순절장로교회
754 Indian Rd. Tor. Ont.
일 시 : 1982년 2월20일(토)
오후4시

당회장 장세택목사

回教종파의 極限대결

시리아 수니派叛亂의 背景

시리아는 회교종파간의 고질적인 극한대립으로 다시금 내전위기에 봉착했다。 하마시의 대규모반정폭동은 수니파와 시어파간의 마찰로 비롯됐다。 시리아내 회교다수세력인 수니파는 소수인 알라위파(시어파의 한 분파)가 정부와 집권바뜨당및 군부의 요직을 독점하고있는데 대해 큰불만을 품어왔다。 따라서 수니파는 지난수년래 바로 알라위파신도인 하페즈 알·아사드 대통령에 반대하여 반정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번에 반정무력봉기가 일어난 하마시는 시리아제4의 도시로 인구20만명중 대부분이 수니파교도로 구성돼있을뿐아니라 지난63년 불법화된 우익회교혐제단의 거점이다。

반정소식통에따르면 하마반란은 10일전인 지난2일저녁부터 발발한것으로 알려졌다。 무자헤딘이란 회교혁명단체도 그들이 하마시봉기를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접전이 치열했던만큼 사상자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숫자가 자꾸늘어 5백명설(요르단방송) 1천명설(미국무성소식통) 3천명설(반군소식통)까지 나왔으나 아직도 정확한 사상자수는 확인안되고있다。

전황은 11일현재 반군의 교량폭파등 강력저항속에 정부군이 증원되어 하마시를 봉쇄하고있는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하마시봉기사태는 지난76년、80년의 반정봉기와는달리 하마시 한곳에 국한돼있다고 미국측소식통은 밝혔다。

그러나 반군소식통은 다른 수개 소도시에서도 소요사태가 벌어질 조짐이있다고 주장했다。 하마시는 수도 다마스커스 북쪽1백90여㎞지점에 위치한 인구20만의 산업도시。

다마스커스에서는 군인들의 순찰모습이 보이고총성이 있었으며 인구1백80만의 시리아 제2의도시알레포와 해군기지가 있는라타키아、공군기지가 있는팔메라등지에 서로 긴장감이 고조돼있다고 반군소식통들이 전했다。

한편 시리아정부측은 하마시폭동사태는 전혀 근거없는 사실로서 다만 지하반정부조직인 모슬렘형제단원 수백명을 체포하고수백정의 무기를 압수했다고 주장했다。시리아정부는 또한 미국무성의 하마시에서 1천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힌것은 전적으로 시리아국내문제에 간섭하려는 속셈의 발로라고 비난했다。

少數알라위派 權力독점 불만
反아사드 활동전개

시리아당국의 사실은폐에도 불구、이번 하마시무력폭동은 지난1월의 공군장교의 불발쿠데타사건에 이어 발생한것으로서 지난70년무혈쿠데타를 집권한 아사드대통령의 좌익바트당정권에 큰시련을 안겼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金壽敦기자】

亞·太17國、석유探査 붐

費用적고 確率높아 試錐활발

【싱가포르10日外電=聯】亞·太지역 17개국들의 석유탐사활동이 금년과 내년사이에 절정에 이를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지역의경우 다양한 기회가 보장돼있고 다른지역들에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먹힐것이 확실해 이지역의 석유탐사는 더욱 구미를 당기고있다。

석유탐사 자문회사인 개프니·클라인·앤드·어소시에이츠社는 9일 싱가포르에서 개막된 東南亞沿岸會議에 제출한 보고서를통해 금년해동안에만 이지역에서 새로 발견될 석유매장량은 20억내지 30억배럴에 이를것으로 내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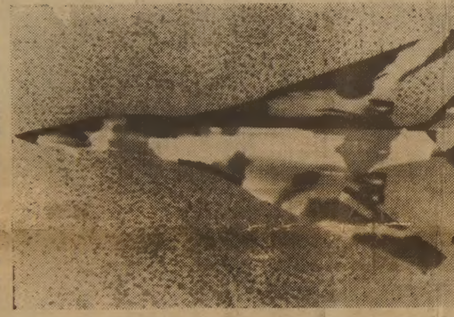
이지역은 다양한 地質層이 분포돼있어 탐사회사의 규모가 크건 작건간에 실속을 노릴수있는 무대가 되고있다는것이 특징이다。

이같은 특징으로 미루어 지역 산유량의 37%를 점하고있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필리핀의 80년대상반기전망은 더욱 밝다고 볼수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경우 分配生産契約제를 채택하는등 이지역 정부당국들이 大小회사들에게 적극적인 장려책을 쓰고있는점 역시 유리한 변수가 되고있다。

탐사비용도 전혀 안오른것은 아니나 北海등 전세계 다른지역들만큼 대폭적으로 상승하지는 않았다。

◇敎皇、방탄벤츠車 기증받아 교황 요한·바오로2세가 10일 메르체데스·벤츠사 간부들로부터 방탄유리가 부착된 벤츠를 기증받고 환담하고있다。【바티칸시티11日UPI=聯】



◇에드워드基地서시험된 B-1폭격기 에드워드 공군기지에서 시험된 B-1폭격기로 美로크웰·인터내셔널社는 이와 유사한 B-1B폭격기 1백대생산을 위한 2백5억달러 계획에 있어 주요계약社이다。【털서(오클라호마시)11日UPI=聯】

鄧小平、北京으로 귀환

肅清、上海로 확산될듯

【홍콩11日外電=聯】중공의 실력자인 黨부주석 鄧小平은 그동안 그의 건강과 정치적 생명에대해 구구한 추측을불러일으켰던 1개월간의 잠적에서 벗어나 北京으로 되돌아갔다고 홍콩에서 발행되는 중공계 일간지 文匯報가 11일 보도했다。文匯報는 鄧小平이 廣東省都 廣州에서 10여일동안 머물러 있었으며그의 건강상태는 매우 양호하다고 보도했다。

鄧은 廣州에서 소위 經濟特區의 발전을포함,외국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이기위해 廣東省이 취하고있는「특별정책」과「융통성있는방식」에대해 자세한 보고를 들었다고 文匯報는 보도했다。

【北京11日UPI=特】지난1개월동안 北京을 떠났던 중공당부주석 鄧小平은 최근진행되고있는 숙청작업을 지방省으로부터 중앙관료사회와 중공최대의 도시 上海로 확대시키기위해 北京으로 돌아온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鄧은 계속권좌유지
中共정부 공식발표

【北京11日UPI=特】중공정부는11일 鄧小平이계속 권좌를유지하고있다고 공식확인했으며 보도들은 당부주석인 鄧이 숙청작업을 확대하기위해 北京에 귀환한것이 분명하다고말했다。

日、독자偵察衛星발사 방침
이달중순 美에 調査團파견

【東京10日=聯】일본自民黨은 소련의 극동군사정세를파악하기 위해 장차 일본독자의 정찰위성을 발사한다는방침을 세우고 구체적 작업에 착수했다。

自民黨의 우주개발특별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방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 조사비를 요구하는 한편 이달 중순 나까야마·다로(中山太郞)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조사단을 미국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自民黨이 구상하는 정찰위성은 사진정찰위성으로 소련 극동군의 정세를 위성사진을 통해 신속히 파악하기위한것이다。

일본은 氣象위성을 발사한 실적을 갖고있어 정찰위성발사에 별다른 기술상의 문제는 없는것으로 알려졌다。

中共、油田개발규정 마련

총31개項 近海探査 법적뒷받침

【北京10日UPI=聯】中共은10일 근해유전개발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31개항의 유전개발규정을 발표함으로써 中共이 보유하고있는 막대한 近海油田개발에 外國회사들이 참여할수있는 길을 터놓았다。

중공관영 新華社통신은 외국회사들이 시추작업에 앞서 요구해온 근해유전개발법을 발표했는데 이 법규는 외국석유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익금의 본국송금권을 보장하며 외국회사들이 생산한석유의 분담량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법규는 또 외국회사들의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분쟁중재절차도 마련、中共과 외국회사간에 분쟁이 발생할경우 중공이나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제3의 중재기구에 의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법규는 또 중공近海유전개발 석유생산판매를 전담할 中共국영近海석유공사(CNOOC)를 조속한 시일내에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中共은 이에앞서 지난해12월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을 승인、近海유전개발을 위한 첫번째 장애물을 제거했었다。

중공은 시추작업을위한 국제입찰을 82년1·4분기중에 실시할 예정이나 대부분의 외국석유사분석가들은 국제입찰시작이 82년4·4분기에나 가능할것이라고 말했다。

석유업체소식통들은 중공이 입찰초청에 앞서 입찰명세를 밝혀야한다고 말했는데 다른 난관은 미국정부가 중공과의 2중과세방지를 위한 규정을 발표하는것이라고 말했다。

美、蘇의 유럽核 減縮案거부

〝西유럽 支配노리는 위장전술〟

【워싱턴10日AP=聯】미국은 10일 소련의 유럽배치핵무기감축안을 거부했다。딘·피셔 美국무성수석대변인은 소련이 9일 제시한 새로운 중거리핵무기감축안이 소련의 西유럽지배를 노리는『위장전술』이라고 말하고 소련은언론을 통해유럽배치핵감축협상을 진행하려고 있다고 비난했다。

反政 共産게릴라

마노톡 납치否認

【마닐라11日UPI=特】마르코스 대통령의 사위 토머스·마노톡씨(32)를 납치한것으로 혐의를 받고있는 반정공산게릴라단체는 11일 그들의 마노톡씨납치관련사실을 부인했다。

게릴라단체의 정치기구인 국가민주전선은 이날 그들의 관보인 자유지를통해 신인민군(NPA)이 소위 마노톡납치사건에 관련돼있다는 정부측 발표를 부인했다。

메아리

프로복싱은 神話를 만들어 낸다。「갈색의 폭격기」조·루이스、「나비와 벌」처럼 싸운 무하마드·알리、그리고 오늘의 슈거·레이·레너드등。 이들은 세계프로복싱의 신화적 존재다。한국복싱에도「四顚五起」의 신화가 있다。

프로복싱은 명예와 돈을 목표로 한다。 세계챔피언의 자리는 이 두가지를 보장해 준다。「빈민가의 無名」이 일약 명성과 巨富를 두손에 쥔다。 말하자면 현대의 우상이 되는 것이다。

프로복싱은 또한 고독과의 싸움이라고 한다。 마라토너가 그런것 처럼 15회를 숨가쁘게 뛰어야 하는 프로복서는「링위의 로빈슨·크루소」같다。「권투는 스포츠 가운데 최고의 스포츠다。 그것은 남자대 남자의 싸움이며 일단 공이 울리면 서로 의지할데가 없다」는 한 권투프러모터의 말은 거듭 음미해 볼만하다。

그러나 챔피언의 座는 수도사와 같은 무서운 苦行을 이겨내야 지켜진다。 우리나라의 하나뿐인 세계챔피언 金喆鎬선수의 4차방어전을 보고 우리는 이 고행의 길을 다시 확인할수 있었다。

고무공처럼 탄력 있는 펀치의 작렬、 그리고 숨막히는 극적인 다운의 교환ー。 동양권선수들이 보여 줄수 있는 화려한 게임의 모범으로 오래 기억할만한 멋진 한판이었다。

복서의 保護

細拔로 통하는 아마복싱에 비해 프로의 라이트는 역시 一發必倒의 KO다。 관중은 언제나 폭발적인 KO장면을 기대한다。「복싱은 재즈와 비슷하다。 그것이 고상하면 고상할수록 사람들은 싫어한다」는 조지·포먼의 고백은 이런 관중을 의식한 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KO펀치는 때로 목숨까지 거는 위험이 따른다。 확실한 통계가 잡히지 않지만 세계에서 한해 10여명의 복서가「주먹의 희생자」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권투선수의 腦波이상에 관한 어느 의사의연구가 얼마전 발표되어 복싱팬들을 놀라게했다。 아마와 프로를 안가리고 우리나라 선수의 절반 가량이 뇌파에 이상이 있다는 지적이었다。「異狀」은 KO·다운·대전수에 비례한다고한다。

챔피언은「유혹의 손길」에서 자기를 보호해야 하고 그를 키우는 주변에선 선수의 건강관리에 좀더 신경을 써야한다。 이것은 권투만이 아니고 모든 스포츠인들이 마음에 새겨둘 원칙이 아닐까…。

波龍業주도5명에

징역3~4년선고

【바르샤바10日AP=聯】계엄 폴란드군사법정은 10일 계엄선포후 파업을 주도한 자유노조소속 노동자 5명에게 징역3~4년형을 선고하는 한편 자유노조전국위원회 부위원장 미로스와프·크루핀스키를 체포、재판에 회부했다。

실레지아 군사법정은 이날 지난12월16일 부예크 탄광파업을 결정한 혐의로 스타니스와프·플라데크등 4명의 노조원에게 각기 최하 3년에서 최고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바르샤바법정에서도 한 기능공이 파업선동혐의로 징역4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재판이 끝나자 방청객 2백여명은 법정밖에서 시위를 벌이며 부당한 판결에 야유를 보냈다。

中共에 쿠데타說

홍콩誌보도

【홍콩·北京10日UPI·AP=聯】중공의 실권자인 鄧小平은현재 정계에서 半은퇴한상태에 있으며 鄧의 이같은 半은퇴는 고위관료들및 軍部지도자들이 주도하는 反鄧『無血쿠데타』가 진행되고 있다는 조짐을 나타낸 것이라고 홍콩의 파·이스턴·이코노믹·리뷰誌가 10일 최신호에서보도했다。

리뷰지는 同誌의 北京특파원 데이비드·보나비아가 쓴 기사에서 鄧의 명백한 권력상실은 고위정부관료들과 군부지도자들에의해 그를 제거하기위한『무혈쿠데타』가 진행되고있음을 시사하는것이라고 말하고 鄧의 失權은『중공으로서는 매우 중대한 문제』로 그의 후계자들인 黨주석 胡耀邦및 수상 趙紫陽과 보수적인 黨지도자들및 급진주의자들사이에 권력투쟁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死亡 남편의 명예회복요구

韓國戰포로 美少領 利敵行爲판결

한국전쟁에서 포로생활중 利敵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뒤 사망한 한 미국장교의 미망인이 미국방성에 남편의사후 명예회복을 요구하고 나섰다。

1950년 한국전쟁에서 중공군에 포로가 되었던 故로널드·앨리소령의 미망인어너·앨리여사가 남편의 유죄판결이 부당하다면서 이의시정을 요구하자 미육군은 어너여사의 청원을 심사할 특별분회를 열었다。

앨리소령은 전쟁이 끝난뒤 미군법정에서 포로생활중 동료미군을 배반하고 중공군에 협력했다는 혐의로 10년 강제노동형을 선고 받았다。

앨리씨는 그뒤 5년으로감형되었다가 3년으로 다시감형된후 형기를 마치고 출감、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명예회복을 위해 두번이나 미육군기록정정위원회에 청원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채 지난78년 심장마비로 사망해버렸다。

앨리씨는 20세기에들어 利敵행위로 감옥생활한 유일한 미국장교라는 汚名을씻지 못하고 불귀의客이된것이다。

어너여사는「신념이투철한 장교였던 남편이 동료들의 위증과 50년대초 위세를떨친 매카시즘의 제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믿고있다。

하지만 청문회결과는 아직 예측할수없다。청문회에 증인으로나온 앨리씨 동료들의 증언이 서로 相反되고있기 때문이다。【워싱턴AP=特】

海外토픽

컴퓨터로 自動給油
★加州에 異色주유소

캘리포니아 남부지방에서는 최근 현금이나 크레디트카드없이 자동적으로 자동차에 기름을 채울수 있는 신종주유소가 등장해 인기를 끌고있다。

美페트롤리움社는『자급식주유소』라는 이신종 주유소를 산·가브리엘계곡부근에 8개설치해놓고 주유소신청을 계속 받고 있는데 산타모니카에서 이주유소를 경영하고있는 폴·물러씨에 따르면 이주유소의 이용요령은 고객이 적·백·청색의「차변카드」를 주유소부근에 설치된 컴퓨터박스에 집어넣으면 카드에 4자리숫자가 찍힌후 필요한 양만큼의 기름이 자동적으로 주유된다。【로스앤젤레스=UPI】

女子권투선수 敗訴
★大會出戰 허용요구

미국의 골든글로브복싱대회에 출전하려는 19세의 한 여성권투선수가 이 대회조직위원들을 상대로 법원에 낸 출전허용요구가 연방판사에 의해 기각됐다。

이러한 법정싸움의 발단은 랜싱커뮤니티대학 권투부에서 남자선수들과 권투연습을 해왔던 질·래플러라는 여대생이 지난달말 개막된 이 대회에 참가신청을 했으나 조직위원회측이 대회규칙을 들어 신청접수를 거부한데서발단된것。

웬델·마일즈연방판사는판시문에『신체구조상 남성과 차이가 나는 여성이 똑같은 규칙하에서 안전하게 복싱경기를 치룰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기각이유를 설명。그녀의 지금까지의 전적은 1전1승으로서14세 소년과의 대전에서 판정승을 거두었다。【마게트(美미시간州)=AP】

印·蘇관계 冷却期에

印共産黨、간디수상支持 철회가 불씨

◇친소노선에서 점진적 이탈을 모색하고있는 간디 인도수상。

최근 인도—소련 관계는 갑자기 냉각되는반면 인도—미국관계는 점차 해빙의 조짐을 보이고있다。

인도—소련관계의 냉각원인은 소련의 승인을받고있는 인도공산당이 간디수상정권에대해 지지를 철회하고 간디의 최대정적인마르크스주의 공산집단과 결속한데 있다고 정치분석가들은 보고있다。 간디는 이같은 좌파집단들의 행동을 소련이 마음만먹었다면 얼마든지 저지할수있다고 보았던 만큼 인도내의 많은 친소집단들에대한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對蘇 간접보복을 하기에 이르렀다。 간디정부는 작년8월 제10주년인도—소련우호조약기념식행사도 형식적으로치러 對蘇불쾌감을 나타냈다。

인도는 소련의 79년아프간침공을 비난하지 않았을뿐아니라 침공베트남군이 세운 친소캄보디아정권을 승인함으로써 결국 제3세계에서 고립당하고 있음을 간디수상 스스로도 알고있다。

따라서 인도는 조심스럽게 너무 밀착관계에 있던 소련과의 거리를 유지하게 되었으며 대신 미국과 아시아의 친미국가들과는 화해를 모색하게 되었다고전문가들은 보고있다。

親蘇집단 지원중단 報復
3세계서 고립…美·亞圈 화해
中共과 대화등 外交전환

작년12월 인도는 지난20년간 국경분쟁을해온 중공과 62년전쟁이래 처음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또한 인도는 미국및 중공과 가까운 인접 숙원국가 파키스탄과도 불가침협상회담을 벌임으로써 외교방향의 분명한 전환을 보였다。 이같은 인도—파키스탄화해는 인도—파키스탄간의 긴장을 파키스탄의 아프간내회교게릴라 지원거점의 주요방편으로 삼고있는 소련을 불쾌하게 만들었을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반면 인도정부는 미국과는 대결보다 점차 양보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도와 미국은 63년 봄베이부근에 위치한 타라푸르원자로의 연료공급협정을 맺었으나 74년 인도가 핵실험을 강행하자 미국은협정이행을 중단、양국관계가 악화됐었다。 81년 말부터 간디수상은 미국과 이문제로 진지한 협상을 벌이겠다고밝혀 對美접근 움직임을보이기시작했다。【敎】

인사이드

中南美 첫 平和的 政權교체

코스타리카 새大統領 몽헤當選

野黨후보로 60%支持 받아
共産主義·右翼독재등 반대

軍政아니면 의회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가 판치는 중남미에서 최근 야당후보가 대통령에 당선、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는 이변이 났다。

인구2백20만의 小國 코스타리카의 새 대통령에 60%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루이스·알베르토·몽헤·알바레즈씨(58)가 그 장본인。좌우익한대립 양상을 띠고있는 中美정치계에서는 보기드물게 온건한 노선을 밟고있는 그는 중도좌파의 국민해방당(PLN)당수로서 공산주의와 우익독재를 모두 강력히반대해왔다。

몽헤씨는 지난79년 니카라과의 안스타시오·소모사 우익독재정권을 전복시킨 산디니스타 게릴라세력을 강력지원했던 반면 현엘살바도르내전에는 협상을통한 해결을 주장한다。 지난 대통령선거기간중 우익세력이 몽헤씨를 공산주의자라고 비판한것도 바로 그가 니카라과혁명을 열렬히지지한 때문이었다。

◇기자회견하는 몽헤대통령

몽헤씨는 대통령당선후 최근가진 기자회견에서코스타리카는 미국으로부터 군사원조 아닌 제반경제원조를 긴급히 필요로 하고있다고 언명、온건한 중립적 입장을 보였다。

향후4년간 코스타리카를 통치할 몽헤씨에겐 前정권이 물려준 극심한 경제난(과거1년간 화폐가치 4백50%폭락·81년 인플레율 1백%이상·실업률 10%이상)을 해결해야하는것이 급선무이다。 또 내란에 휘말린 中美에서 조국의 안전한 독립을 보전하는것도 큰과제의하나다。

코피와 사탕농장의 농부아들로 태어난 몽헤씨는약관19세에 코스타리카사상 최초의 비공산계 노조운동인 레룸·노바룸의 창설에 일익을 담당했으며 이같은 노조운동경력때문에 국제노동기구및 중남미지역노동연맹에서 고위직을 맡았다。【敎】

종합시청각敎材

「즐거운 어린이영어」

○…어린이용 영어교재의 붐을 타고 도서출판 국제언어사가 이번엔「즐거운 어린이영어」(Fun English For Children)를 내놓았다。

「즐거운 어린이영어」는 서울大 黃燦鎬교수(초대어학연구소장)가 우리나라어린이들에게 알맞도록 영문 어린이 영어교육 종합시청각프로그램으로서 생생한 효과음、미국인 남녀의 정확한 표준발음、영어에알맞는 노래등이특징이다。(값5만9천원)

DOMINION SMALLWARES

—— CASH & CARRY에 한함 ——

Feb.8-Feb.20		Spec.
Dare bag candy	12x 1.29	9.19
Y & S twizzler	70x5¢	1.85
Hersey almond choco / " peanut butter cup	36x40¢	9.29
Moirs valentine cinnamom hearts	24x40¢	5.05
" " marshmallow hearts	24x40¢	5.05
Allans devil top tub	48x10¢	3.16
Allans 2/5¢ kiddie pops	240ct.	3.95
" " " "	101ct.	.90¢
Planters mixed nut	350g	3.55
" cocktail peanut	350g	2.05
O-Pee-Chee bazooka grape,peroo,cherrgum	36x10¢	2.37
Delsey toilet tissue paper	24x2's	17.45
Hi-dri towel	18x2's	17.99

Lawrence / Keele / Caledonia / Dufferin

DOMINION SMALLWARES
920 CALEDONIA RD.
789-7214(MR. 김)

고국의 향수가 듬뿍어린 연속극,문학영화,전설…

비디오

VIDEO··VHS.BETA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2시간~3시간)

전설의 고향— 하나, 3종지도, 정승골 대감, 조강지처, 우는바위

TV문학관— 역마, 배따라기, 청산대, 무진기행, 산상에 서다, 삼포로 가는길, 형제, 메밀꽃필 무렵등….

영화— 육군사관학교, 낙도의 무지개, 칼과 이슬, 전우가 남긴 한마디, 다정다한, 배삼룡의 일생, 고교얄개전, 오형대 소년

코메디— 웃으면 복이와요, 코메디 출동, 폭소대작전, 김희갑 전집,

쑈— 쑈11, 쑈2000, 100분쑈, 쑈쑈쑈, 이미자전집, 최희준전집, 젊음의 행진, 가요싸롱, 흘러간 노래모음, 싱글벙글쇼, 5천만의 대행진등…50여편.

수사극— 간첩체포 일화, (얼어붙은 강, 여울의 소리, 고향이 부르는 소리), 수사반장, 형사 외 7편

사극— 암행어사, 포도대장, 대명, 각각 10여편

민속— 팔도대항전, 한국민속경연대회, 전국민속대항전, 푸른 조국, 청자빛 하늘아래

일요드라마— 소망, 부부, 한국의 미, 양철가족등 10여편

기타— 인간가족, 사랑의 계절6편, 제1공화국 10여편, 동심초, 국군의날 기념, 청룡기 고교야구대회 결승전(광주제일고 : 선린상고)

경연대회— 제5회 대한민국 연극제 당선작 "축보", 제11회 전국노래자랑 춘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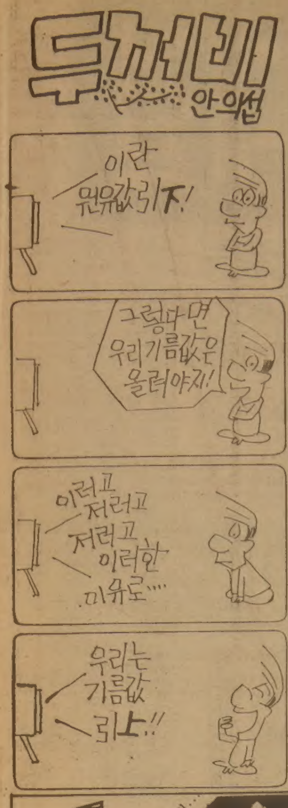
어린이용— 우주 대작전, 꿈나라, 모험소년, 15소년표류기, 죽음의 쵸스, 경이의 세계써커스, 화이팅 우주소년, 우리들의 광장, 만화동산, 얄개시대, 호랑이 선생, 마징가, 엄지공주등 50여편

한국말 외화— 다리지마고, 레미제라블, 죽음의 쵸스, 집없는 아이, 석양의 무법자, 전쟁과 애욕, 변사인, 이소룡의 전설, 피서지에서 생긴일, 욕기, 벤·후라위, 7인의 신부, 바람의 목수, OK목장의 결투, 소문난 형사, 리틀·다링스, 전화살인, 수리작전, 빠르린 위기탈출, 디어 헌터등 40여편, 모두 230여편의 프로그램과, 매월 20여편의 뉴 테입이 반입될 예정입니다.

미도파백화점 비디오부 536-1692

SUN-MI GRAPHIC STUDIO 531-6430 921-5903

454 A BLOOR ST. W. TORONTO MIDOPA



결혼예물, 보석 및 시계… 다이아몬드·에메랄드·루비 사파이어·진주·오팔
미도파 보석부 536-1692

鄭載巴군 오늘起訴

金반지·지갑등 결정적 物證없이

朴尙恩양사건 혈흔시트커버등 61점提出

상경여대생 朴尙恩양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구속된 鄭載巴군(21·I大행정학과 3년)이 12일 기소된다.

지난달24일 鄭군을 구속한 서울지검 東部지청은 그동안 鄭군이 범인임을 보다 확실히 입증하기위한 증거보강작업에 전력을 기울여왔다. 재판정에 제시될 자료는 당초 증거로 제시했던대로 혈흔이 남은시트커버와朴尙恩양의T셔츠, 朴尙恩양수첩, 수사철3권및 비디오테이프등 모두61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자료속에는 鄭군의 출신고교인 H高담임교사의 鄭군에대한 성향분석도 참고용으로 포함돼 있다.

그러나 검찰은 그동안 鄭군범행의 직접물증인 금반지·지갑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鄭군이 반지를 버린 장소로 자백했던 大方전철역구내에서 반지를 주운사람이 있다는 정보가 들어와 수사에 착수했으나 사건발생전해인 지난80년 청소부가 주워 세탁맡긴 것임이 확인됐다.

鄭군구속이후 사건담당 趙炳吉검사는 거의매일 城東구치소로 鄭군을 찾거나 鄭군이 朴양을 불러낸 장소인 장미아파트 17동의 경비원들을 만나거나 지난해9월21일 朴양을 부검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의사를 면담, 서류정리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그러나 高淑鍾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고비로 급상승 상태에 있는 법원의 증거주의 벽으로 물증확보에 실패한 검찰이 어떻게 뚫어가느냐는것은 큰 관심거리다.

검찰은 시트커버와 朴양T셔츠에서 검출된 O형의혈흔이 어떻게 朴양것이라고 말할수있느냐는 의문에대해『혈흔이 O형으로 판명됐고 鄭군이 자백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는 입장을 보이고있고 치흔에 대해서는직접사인이 아니므로 문제시하지 않고 있다.

맞벌이夫婦 출근후 3男妹 中毒死

【春川=聯】 10일하오5시40분께 강원도太白市鋼店洞5통2반 林현조씨(43·江原탄광광부)집 안방에서 林씨의 장남 필수군(15·太白중1) 차남 성수군(12·鋼店국4) 장녀 향수양(6)등 3남매가 연탄가스에 중독, 숨지고 3남 이수군(9·鋼店국2)은 중태에 빠졌다.

이날 사고를 발견한 林씨의 부인 金영숙씨(35)에 따르면 이날상오7시께 아이들이 잠든사이 남편과함께 직장인 江原산업에 출근한후 귀가해보니 방안에 피워놓았던 연탄난로의 뚜껑이 열린채4남매가 가스에 중독, 3명은 숨지고 1명은 신음중인것을 병원으로 옮겼다는것.

중태에 빠진 이수군은 근 석공장성병원에 이송 가료중이다.

경찰은 이들 4남매가 잠결에 난로를 건들여 뚜껑이 열리며 사고가난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疑問의 집단自殺

20代세青年 소나무에 목매

海雲臺뒷산서 發見

【釜山=聯】 10일 하오4시30분께 부산海雲臺區中洞 청사포뒷산 소나무숲에서 신원을 알수없는 20대청년 3명이 높이5m의 15년생 소나무에 직경 1cm정도의 나일론끈으로 나란히 목이매인채 숨져있는것을 경방원 임이술씨(58)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임씨에 의하면 이날 청사포마을에서 산쪽으로 순찰중 숲사이로 붉은색옷이 보여 아베크족이 앉아있는것으로 알고 올라갔다가 이들3명의 시체를 발견했다는 것.

숨진 청년3명중 2명은 붉은색 점퍼와 작업복바지, 나머지1명은 방한복 차림이었다.

시체가 발견된곳은 청사포마을에서 서쪽으로 3백m, 海雲臺에서 松亭으로 연결되는 달맞이 해안도로에서 1백m 떨어진 경사40도의 산속으로 숲이 우거진곳이다.

通禁없는 한달 總犯罪 작년比 2.5%增

淪落·퇴폐·暴力등 深夜범죄가 主宗

強·竊盜·輪禍 오히려 줄어

야간통금해제후 유락행위, 사행행위등의 퇴폐사범과 음주소란, 폭력사건등은 증가했으나 강도, 절도등 강력사건과 교통사고는 오히려 감소한것으로 밝혀졌다.

치안본부가 11일 발표한 통금해제후 1개월간의 전국 치안상황 종합분석에의하면 총범죄는 전년 같은기간에 비해 2·5% 증가했으나 강도는6·7%, 도범은 6·2%가 감소하고 폭력은 4·1% 증가했다. 한편 교통사고는 지난해같은 기간보다 9·5% 나 감소했다.

이기간동안 퇴폐사범은 35%, 경범은 26%가 늘어나 해방감으로인한 일부시민및 청소년들의 탈선이 눈에 띄었고 특히 유락행위, 사행행위, 음주소란, 무전취식등이 대폭 증가했다.

치안본부는 통금해제초기에 일시 격증했던 각종범죄가 거의 전년도 수준으로 환원됐으나 심야범죄 발생율이 늘고있고 봄철에 접어들면서 심야의 불건전한 각종범죄와 퇴폐사범등이 늘것으로 전망했다.

치안본부는 이에따라 ▲외근근무제도의 3부제추진▲도심권도범 집중소탕및 과학수사체제 확립▲시민의 건전명랑및 질서의식 함양을위한 계몽강화▲대공및 반공신고조직의강화▲자위방범조직육성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서울시경이 11일발표한 통금해제이후의 범죄양상은 청소년풍기사범이 같은기간에 비해57%나 증가했고 절도범도 46·6%나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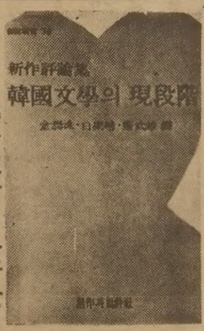
豪華여객선피요드號 釜山에 觀光客 4백여명 歡迎꽃다발

노르웨이 2만톤級

【釜山=聯】 세계적인 호화여객선 시가·피요드호(2만4천톤·노르웨이선적)가 13개국의 관광객 4백23명과 승무원3백50명등 모두7백73명을 태우고 11일 상오8시 釜山港제2부두에 입항했다.〈사진〉

이날부두에는 釜山市관계관을 비롯, 기관장등 3백여명이 나와 이들에게 환영꽃다발을 전달했으며 40명으로구성된 동주여상 고적대도 우리나라에 처음온 이들을 환영했다.

14명의 評論家들이 分析한 主要作品의 爭點과 문젯점



創作과批評社刊 「韓國文學의現段階」

○…평론가 14명이 新作批評을 통해 우리 문학의 현위상을 살펴 보는 「韓國文學의 現段階」(創作과批評社刊·3천5백원)가 출판돼 나왔다.

한국 문학의 현재위치와 모습을 어떤 일관된 기준이나 視覺에서 바라보는 특별한 통일성을 가지지는 않았으나, 필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현대한국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판단한 작품들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우리 문단에서 주요 爭點으로 논의돼온 문젯점들을 다루어 우리 문학과 문단이 서있는 자리를 더듬고 있다.

평론모음에참가한 金思寅, 金正煥, 金鍾澈, 黃光穗, 李東夏씨등은모두 新人들로서 이번에 처음선을 보인셈.

미술평론가 金潤洙씨, 白樂晴씨, 廉武雄씨등 3명의 평론가들이 기획편집을 맡았다.

서울 過密校의 유별난 惜別

해마다「마이크卒業式」

교장실서 祝辭… 교실서"경례"

스피커의 送·答辭·노래 듣고

江西區 S國校 卒業班만 13학급 千百48명

◇S국민학교의 마이크졸업식전경. 졸업생들은 교무실에 설치한 마이크에서 울리는 소리에따라 기계적인 졸업식 행사를 갖는다. 복도에서서 이황량한 졸업식장을 들여다보는 학부모들은 한심하다는 표정이 서려있다.

학부형·賀客들 복도서 옛날追憶

「마이크 졸업식」―. 전자시대에 걸맞는그럴싸한 졸업식 같아보인다. 그러나 한꺼풀을 벗겨보면 낭만도 없고 추억도 있을수없는 황량한 졸업식임이드러난다. 교무실에 앉은 교장선생님이 마이크로 축사를 하고 졸업생들은 교실책상에 앉은채「목소리」를 들으며 졸업식 기분만 낸다. 「정든교실」을 떠나는 형과언니를 보내는 재학생들의 모습도 찾아 볼수가없다. 왜 이런 해괴한졸업식이 생겼을까.

졸업식을 치를 널찍한 운동장도, 강당도 없는 도심의 과밀학교에서 그렇단다. 서울 江西區 禾谷洞에 있는 S국민학교. 이학교 말고도 서울에는 그런학교가 몇몇개 더있다는 것인데, 「뿌리 있는 교육」을 바라는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는듯한 현상이어서 안타깝기 그지 없다.

11일상오 S국민학교의 의자에 얌전히앉은 졸업생들은 스피커로 흘러나오는 구령에 맞춰 보이지않는 교장선생님을향해 경례를하고 박수도친다.

그래도 학교장상과 교육구청장상등 상을받는 졸업생30여명이 교무실에가 내빈들과 선생님들에 둘러싸여 있기때문에 졸업식의 분위기가 전혀없달수는없다는것지―.

재학생대표의 송사와 졸업생 답사도 교무실에서 이뤄졌고 졸업식노래도 교무실에서 틀어주는 카세트테이프반주에맞춰 따로따로 부른다.

『잘있거라 아우들아 정든교실아…』재학생들과 어울려 눈물을흘리며 부르는 졸업식분위기가 느껴질리가없다.

그러니 낭만도,추억도 반감되고모교에대한「뿌리의식」도 소홀할것이다. 평생교육의기초가 국민학교과정에서 익어가는것이라면 서글픈6년의 결산이아닐수없다.

이학교의 마이크졸업식은 금년이 자그마치 4년째란다. 江南區에있는 K국교, D국교도 이날마이크 졸업식을 이용했다.

「마이크졸업식」이 등장한것은 두말할것없이 졸업생과 학부모, 재학생등을 한꺼번에 수용할수있는 강당이나 넓직한 운동장이 없기때문.

S국교의 경우 94개학급에 전교생은 6천6백여명으로 4학년까지 2부제수업을 해온 대표적인 과밀학교. 강당을 지을여유가 있으면 교실을 짓는것이 더 시급한 형편이다.

이날 졸업한 6학년만 따져도 13개학급 1천1백48명으로 웬만한 시골학교 전체수와 맞먹는 규모.

졸업생 한명에 축하객이 2명만 온다해도 3천여명이 넘으며 3천명을 한꺼번에 수용할수있는곳은 서울에서 장충체육관이나 세종문화회관등 공공시설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좁은 운동장이라도 사용했으면하나 날씨가 추워 어쩔수밖에 없다는 해명들이다.

마이크 졸업식을 한다해도 학부모들은 교실이 좁아 실내로 들어가지못하고 복도에서 발돋움, 교실안의 광경을 지켜보거나 복도도 넘쳐 운동장 구석에서 졸업식이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한 학부형은『내가 졸업할때만해도 교장선생님이 일일이 졸업장을 나눠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 기억이 생생한데 이같은「마이크 졸업식」으로 과연 모교라는생각이 일어날수 있을까』고 마이크 졸업식을 이해는 하면서도 안타까와 했다. 또한학부모는『국민학교나마 많이 지어「과밀학습」상태를 면하게 해야한다』고 지적하고 『2부제 수업,「마이크 졸업식」이 갖는 국민학교 교육의 부정적인 측면이 아이들의 뿌리의식을 희미하게할까 두렵다』고 걱정이 태산 같았다. 【鄭東鎬기자】

구독신청 배달사고

"火魔도사린 호텔많다"

서울37곳 可燃性내장材등 防火시설미비

大型여관도 겉만 그럴듯

서울시내 호텔의 대부분이 가연성내장재를 사용하고 있거나 방화시설을 갖추지않고 있고 내부구조가 복잡해 화재때 대형인명피해의 위험을 안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시내48개관광호텔중 방화시설을 완비한곳은 12개소에 불과하고 37개소가 불연 내장재를 사용치않고 있다.

또 관광호텔중 7개소는내부구조가 복잡하고 비상계단이 미비하여 화재때 투숙객들의 대피를 효과적으로유도할 수 없거나 또는 호텔전면 밭으로 인명구조용 고가사다리차의 접근이 불가능한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소방본부가 시내 대형여관35개소를 상대로 실시한 소방진단결과에 따르면 그중 29개소가 방화구획 미비, 가연성내장재사용등 방화시설을 제대로 갖추고있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본부는 오는 26일까지 이들 위반업소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는 업주들을 행정조치키로 했다.

소방본부 점검에서 나타난 대형화재 위험호텔은 다음과 같다.

▲풍전호텔(中區仁峴洞)=호텔과 카바레등의 가연내장재사용 ▲퍼시픽호텔(中區南山洞)=내부구조복잡, 고가사다리 접근불능, 방화문 미비 ▲앰배서더호텔(中區奬忠洞)=방화구획 미비 ▲스타다스트호텔(中區瑞麟洞)=가연성내장재사용, 비상계단 미비 ▲맘모스호텔(東大門區典農洞)=가연성내장재사용▲뉴용산호텔(龍山區漢南洞)=가연성내장재사용▲사보이호텔(中區忠武路)=방화구획미비, 가연성내장재사용.

서울大生 變屍體로

家出한달…山기슭서

倭館내려가…警察자살 추정

【漆谷=聯】 9일 하오3시10분께 경북漆谷郡倭館邑 까구산 기슭 徐씨 재실에서 지난1월10일 집을나간 서울大자연계열 1년 張誠豪군(20·서울冠岳區奉天10洞41의247)이 가출 1개월만에 시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張군이 내성적인 데다 염세적인 말을 자주 해왔으며 현장에서 마시다남은 2홉들이 소주병과 책가방이 놓여있고 팔목시계가 1월13일자로 멈춰있는것으로봐 張군이 가출 2~3일만에 자살한것으로추정했다.

張군은 1·2학기 성적이 3·7~3·8을 웃도는 모범 학생으로 알려졌는데 방학동안에도 하루종일 학교도서관에서 공부만해왔다.

브라질 不法이민 百20명 追放될듯

【상파울루10日聯合】 브라질정부는 1백20명 가량의 한국인 불법이민자들을 수일내로 상파울루에서 파라과이로 추방할 것이라고 연방경찰대변인이 10일 밝혔다.

이번 추방대상자들은 모두 파라과이를 거쳐 브라질에들어온 사람들이다.

브라질당국이 불법이민자들을 이같이 대규모로 추방하기는 이번이 처음있는 일이다.

연방경찰 대변인은 현재 상파울루에는 대부분 한국인과 중국인 불법이민자 6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작년12월 외국인등록법 수정안이 발표된 후 금년1월중 한국인의 브라질유입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이 수정안에 따르면 80년8월19일 이전에 브라질에 입국한 외국인이 신고하면 2년동안 체류를 잠정 허가하도록 돼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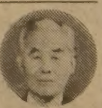
慶南大 초대총장에 尹泰林씨 任命승인

문교부는 11일 단과대학에서 종합대학으로 승격된 慶南大 초대총장에 尹泰林씨의 임명을 승인했다.

尹총장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서울출신 74세 ▲京城帝大철학과졸 ▲철학박사(서울대)▲서울사대교수·학장▲문교부차관▲淑明女大총장▲延世大교육대학원장▲慶南大학장

崇田大 4대總長에 姜信明씨 어제就任



崇田大는 11일 하오2시 동교대강당에서 교직원·동문등이 참석한가운데 姜信明씨 제4대총장취임식을가졌다.

姜총장은 취임사에서"崇田大의 서울캠퍼스와 大田캠퍼스를 완전분리, 서울의 교명은 崇田大로, 大田은 大田崇田大로해 문교부에 승인신청중"이라고 밝혔다.

姜총장은 지난34년 平壤崇實전문학교 영문과를 졸업, 서울영락교회목사·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의장·입법회의의원등을 역임했다.

金喆鎬 KO勝순간 銀行員 쇼크로숨져

10일 하오8시30분께 서울 麻浦區上水洞93의64 張學九씨(64)집 안방에서 金喆鎬선수의 WBC 슈퍼플라이급 세계타이틀 방어전을 TV로 보던 張씨의 3남 秉鎬씨(26·한국은행행원)가 갑자기 심장마비증세를일으켜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열렬한 권투팬인 張씨는 이날 퇴근후 저녁밥을 먹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TV를 보고 있었는데 金선수가 난타전끝에 8회전에서 도전자인 이시이를 KO시키는 순간 환호성을 지르다 쓰러졌다는것.

오리엔탈·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 3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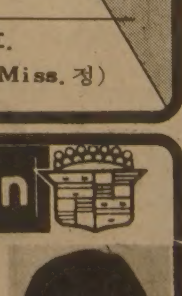
Dukes Computer
SMALL BUSINESS SYSTEMS
— Computer에 관한 일반적인 전화문의 환영 —
● SPECIAL SALE
자녀교육및 Business겸용
Apple II Plus
● SOFTWARE SERVICE
General Ledger
Account Receivable
Inventory Control
Payroll및 Word Processing
● PERIPHERALS
Printer, Games, Music, Graphics
826 FORESTWOOD DR., MISSISSAUGA, ONT. L5C 1G7
☎ : 275-0702 오 영 림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 Drive in Hamberg Shop.
주매상 : $13,000 바쁜 네거리에 있음.
가격 : $385,000
* Donuts Shop
주매상 : $4000.5,000.6,000.6500
* Variety Store
주매상 : $6000.5,000.4,500.4,000
★ Shopping Centre
① Breadman과Health food Store
주매상 : $5,000 전망밝은 지역.
가격 : $229,000
② Gift 와Hobby Store
년매상 : $170,000
가격 : $80,000
③ Television, 전축
년매상 : $300,000
가격 : $35,000
이외에 투자용 건물및 아파트등 다수있음.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 8645(B), 286-1548(R) M3B 1Z3

MR. CHOIS RESTAURANT
주중 : 월~수 낮12시~밤12시
목, 금 : 12시~밤1시
토 : 4시반~11시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 759-8512
최 영 호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등
특별대매출, 월부판매 알선
● 동부 : 255 MORNINGSIDE AVE. 282-2820
● 서부 :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나의 이력서

〈題字 元一漢〉

元 一 漢 ㊿

서울收復과 우리家族

타버린 집터보고 울음터뜨려

9·28서울수복때 내가 소속된 부대의 진입코스가 水色을 거쳐 延禧洞으로 닥치게 돼있었다. 그런데 延禧大뒷산과 우리집이 있는 산등성이가 공산군의 방어진지였기때문에 이곳의 비행기 폭격이 불가피했다.

우리집은 폭격으로 불봤고 산에 있는 나무마저 폐허가 되다시피했다.

수복이 끝난다음 불타버린 집을 찾아온 나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나는 세브란스병원이 불타는 장면을 서울역뒤 만리동 언덕에서 바라보고 내일생에 이렇게 당황해본 적이 일찌기 없었다.

나의 출생지는 남대문밖 복숭아골이지만 정확한 장소가 바로 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인 점도있고 선교사업으로 세운 시설들이 불타는 걸보니 가슴이 찢어지는것 같았다.

서울수복때 감리교선교사의 2세인 윌렴·쇼는 나와같은 大尉였는데 水色근처에서 전사했다. 이일로 나에게는 전선에 나가지말라는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서울수복후 나는 북진하는 국군을 도와 동해안 利原 元山을 거쳐 함경도 淸津까지 올라갔었다. 그때 한국어를 아는 장교 소련어를 아는 장교 그리고 무기전문 장교 셋이서 한조가 되어 국군과 미국고문단과의 중간역할을 했다.

한번은 수도사단장 宋堯讚준장의 통역을 맡아 무전기로 공군과 해군에 전달임무를 하던중 일일이 통역할 사이가 없어 내가 직접 명령하는 위치가 된적도 있었다.

그해(1950년)11월 城津에서 구축함을 타고 일본으로 후퇴했다가 한달만에 釜山에 있는 미해군본부고문단에 파송됐다.

아버지(元漢慶박사)는 내가 부산에서근무시작하기 두달전 전환이 궁금해 한국땅으로 다시 오게되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돌아가실때 생긴 쇼크로 심장병을 앓아 병도 치

◇양화진 외인묘지에는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모셔져 언더우드 가문의 가족묘지나 다름이없다。동생과 함께 묘소를참배하고있는필자㊨。

救濟사업차 釜山에 머물던 아버지 51年2月에 作故

료하고 미국에있는 두동생(제한과 은혜)도 위로할겸 미국에 건너갔다가 6·25동란이 터졌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와 구제사업과 선교활동중인 요한목사집에 머물렀던 것이다.

이때도 아버지는 어떻게해야 延禧大를 복구할수 있는가에 대해 궁리하고 일구월심 그생각에 전념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막내남동생 得漢도 이때 미육군소위로 부산에 배속돼있었다. 得漢은 17세의나이로 태평양전쟁때 입대했다가 해방후 제대하여 뉴욕해밀턴대학 3학년 재학중 한국전이 터지자 재입대했다.

그는 이번에는 통역관으로서 전선통역번역단에 근무했는데 東萊에 있는 살림집이 아버지가 계신 근처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날은 51년2월 20일이었다.

아버지는 심장병의 악화로 돌아가실것을 예감했음인지 2월18일 아펜젤라2세등 미국친구들과 한국친구들 몇분과 즐거운 친목회를 가졌다.

그다음 19일에는 부산에 모여있는 우리3형제들과 지프를 타고 동래뒷산에 올라갔다. 이날따라 날씨가 쾌청하여 부산앞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였고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름다운 한국의 산천을 마음껏 즐겼다.

이때 아버지는 고작 환갑의 나이요 앞으로 할일이 창창하신데 빨리 돌아가신일이 슬프기 한량없으나 전쟁때는 으레 흩어지게 마련인 형제들이 함께 모였다는게 은혜받은 일로 생각지 않을수 없다.

國樂을集大成
劉信著「國樂通論」

○…원로음악평론가 劉信씨가 최근 국악이론서 「國樂通論」을 펴냈다. 「국악통론」(世光출판사刊·5천원)은 劉씨가 60년대말부터 열중하기 시작한 민속악의 자료발굴과 採譜작업의 성과를 정리할겸 아직 이론화되지 못한 국악전반소개를 위해 정악 궁중악부터 불교음악 무교음악에 이르기까지 한꺼번에 모아 집대성한 것。

또한 국악기의 종류및 기능부터 음계、국악의 분류와 작곡에 이르기까지 국악에 관한 이론을 총망라해서 담고 있어 국악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위한 기초서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農村의實像과虛像 파헤쳐
李文熙著 「산바람」單行本

○…중견작가 李文熙씨의 81년도 흙의문학상(문예진흥원주관)수상작 「산바람」이 단행본으로 출간돼나왔다。(행림출판사·2천8백원)

「산바람」은 오늘의 농촌의 實像과 虛像을 파헤친 농촌소설로 現代文學誌에 연재됐었는데 이번에 단행본으로 나오게 된것。

李씨는 충남保寧출신으로 高大經濟學科를졸업한후 現代文學추천으로文壇에데뷔、「四季」「論山」등 장편과 「자주빛소녀」「하얀散因」등 단편을 발표했었다。

이번「산바람」은 李씨가 최근 몇년간의 침묵끝에 내놓은 장편으로 그는 이소설속에서 자신이 「농사꾼」이었음을 전제、앞으로도 계속해서 농촌에 발을 묶어두겠다고 말하고있다。

教保文庫집계 요즘의 讀書傾向

讀者들은 한국文學을 좋아한다

1월 한달동안 총2만3천권 팔려
2位는 宗教書、3位 外國語관계
3千원未滿의 單行本주로 찾아

우리나라 독자들의 최근 독서성향은 문학작품을 많이 읽고있으며 외국어 공부에 열심인것으로 나타났다。또 정가 3천원미만의 책을 주로 찾아 예전의 書架장식용인 全集類시대에서 單行本시대로 그성향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있다。

教保文庫가 지난1월한달간 자체에서 판매한 서적을 컴퓨터로 처리、집계한 분야별 판매통계에 의하면 가장많이 팔린 책은 문학류(2만3천2백27권)로 전체판매량의 14·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가운데 한국문학은 외국문학보다 4~5배나 더팔린것으로 밝혀졌다。이같은 경향은 지난해와 비슷한데 지난해는 한국문학이 외국문학보다 5배나 더팔렸다。

문학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은 종교서적으로 1만9천7백74권(전판매량의12·25%)。종교서적의 갑작스런 부상은 크리스머스와 연말이 1월까지 연장된계절적인 현상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기독교관계 서적이 으로이며 다음이 가톨릭관계서적으로 되어있다。

3위는 외국어(1만7천81권·10·57%)로 주로 방송교재회화가 대종을 이루고있는데 외국어붐은 지난해부터 두드러지기시작、지난연말에이어 금년에는 피크를 이룰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의 순위를보면、4위는 학습교재(1만7천14권·10·54%)、5위 어린이·주부(1만5천7백53권·9·76%)、6위문고(1만5천6백1권·9·66%)、7위 예술(1만5백42권·6·53%)、8위 인문·대학·출판물(7천2백18권·4·46%)、9위 工學(6천2백91권·3·89%)、10위 잡지(6천2백83권·3·89%)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가별로볼때는 2천원~3천원 사이의 단행본이 가장많이팔려 전체판매량의 30%수준을 나타내고있으며 1천원~2천원이 20·4%、1천원미만이 21%나돼 3천원미만이 전판매량의 70%이상을 차지한것으로 밝혀졌다。이밖에 3천원~4천원 사이가 9·9%、4천원~5천원사이가 4·3%、5천원~1만원사이가 7·7%를 차지했으며 정가 1만원 이상의책은 1%남짓으로되어있다。

教保文庫의 경우 全集類(割賦판매)는 취급을 하고 있지않지만 최근들어 全集출판이 불황을 맞고있다는 점에서 예전의 書架장식용시대는 끝을맺은것으로 풀이되고있다。

◇1월중 教保文庫 판매통계

구 분	판매권수	점유비율	판매순위
어린이主婦	15,753권	9·76%	5
辭典	3,579	2·22	14
雜誌	6,283	3·89	10
文學	23,227	14·38	1
學習	17,014	10·54	4
藝術	10,542	6·53	7
宗教	19·774	12·25	2
文庫	15,601	9·66	6
經濟經營	6,035	3·74	11
政治法律	4,238	2·62	12
人文大學出版物	7,218	4·46	8
外國語	17,081	10·57	3
Reprint	1,678	1·03	16
醫農自然工學	4,108	2·54	13
工學	6,291	3·89	9
Books onKorea	1,334	0·82	17
政府刊行物	1,791	1·1	15
計	161,547	100%	

揭示板

무용지도자강습회 25일부터 梨大에서

한국무용연구회는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확대실시되는 무용교과과정의 준비를 위해 제1회 「한국무용지도자를 위한 강습회」를 25일부터 27일까지 梨大레크리에이션홀에서갖는다。☎651-8245。

82년硏修生 모집 국립극장

국립극장은 올해 처음으로 硏修院을 설립、연수생을 20일까지 모집한다。국립극장의 이방침은 각분야 유능한 무대예술인을 찾아내 키우기위한것。

唱劇 연수생 모집부문은 연극 오페라 합창 그리고 연출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의상 小品 분장 음향등 해당분야에 경험과 자질을 갖춘 20~30세 남녀。

연수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이며 연수중이 극장공연물에 출연할수 있으며 연수후 뛰어난 사람은 전속단원으로 채용한다。수강료 없음。전형23、24일 연락처☎1980 3092。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畵

"말도 안되는 소리야!"

"마누라가 뻔뻔스럽게 나온단 말이거든!" 꽝

"사모님이 뭐라고했는데요?" —쿵, 쿵, 쿵.—

"날더러 고약한 성질을 가졌다고 욕하잖아!"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34〉

朴婉緒 作 金光培 畵

숨바꼭질 ㉑

『여보 재 하는 소리 들었지? 나 듣기엔 내가 그렇게 재미 없고 멋 없단 소리 같은데 당신도 날 그렇게 생각해?』

수철이는 맘머리를 영란에게로 돌려 응원을 청했다. 영란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여자 특유의 느긋하고 약간 교만한 태도로 식모애가 차려놓은 상차림을 조금씩 고치기도 하고 간도 봐주다가 말했다.

『저는 당신만을 사랑해요』

그 동문서답이 뭐가 그렇게 좋은지 수철이는 어깨를 흔들면서 웃었다. 젊은이답지않게 불쑥 튀어나온 배를 발판으로 어린 미진이가 앙금앙금가슴으로기어올라 머리카락을 사정없이 움켜잡고 어깨위에 올라섰다. 통통하게 살찐 아기의 두 다리사이에 낀 수철이의 얼굴이 어릿광대처럼 필사적으로 즐거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누군가?

그녀에게 가장 가깝고도 유일한 동기간이 생전처음보는 사람 보다 더 낯설게 느껴졌다. 이런 섬뜩하도록 기묘한 느낌이 처음은 아니었다. 종종 있었지만 가장 생생하게 기억나는건 결혼식장에서의 수철이었다.

신랑입장。사회자가 마이크에다 대고 두번 세번 악을 쓰고나서야 수철이는 뛰어나왔다. 신랑이 저렇게 뛰어도 되는걸까? 수지는 조마조마했다. 반짝이는 구두코가 꼭 무엇에 걸려 넘어질 것만 같았다.

누군가 되게 급한가 보다. 큰소리로 놀렸다. 신부입장. 신랑이 신부를 맞기위해 돌아섰다. 신랑입장에 비해 신부입장은 너무도 오래걸렸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새것으로만 빼입고 높은자리에 빳빳이 경직된채 신부를 기다리는 신랑의 긴장이 갑자기 무너져 웃음거리가되면 어쩌나하는 황당스러운 근심으로 수지는 가슴이 죄었다.

오랜만에 너무도 오랜만에 신부가 단아래까지 왔다. 신부를 거기까지 인도한 신부의 아버지는 은발이 아름답고 신수가 훤한 노신사였다. 딸을청년에게 인계하면서 노신사의 얼굴에 만감이 서렸다. 일순 장내가 숙연해 졌다.

이때 신랑이 갑자기 웃었다. 가벼운 미소였는데도 소리높은 홍소(哄笑)처럼 장내의 조용한 감상을 휘저었다. 잠깐가라앉았던 축제분위기가 일제히 되살아났다.

첫딸 낳겠다는둥 노총각도 아니면서되게좋은가보다는둥한마디씩 수군거리며킬킬댔다.

노신사의 무대는 짧았다.

그는곧 잊혀졌다.

저 사람은 누구인가? 수지는 갑자기 단상의 수철이가 낯설어서 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었다. 그는 누구인가?

이런 의문은 생급스러울뿐더러 고통스러웠다. 실로 잠깐동안이었는데도 그생각만 줄곧 해온것처럼 지겹기도 했다. 하마터면 그자리에서 엉엉 울어버릴 것처럼 그런 느낌을 참아내기 어려웠다.

곁에 있던 외할머니가 그녀의 이런 슬픔을 감지한것 같았다. 등을 토닥거리며 같이 울먹여 주었다.

『가엾은 것. 아무쪼록 새사람이 심더이나 무던해야 할텐데…』

그러나 그때 외할머니가 감지한 건 그녀의 슬픔일뿐 그 고약한 낯가림은 아니었다.

공장에서 사고로 손목이 잘린 사람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싹둑 자기로부터 떨어져나간 손이 손이란걸 생전처음 보는 것처럼 이물(異物)스러워서 그 충격때문에 그만 그자리에서 의식을 잃었다고 했다.

염가로

몽땅세일

SALE

SALE

— 삼 성 사 —

★CLEARANCE SALE★

기간 : 2월18일~2월27일까지
(열흘동안)

T. V., 전축, STEREO, 비데오
각종 전자제품등

ZENITH VIDEO SENTINEL SYSTEM™

삼 성 사 668 BLOOR ST. W.

533—4125(B) 964—3870(R)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週刊한국

블루어 하드웨어
Benjamin Moore PAINTS
전기제품 일절
가정용, 공업용 TOOL.
재료일절
판매수리
변 의 섭
주소:608 BLOOR ST. W.
전화:531-6183

本誌가 연재했던 「캐넌機關의 證言」·美20世紀폭스社서 映畵化

諜報秘錄

元山作戰

「東洋의 제임즈·본드」 延禎 스토리

延禎(58)—. 결코 생소한 이름일 수없다. 그도 그럴것이 그는 이미「東洋의 제임즈·본드」로 널리 알려진 첩보의 베테랑이기 때문이다. 지난주 그 延씨가 서울을 다녀갔다. 물론 지금은 첩보원이 아니다. 근 30여년간의 긴긴 첩보생활을 수년전 청산한바 있었고, 그래서 이번 방한은 순수사업인의 신분에서였다. 그는 얼마전 美 20세기 폭스社와 한 중요한 계약을 체결했다. 本誌에 연재했던 자신의 첩보실화 「캐넌기관의 증언」중 일부를 「元山作戰」이란 제명으로 映畵化한다는 내용이 그것. 따라서 이의 사전 답사가 延씨의 서울방문 목적이었다.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그리고 「글로발 세이빙스 론」회사의 이사로 조용히 제2의 인생을 살고있는 첩보1인자의 近況을 보자.

◇자신의 첩보실화를 담은 「캐넌기관의 증언」중 일부인「元山作戰」을 영화화하기 위해 일시귀국한 延禎씨。

지난해 늦가을이었다. 어느 날 자신의 상사이자 은행장인 더·번씨가 불렀다. 그는 이미 며칠전부터 延씨의 첩보自傳을 읽던중이었다.

『延이사, 내 가까운 친구 중에 실력있는 영화제작자가 있는데 이를 영화화하는게 어떻겠소?』

잠시 머뭇거리는 延씨에게 더·번행장이 또 말을 이었다. 『우리 당장 이책을 그에게 보이도록 합시다. 그래서 가부간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게…。』

행장의 친구란 은행주주이기도한 석유부자로 20세기폭스社소속 PD 베른·노볼씨였다.

延씨의 저서「캐넌기관의 증언」은 즉각 노볼씨에게 전해졌다. 그 며칠뒤 행장이 다시 그를 불렀다.

『延이사, 노볼이 대만족을 표시했소. 정말 기쁜일이요. 그가 당신을 만나길 원하니 어서 가서 상의토록하는게 어떻겠소?』

이때 延씨의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지난날 미국영화에서 한국전쟁을 소재로한 것은 많았다. 그러나 자신의 첩보행적은 그 어떤것보다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했다. 한국을 올바로 외국에 인식시킨다는 측면에서나, 또 당시 아깝게 산화한 무명용사들의 명복을 빈다는 뜻에서도 그랬다.

一名「페스트屍體 탈취事件」…敵地에 致命的인怪疾 만연情報

그는 행장의 의견에 따르기로했다. 이리하여 그의 첩보實話는 美國人에 의한 첫번째 映像계획에 옮겨졌다. 모든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돼 갔다. 우선 작품은 저서 가운데 일부인 元山침투작전이 채택됐다.

「元山作戰」—。이것이 영화의 제목이었다. 「東洋의 제임즈·본드」라며 극찬해 마지않은 제작자 노볼은 延씨에게 이런 확약도 했다.

『앞으로 나는 당신이 주역이된 「仁川상륙작전」「신의주작전」등을 계속해서 시리즈로 제작할 계획이오.』

선전비 3백만달러를 포함한 8백만달러가 투입될「元山作戰」의 시나리오는 케니·로저즈의 전기영화를 각색한 짐·번즈가 맡았다. 그러나 그의 각색과정은 일일이 延씨와의 충분한 토의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제작자와의 계약내용은 대체로 延씨에겐 만족스러운 것이었다. 원작료 10만달러외에 기술고문료 5만달러, 그외에 현지 로케이션을 위해 자신이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제작자측이 부담한다는것등이 그 골자였다.

출연진은 맥아더역에 그레고리·펙, 延禎역에 在美배우이자 한민국협 대표인 吳純澤이, 국내 탤런트 延圭眞을 다른 주연급으로 등장시킨다는 대체적인 계획을 짜놓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측 카운터 파트너가 누구냐』하는데 초점이 모아졌다. 아직은 계약된 국내 영화사가 없으나 「世耕」영화사가 그중 유력한것으로 되어있다. 「世耕」이 거론되는 것은 5년전 이미「캐넌기관의 증언」을「元山工作」이란 제목으로 映畵化시켜 흥행, 재미를 본 경험이 있기때문이다.

그같은 정황으로 미루어 한국에서의 로케이션 경우「世耕」은 일체의 국내 촬영을 돕게된다.

제작자측은 오는 6월께의 시나리오 탈고를 계기로 곧 촬영에 임할것이지만, 당시 작전이 실시됐던 3월의 계절감 때문에 아무래도 10월께가 돼야 한국촬영이 가능하리라는 전망이다. 물론 로케이션의 70%는 한국에서, 나머지 30%를 일본에서 찍도록 돼있다.

이번「元山作戰」의 또 하나 특색은 시나리오 각색과정에서 美·日·유럽에 잘 알리도록 손질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70년11월 펜타곤에서 포즈를 취한 延禎씨。이때 그는 美육군 예비역중령의 신분으로 특수정보관으로 일하고 있었다。

東京 맥아더 綜合特殊作戰本部서는
〃全軍撤退냐 아니냐〃論議

그러나 전쟁의 비극과 첩보작전의 드릴, 그리고 적과 싸울수는 있어도 흑사병과는 싸울수 없다는 맥아더장군의 휴머니즘등은 원작내용 그대로 담겨진다.

익명「페스트시체 탈취사건」으로도 불리는 이 작전은 한국전이 치열의 극을 달리던 1951년3월1일로 거슬러 오른다.

이때 延씨는 東京에 있는 맥아더사령관의 극동사령부정보장교로 근무중이었다. 이즈음 그가 소속한 종합특수작전본부(JSOB)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속속 들어왔다.

『元山에 있는 2개소의 북괴야전병원에서 「치명적인 질환」이 만연하기 시작했다. 군의관들은 공개하지 않지만 확실히 그들 환자와 시체는 페스트와 콜레라의 증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북괴군이나 중공군은 물론 아군까지도 저절로 일망타진될 것은 뻔한 이치였다.

국무성에 대해 한국에서 철저히 싸울것을 주장하던 맥아더로선 큰 낭패가 아닐수 없었다. 어쩌면 휴전이라는 중대교섭을 앞둔채 전군 철수를 감수해야할지도 모를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된것이다.

즉각 회의가 소집됐다. 페스트의 진위여부와 그 대책이 토의 골자였다.

여기엔 延씨외에 종합특수작전본부와 CIA간부들, 그리고 페스트 관계 전문가인 군의관 샘즈준장등도 참석했다. 이때 어느 동석자가 샘즈장군에게 『정말 元山에 페스트가 발생했는가』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다분히 추측 가능한 일이다』고 대답, 장내 분위기는 더욱 침통해졌다.

『철수냐 아니냐?』맥아더로부터 세찬 정보보고를 강요받고있던 이들은 머리를 싸맸다. 결론은 군의관을 적진에 보내 이를 확인한다는것으로 매듭지어졌다. 그리하여 샘즈장군이 延씨를 비롯한 다른 3명의 첩보요원과 함께 떠나게 했다.

일행이 佐世保항을 떠난것이 51년3월11일밤이었다. 그날 바다에는 세찬 비바람이 일었다.

일단 상륙에 성공한 이들은 미리 잠입해 있는 공작원들의 안내로 천막병원의 시체실을 뒤지기 시작했다. 시체썩는 냄새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었다. 여기서 그는 생명을 무릅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구의 시체를 끌어내는데 성공했다. 하나는 노랗게, 또 하나는 까맣게 변색된 양극상태의 시체였다. 이것들은 곧 해안 모처의 방공호속에 잠입해 있던 샘즈장군에게 인도됐다.

통상 페스트에 관한 진단은 3시간이 정석이었다. 그러나 이 경우 만 1시간으로 끝났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도 감격적인 것이었다. 방공호속에서 나온 그는 이렇게 소근댔다.

『끝났어. 페스트가 아닐세. 콜레라도 아니야. 발진티푸스와 장티푸스, 천연두가 뒤섞인거야. 한명은 천연두고 한명은 천연두와 장티푸스가 함께 걸린 환자였어.』

그를 둘러싼 일행 모두는 순간 주변의 위험을 무릅쓴채 가느다란 탄성을 질렀다.

『이젠 전군후퇴 따윈 필요가 없게 됐군요—.』

◇6·25당시 첩보일선에서 용맹을 떨쳤을때의 延禎씨(右)。그옆이 당시 중공담당공작반장이자 중학동창인 [illegible]씨。

敵地에 침투해 屍體 끌어내
檢屍결과 〃페스트가 아닌 천연두·장티푸스〃
시리즈로「仁川상륙」「新義州작전」도계획

서울 桂洞출신으로 桂洞국민학교를 나온 延씨는 어렸을때 배우가 되는게 꿈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東京商科大출신의 延鶴年씨(作故)로 이땅에 테니스를 정식으로 도입해온 최초의 한국인이었고 新派연극을 창도한 원로 연극인이기도 했다. 그런 부친의 영향 때문이었던지 그는 장차 훌륭한 예술가가 될것을 굳게 다짐하곤 했었다.

어려서의 延씨는 또 겁이 없기로 유명했다. 여기에 집안의 長子로 태어났던 만큼 대담성에 관한한 할아버지의 관심은 매우 컸다. 할아버지는 가끔 원남동에 사는 9~10세의 어린 손자를 한밤중 자신의 桂洞집으로 불러들였다. 구름다리를 통해 창경원으로 넘어가는 이 구간은 여기저기서 울려오는 맹수들의 울음소리로해서 여간 무서운곳이 아니었다. 이곳을 그는 할아버지의 호출이 있을때마다 묵묵히 오가곤했다. 뒤에 안일이지만 그의 뒤에는 반드시 어른이 뒤따라 보호해 주었다.

그가 트럼펫에 흥미를 갖기시작한것은 경기중학에 입학하면서 부터였다. 얼마나 악기연주에 흥미를 가졌던지 상급학년이 되면서는 브라스밴드의 단장이 됐을 정도였다.

이미 부친을 여의었던 그는 어머니에게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에 갈수있도록 간청을 했다.

그것이 日本우에노음악학교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완강히 반대했다. 『넌 장남이니까 의사가 되라』는 것이었다.

결국 절충끝에 진곳이 日本中央大법과였다. 훗날 변호사가 되고자 했기때문이다.

졸업을 불과 1년 남겼을 즈음 그 역시 학도병으로 끌려가고 말았다. 멀리 관동군수비대가 있는 만주땅이었다. 그 무렵 일군은 이미 패전의 기색이 역력했다. 유난히도 모험심이 강한 그에게 어떤 충동이 왔다. 탈출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소련군이 무조건항복시키러 온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고 있었다.

그는 뜻있는 한국인 하사관 28명을 모았다. 그리고는 이들을 인솔하고 무기를 가진채 부대를 이탈, 귀국길에 올랐다.

해방과 거의 동시에 서울로 돌아온 延씨는 당시 막 문을 연 군사영어학교에 입학했다. 이미 모든 꿈이 깨어진 상황에서 자신이 택할 길은 국군장교가되는 것외에 아무것도 없다고·그는 믿었다.

아직 재학도중인 46년3월 그는 해군소위 임관과 함께 鎭海로 급파됐다. 임무는 해군창설에 따른 士官들의 훈련이었다.

이것이 처음 陸軍에 발을 들여 놓았던 그가 海軍으로 轉身케된 동기였다.

46년9월 大尉때 그는 仁川기지소속 金浦파견대장 발령을 받았다. 여기서의 임무는 물론 황해도 연평과 김포, 마포까지의 해안경비였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것이 하나 있었다. 對북괴및 중국대륙의 첩보활동이 그것이었다. 이일은 주로 미군의 CIA와 CID등과 협력을 했다. 그런 그에게 또하나 뜻밖의 큰 업무가 생겼다.

공휴일이면 인근 낚시터를 찾곤하는 李承晩대통령의 시중을 들지않을수 없었다. 이 인연은 훗날 그로하여금 정보관이라는 숙명을 안게한 묘한 계기가 되어졌다.

東草에서 근무중이던 1949년 9월, 돌연 東京에 있는 맥아더사령부로 발령이 났다. 少領때였다. 그가 어리둥절해한 것은 당연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당시 맥아더사령관이 李박사에게 영어와 일어를 잘하는 장교 한명을 요청했었는데, 이때 李박사가 보낸 사람이 바로 延禎씨였던 것이다.

말하자면 그는 李대통령과 맥아더사령관 사이의 메신저로 일본에 보내진 셈이었다.

소속된 곳은 연합군총사령부예하「검은 謀略機關」이라 별명붙은 종합 특수작전본부의 「제트 유니트」(일명 캐넌기관—반첩보공작행동부대).

여기서 그는 한국 동란이 일어날 때까지 주로 조총련관계 공작임무를 맡아했다.

1950년 8월26일, 정확히 仁川상륙작전 3주일 전이었다. 延씨는「잭슨부대」로

仁川上陸 3주전엔 잭슨部隊가 八尾島에상륙 燈幕불 신호

일컬어진 다른 일행 16명과 함께 조용히 사세보항을 출발했다. 목적지는 仁川앞 永興島로 아군의 상륙작전시 八尾島의 등대를 켜는 것이 그 과제였다.

다행히 목표지점에 도착된 이들에게 사령부로부터의 무선 지시가 왔다.

『八尾島의 등대에 불을 켜라. 불을 켜는 시각은 14일 상오0시!』

이리하여 불가능하리라던 仁川상륙작전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극적 승리로 끝났다.

中共軍 人海戰術情報도 제일먼저 캐치

상륙개시 직전까지는 맥아더의 구상에 찬물을 끼얹는 것같은 전보를 연속 보냈던 워싱턴은 잔치기분에 들뜨기도 했다.

아뭏든 이때의 전공으로 延씨는 첫번째의 미국은성훈장을 받았다.

「元山作戰」은 바로 이뒤에 있은 상황이었거니와 그는 그후에도 계속 눈부신 첩보전을 벌였다. 51년 한햇동안 白翎島를 비롯한 大青島와 小青島, 그리고 신의주앞의 신도, 대화도를 점령했고 이어서 滿洲 안동·봉천·상해관동에 첩보원을 침투시켜 중공군의 동태 파악에 주력했다.

이 무렵 延씨는 林彪지휘하의 8路軍 10만이 安東으로 이동하는 정보를 탐지, 중공군의 인해전술을 상부에 보고하기도했다.

이 보고를 받은 맥아더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첩보부대(延禎부대)』라고 극찬, 『만약 중공군이 한반도에 침입하면 원자폭탄을 쓰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고, 이로인해 당시 트루먼대통령에 의해 사임된 사실은 너무도 유명한 일화다.

어쨌거나 중공군의 동태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가질수 있었던것은 바로 이 섬의수작전의 성공에 의한것이었다.

延씨는 이 공로로 두번째 은성훈장을 받았다.

휴전이되고, 아직 연합군총사령부에서 해군중령으로 있을 무렵인 57년 그는 펜타곤(美국방성)으로 전속됐다. 전속과 함께 신분도 바뀌었다. 한국해군중령 대신 미국시민이되면서 美육군중령으로 轉役이 된것이다. 물론 이 계급은 정식이 아닌 假계급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美육군소속 특수정보관으로 일을 했다. 이런 생활에서 손을 뗀 것은 미국정착 10년만인 지난 77년도였다.

지금 延씨는 부인과 더불어 단단한 미국생활을 즐기고있다. 그에게는 미국정부가 주는 육군중령 계급의 연금이 나오고있고, 자신이 몸담고있는 「글로발 세이빙스 론」의 월급이 있기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엔 늘 텅 빈듯한 공허가 메워지질 않고있다. 지난30여년동안 함께 일했던 많은사람들, 예컨대 월로비少將을 비롯한 샘즈將軍, 캐넌大領등 모두 세상을 떠난데다 특히 6·25당시 生死苦樂을 같이한 수많은 無名戰士들의 죽음이 되살아나곤 하기때문이다.

이같은 자신의 괴로움을 달래기위해 나간것이 교회였다.

洪吉童으로도 불렸던 延씨에게 그동안 갖가지의 소문이 부단하게 꼬리를 이었다. 심지어 『그는 죽었다』는 루머에서 『延禎은 아편중독자가 됐다』는 등등…。 그러나 이모든 풍문은 그의 정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데서 비롯된 誤解였다. 이제 延씨는 그점에선 마음 편하다고 했다.

『현직에서 물러났으니 다신 그런 오해를 안받게 됐고, 따라서 앞으로는 나를 알고싶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내얼굴을 보일수있어 마음 편합니다—。』

공항을 떠나기 직전 자신의 숙소에서 기자와 만난 그의 얼굴에선 옛 첩보1인자의 그림자는 전혀 찾을길 없었다.

<[illegible]기자>

"두려움도, 편견도 없이"(Without Fear or Favor)

—토론토 한국일보의 자세—

秘錄 現代史発掘

5·16革命에서 維新前夜까지 <4>

軍政에서 民政으로 ④

非常경계속 散策데모 尹潽善씨 突然街頭로

許政씨도 나서 政情 점차 緊張

1963년3월19일하오 서울安國洞 海葦 尹潽善前 대통령 韓屋의 넓은 정원과 居室에는 야당가에서 내노라하는 인사들이 운집、朴의장과의 회담을 마치고 돌아올 자기들의 보스를 기다리고있었다。

尹씨측근이었던 L씨(6選의원·前新民黨최고위원)의 증언。『海葦는 자리에 앉자마자 「朴正熙 그 사람 안되겠어。극한투쟁을 벌일수밖에 없겠어」라고 무우 자르듯 얘기하고는 한동안 침울한 표정을 지었어요』

對話안한것보다못하다

같은 시간 최고회의안에서도 최고위원들이 끼리끼리 모여 이날회담의 성과를놓고 평가가 분분했지만 대체적 결론은『안한것보다 못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최고위원이었던 G씨의 回顧。『기대는 하지 않았으나 2시간의 회담이 유아무야로 끝나자 朴의장등 대부분의 최고위원들은 몹시 않은 기분이었어요。특히 회담에참석했던 Y위원은「도대체 그들하고 자리를 같이한다는것이…。마치 우리는 민주주의를 전혀모르고 자기들만 아는것처럼 시종 우리들에게 강의를 하려들고…」라며 분개하기도 했어요』

이당시 유행했던 말이 「때묻은사람」。朴의장이 19일의 회담에서 『때묻은 사람은 물러나야한다』고한 주장을 꼬집은 이 말은 5·16혁명 당시 舊정치인들이 애용했던「金舊惡」「李舊惡」과 함께 당시의 정치世態를 보여주는 말들이었다。

불꽃속에도 浪漫(?)이

군정연장선언을 둘러싼 두세력간의 대결은 속으로는 불꽃이 튀었으나 행동자체는 浪漫的(?)인면도 다분히 있었다。

한예가 尹潽善씨와 友洋許政씨(前過政首班)의 유명한 散策데모。유력한 대통령후보로서 당시 在野의 우뚝한 山脈이었던 兩人은군정연장에 반대한다는 뜻을 내외에 밝히기위해 비슷한시간에 소위산책데모를 시도한것이다。

20일 하오6시께 먼저 尹씨가 6~7명의 民政黨(가칭) 측근들을 거느리고 경찰이 비상경계를 펴고있는 서울시청앞에 돌연택시를타고 나타났다。

택시에서 내리는순간 보도진과경찰에 둘러싸인 尹씨는 잠깐 웃음을 머금은후『그냥 산책하러왔다』고말하고 美대사관앞(옛 메호텔건너편)을 거쳐 乙支路입구까지 無言의 산책을 계속했다。

尹씨의 뒤를 많은 시민들이 뒤따르고 누군가의 입에서『만세』소리가 터져나오자 경찰은 尹씨를 경찰지프에 태워 安國洞 자택으로 연행했다。尹씨가 강제로 끌려간후 許씨가 3~4명의 수행원들과 함께 武橋洞쪽에서 시청앞광장으로 걸어나왔다。許씨도 곧 경찰지프에 태워졌는데 許씨는『尹씨가 이곳으로 산책하러 나온다기에 나도 같이하려고 나왔다』고 말했다。尹·許 두사람의 산책데모는 사전협의에 의해 이뤄졌다。그때 許씨를 수행했던 K씨(前의원)의 얘기。

『新橋洞 許씨댁에 있는데 尹씨의 비서가 달려와「같은 시간에 시청앞에서 만나자」라는 전갈을 보내왔어요。그럴것없이「같이 행동하자」는 생각을 갖고 安國洞으로 달려가니 이미 출발했다는거에요。그래서 부랴부랴 우리도 달려갔지만 한발 늦었어요。말하자면 先手를 빼앗긴 셈이지요』

한편 군사정부측은 兩人이 美대사관근처에서 산책데모를한것은 事大主義的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군사정부가 3·16성명을 발표하자 在野는 갖가지방법으로 軍政연장반대운동을 벌였다。특히 尹潽善씨(사진)와 許政씨는 3월20일낮 서울시청부근에서 軍政연장반대산책데모를 벌여 내외의 시선을 모았다。

가짜 約婚式으로 民主救國선언

軍政측선 3軍非常決議로 맞서

별관行列 市街누벼「지프데모」풍자…전국선 檢擧선풍

이후 서울시내 요소에는 경찰의 비상경계가펼쳐지고 심심치않게 군정연장을 반대하는 비라가 뿌려지는 가운데 야당은 반대행동 제2彈을 실천에 옮기며 군사정부는 그들대로 강력한 결의를 표시하는 행동을 보이게된다。

22일낮12시 서울瑞麟洞 白鳥그릴에는 尹潽善、卞榮泰、金俊淵、金度演、朴順天、金炳魯、李範奭씨등 在野元老를포함한 4백여명의 舊정치인들이 모였다。

「金仁五군、朴淑子양 약혼식장」이라는 거짓푯말을 붙여놓고 시작된 이날 모임에서 在野인사들은「民主救國戰線」을 결성하고 군정연장을 반대하는「민주구국선언」을 채택한뒤 길거리로 뛰쳐나왔다。

그때 海葦측근이었던 金義澤씨(前民主黨총무·現民權黨총재)의 얘기를 들어보자。

『政淨法에 묶여있어 행동이 불편했지만「극한투쟁방법을 생각하라」는 尹씨의 지시를 받고 같은편이었던 柳珍山、鄭海永、李忠煥씨등과 모의를 했지요』이들은 철저한 점조직을 형성、組長만이 장소와 시간을 알뿐 10~15명의 組員에게는 거사당일 인근다방이나 과자점에 모이도록했다。가짜 약혼식장을 만든것도 구국선언문을 초안한 것도이들이었다。

在野의 행동에 군사정부도 수수방관하지는 않았다。21일저녁 최고회의에는 朴의장、李周一부의장을 비롯한 최고위원전원과 金顯哲내각수반、金在春중앙정보부장등이 모였다。5시간동안 회의가 계속되는 동안『중대발표가 있을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고 각신문사는 호외를 발행할 준비까지 갖춰놓았다。회의가끝나고도 참석자들은 회의결과에대해 한마디 언급도 하지않았고 공식발표조차 없었다。그러나그 결과는 다음날인 22일、그러니까 在野가 白鳥그릴에서 행동을 갖기1시간전 국방부에서 창군이래 최대규모의 3군비상지휘관회의를 소집、『3·16軍政연장성명』을 절대지지하며 軍의 단결을 해치는 언동은 절대 용납하지않는다』는 내용의결의문을 채택했다。

군사정부가 이러한 행동을 보이게된것은「3·16성명철회」를 요구하는 美國務와 在野에 강경의사를 표시한것이기도 하지만 5·16혁명을 비난하는 許政씨의 말이 기폭제가 되었다。許씨는 21일 5·16혁명과 군정연장선언을 가리켜『집권욕에 눈이 어두운 軍일부가 그렇게했지 軍전체가 한것은 아니다』고말했으며 이것이 그대로 신문에 보도되었다。

지프97臺 靑瓦臺로徐行

당시 최고회의 法司위원장이었던 K씨(9代의원)의 회고。『사무실에 석간신문이 들어왔는데 許씨의 발언이 보도되어 있잖아요。깜짝놀랐어요。그래서 동료위원들에게「이 발언은 마치 軍이 분열되고 있으며 나아가 안보태세에 금이 가고 있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발언이다。軍의 입장에서 그렇지 않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지휘관회의를열자고 주장했지요』

K씨는 즉각 청와대로 올라가 대통령권한代行을 겸하고있는 朴의장에게 같은 뜻을 보고했고 이에따라 같은날 최고위원、내각수반、中情부장 연석회의를 열어 비상지휘관회의 개최를 결정했다。이에따라 군사정부는 할수있는 통신수단을 동원、각급지휘관을 서울로 불러모았으며 참석치 못한 대대장급 이상은 모두「3·16성명」을 지지하는 각서를 쓰도록 했다。이때의 광경을 보자。국방부에서 1백60여명의 장관들이 착석한 장관을 선두로 청와대로 올라가 전원이 서명한 결의문을 전달했다。

이때 장성들은 모두 별판을 단 97대의 세단과 지프에 분승、2백여m에 걸쳐 천천히 청와대로 향했는데 당시 이를 두고「지프데모」라고 부르기도 했다。

K씨의 얘기를 더 들어보자。『그때까지 朴의장이 완전히 군을 장악했다고 볼 수는 없었어요。그런데 許씨의 발언때문에 全軍은 朴의장에게 충성을 맹세했으니 어떻게 보면 許씨가 朴의장을 도와줬다고 할수 있읍니다』

사태가 점차 험악해지자 李應俊、金應祚、金正晧씨등 예비역장성들이 居中조정에 나서고 尹潽善、許政씨등도 領袖회담을 제의한때 정부는 金顯哲내각수반 주재하에「시국수습회의」라는것을 3월27일 열었다。건국이래 처음으로 정부와 정당인사들간의 集團공개토론이 벌어진것이다。民政·新政등 주요정당과 巨物정치인이 불참한 가운데 각계대표 69명이 참석한 이날 수습회의는「愛國」「愛族」「反共」을 들고 나온인사들이 발언권을 독차지、「절름바이 수습회의」가 되고말았다。

이때부터 金수반、金在春중앙정보부장、李厚洛공보실장등이 尹潽善、許政、李範奭씨등 재야거물들을 차례로 찾아다니기 시작하더니 朴의장의「3·16성명」留保시한을 하루앞둔 30일하오9시 朴의장과 尹潽善、許政씨는 청와대에서 3者회담을 가졌다。

3者회담도 別無成果

『무슨轉機가 마련될것』이라는 파다한 소문끝에 열린 3者회담은 당초 卞榮泰、李範奭씨도 참석하는 5者회담으로 계획되었으나 卞、李씨는 회담몇시간전 제외됐는데 이에대해 당시의관계자들은 모두『모른다』고 대답하여 의혹을 불러일으키기도했다。9월1일까지 3일간 계속된 3者회담은 서로가 구체적 타협안을 내놓지않아 결렬위기에 다가섰다가「朝野실무자회의」를 구성키로 극적합의했다。

◇朴正熙의장은 63년 2월27일「정국수습을 위한 선서식」에서『본인은 民政에 참여않겠다』고 엄숙히 선언했다。그 선언은 軍政을 공격하던 在野지도자들의 의혹을 씻어주고 찬사까지 받았으나 불과 보름후엔 軍政연장소동을 한바탕 치르며 民政街道는 어지럽게 흔들렸다。

會談마친 海葦"이제는 안되겠어 極限투쟁 할수밖에…"

이당시 거중조정役을맡았던 예비역장성출신중의 한사람인 金應祚씨(5代의원·前民權黨총재)의기억。

『내가 滿洲군관학교 4기생이고 朴의장은 11기이었기때문에 군에있을때부터 잘아는사이였어요。또 민주당시절 무소속으로 5代의원에 당선、민주당舊派가 만든 新民黨에입당하여 尹씨등과도 밀접한관계에 있었기때문에 주선하기가 쉬웠어요』

3者회담의 위임에따라 최고회의측에서 姜起千법사、朴賢植외무국방위원장、李錫濟내각사무처장、文鴻柱법제처장、在野에서 蘇宣奎、朴漢相、曺在千、朴世徑씨등 8명으로 구성된 실무자회의는 3차례나 空轉을 거듭하다 재야측이 4차회의에서「改憲을위한 국민투표안을 철회하면 軍政을 12월26일까지 연장하는데 동의한다」는 절충안을 제시함으로써 破局을 면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정부측 대표였던 K씨(9代의원)의 증언。『朝野실무자회의에서 구체적합의는 없었지만 서로의 실정을 솔직이 주고받아 정국을 수습하는데 중요한 완충역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強硬派최고위원 說得

재야측 대표였던 P씨(前新民黨사무총장)의 얘기도 K씨와 비슷하다。『재야대표4명중 曺씨와 朴씨는 許政씨의 대표였고 나는 蘇씨와 함께 尹潽善씨측 대표였으나 추천은 街人 金炳魯씨가 해줬어요。

막상 첫회의에 참석하니 정부측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들 주장만 늘어놓는데 난감하더군요』재야대표 4명은 매일 巡和洞에 있는 曺씨집에 모여 정부주장에 대응하는 재야측의 代案을 마련했다。P씨의 얘기를 계속 들어보자。『실무대표끼리 머리를맞대고「12월26일까지 조정연장안」을 포함한 6개代案을 작성、尹씨에게 보이니「그대로 재출하라」고 그러더군요』。

재야측의 절충안이 제시되자 朴의장은 최고회의안에서「명예로운 협상」을 주장한 柳陽洙、金熙德、朴泰俊、柳炳賢씨등 중도파 최고위원들과「9월말까지 국민투표유보·정치활동 재개허용」의「4·8성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군·정부나 재야의 주장을 서로 일보씩 후퇴시킨「4·8성명」은 그동안 民政이양과 관련된「8·12」「2·18」「2·27宣誓」와「3·16」성명등을 모두 白紙化시키는 정치적 의미가 있는것이었기 때문에 朴의장은 4월3일부터 강경파 최고위원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朴의장은「4·8성명」과 함께 자신의 民政참여결심을 굳혔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막상「4·8성명」이 발표되자 재야측은 異口同聲으로 반대의사를밝히고 시국강연까지 갖지만 28일간에 걸친 朝野간의 대립은 점차소강화되기 시작、정가는 民政이양을 향한 선거채비를 시작하게된다。

【特別取材班】

新風土記

新都로 변한 古都 <慶北 慶州>

徐東爀 <作家>

경북지방 전역에 알알이 스며 있는 우리의 정신、우리의 얼、우리의 문화와 풍속、우리의 전통을 찾아보고 싶은 것은 나의 오랜 바람이었다。

그 뜻이 이번에 이루어지니 발걸음은 몹시 가볍고 가슴은 벅차다。그러나 혹시 왜곡되게 보거나、편견이 끼어들거나、소중한 것을 빠뜨리게 될까봐 몹시 조심스럽고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았다。

역사의 흐름을 따라 예부터 거슬러 올라간다면、慶州에서 大邱로 安東으로 더듬어서 그 지방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문화권을 답사하는 것이 좋을듯 했다。지금의 서구문명의 돌풍속에서 잊혀져가고 마멸돼가는 우리의 자부심을 이 기회에 더욱 뚜렷이 드러내고 싶고、세상의 공명에는 초연한 채 묻혀서 거룩한 뜻을 펴 나가는 의로운 이들도 열심히 찾아보려한다。

작은 나무 한그루、굴러다니는 돌하나에도 우리의 넋이 깃들어있고 뜻이 스며있다면 나는 경건히 그 앞에서 발을 멈출 것이다。

고속버스를 타고 慶州의 인터체인지를 돌때는 거의 석양무렵이었다。12년만에 찾는 慶州。늘 곱기로 유명한 선도산 단석산의 준령위로 노르스름한 구름이 떠 있었다。좀 있다가 경주시내의 봉황대 위에 올라서서 바라보면 휘황찬란한 하늘의 화원이 펼쳐지고 영롱한 구름의 군무가 무르익을 것이다。서라벌의 정신적 모태라 할수있고、신라 예술의 혼적이 골마다 봉우리마다 파차게 스며있는 남산의 다소곳한 모습은 불그스름한 석양빛 속에 있었다。

버스가 인터체인지를 벗어나자 길은 들복판을 달리고 있었다。농사는 대풍인듯 넘어진 벼포기가 보이지 않고、『올해 농사는 한꺼번에 두 해농사지은거나 같십더』서로 이야기하며 오던 옆사람이 창밖을 내다보며 이렇게 말했다。내눈은 남산기슭에 서 있는 회색빛의 커다란 건물에 멎었다。저 영산(靈山)에 설마하니 공장을 지었을리는 없겠고、10여년전에는 없던 건물인데、학교라고 하기에는 너무 을씨년스러웠다。이상하다 싶어 옆사람한테 물었더니、

『저거요? 교도소 앙잉기요』

한다。『교도소라? 서라벌의 정신은 평화다。춤추고 노래하고 웃기를 즐기는 신라사람들이었다。그것은 그시절의 불상을 보면 알 수 있다。한결같이 천진하고 친밀한 웃음을 띠고있는 것이 신라불상의 얼굴이다。근엄하거나 자비롭다 하는 얼굴이기 보다는『이사람 보시게。막걸리나 한잔하세』하면서 웃는 얼굴이다。그앞에서 위압감을 느끼지는 않는다。가서 부처님과 어깨동무를 하고싶은 그런 불상들이다。경주사람들은 예부터 지금까지 이런 부처님의 웃음과 더불어 살아왔고 그것을 본받아배워왔다。그래서 순하디 순하고 정이 많은 이곳 사람들인데 이 땅에 교도소가 서다니?

사라진 옛마을의 情趣·古風…솔바람마저도

관광지가 되면서 인심도 변하고 범죄자도 늘어난 탓인가? 세월이 갈수록、서양문명이 밀려올수록 사람들 점점 사악해져가는 것인가? 서라벌、그 말뜻은 해뜨는 동쪽 밝음의 고장이란 뜻이다。따뜻한 마음、웃는 사람들、햇빛 받아 눈부시는 흰옷의 고장、이런 곳에 어쩌다가 교도소까지 서게 되었을까?

『저것 왜 저기 세웠십니꺼?』

내가 이렇게 옆사람한테 물으니

『모르겠십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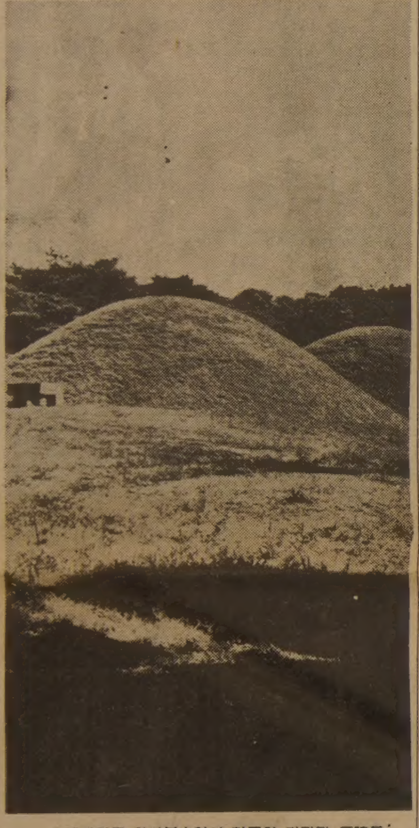
하고 고개를 젓는다。

우리 민족、밝음의 민족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성지(聖地) 남산기슭에 음침한 교도소가 서 있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어느곳이 좋을까? 따져 생각해보니、사실상 서라벌 옛터전에는 어디에도 감옥 형무소 교도소등의 이름을 가진 집을 지을 만한 곳이 없다。이 섬지 기슭에서 복역하면서 신라의 정신을 본받고 배워서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하는 뜻으로 그렇게 한 모양일까。

차가 시내로 진입하는 동안 나는 사뭇 낯선 동네에 왔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었다。넓은 도로가 들판에 이리저리 나 있는 것도 예전에 없던 풍경이고 더욱 놀라운 것은 마을이 째 없어져버린 점이었다。왕릉등 유적지를 개발、복원하느라 그렇게 됐고 예산도 막대하게 들어갔노라고 옆사람이 말했다。

잘 한 일인지 어떤지는 말할 수 없지만、친구의 집들이 있던 그 마을、초가집 기와집들이 고풍한 정취를 풍기며 어울려 있고 여기저기 노송들이 서서 솔바람소리를 들려주던 그 마을이 사라져버려 나로서는 서운하지 않을수 없었다。

慶州의 특색이라면 낮은 집과 그위로 불룩불룩 솟은 봉분대일 것이다。고분과 집들이 어울려 있는 정경을 지금은 찾을수 없다。3층 4층으로 높아진 빌딩에 가려지고 말았다。고도(古都)는 해마다 점점 신도(新都)로 변해간다。순정의 땅 서라벌도 이제는 현대문명 쓰레기문명에 감염돼가고 있는 것인가?



◇옛정취를 찾아볼수없이 말끔히 단장된 王陵들。왕릉과 어울려 옛날을 이야기해주던 고풍어린 초가집、기와집과 바람소리를 들려주던 노송들은 이젠 간곳이없다。

다운 먼저당하고 6·7·8회 세번뺏어

打擊戰끝에 이시이눕혀

金喆鎬 후련한 KO勝

초반부터 猛攻 8回훅 마무리

WBC 슈퍼플라이級 4차방어전

【大邱=金在契기자】앞날을 밝게해준 통쾌한 KO승이었다。프로복싱 WBC 슈퍼플라이급 챔피언 金喆鎬(21)는 日本의 도전자 이시이·고오끼(28·石井幸喜·WBC플라이급9위)를 8회 47초만에 KO로쓰러뜨리고 타이틀·롱런의 길목에 들어섰다。

10일밤 慶北체육관서 벌어진 타이틀4차방어전에서 홈링의 챔피언 金은 투지의 이시이와 근래에 보기드문 격렬한 타격전을 벌인끝에 8회에서 짧은 좌우훅으로 이시이의 안면을 두들겨 KO승을 끌어내고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金은 초반부터 예리한 왼손펀치로 게임을 주도해 나가다가 3회에서 짧은 라이트·카운터·펀치를 턱에맞고 녹다운되어 4천여관중들을 한때 불안에 몰아넣었으나 6회에서 레프트훅으로 이시이를 녹다운시켜 빚을 갚은뒤 7회막판에 라이트훅 강타로 또다시 이시이를 다운시켜 완전히 재임·의 주도권을 잡았다。金은 이날의 승리로 78년 프로데뷔이래 19승(9KO)1무1패를 기록했다。계체량서 金은 51·95kg、이시이는 52·05kg을 기록했다。

이로써 지난해 1월 베네수엘라의 오로노에게 9회역전 KO승을 거두고 챔피언에 오른 金은 1차 방어전때 와따나베에만 15회 판정승을 거두었을뿐 윌리·젠슨、자칼·마루야마、이시이등 3명의 도전자를 잇달아 KO로 물리침으로써 펀치위력이 날로 향상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金은 오는 3월말께、전챔피언인 오로노와의 대전에서 타이틀5차방어전을 벌일 계획이라고 全浩然 매니저가 밝혔으며、오로노를 물리칠경우 2개월이내에 WBC동급1위인 강호 라울·발데스(멕시코)와 6차 방어전을 벌일 예정이다。金이 장수챔피언이 되려면 5、6차방어전의 어려운 고비를 넘겨야 한다。

이시이는 金의강한 펀치를 안면에 맞아 여러차례 그로기에 빠졌으면서도 놀라운 투지로 버티어 日本선수 특유의 정신력을 보여주었다。

끝내 8회에서 소나기펀치에 무릎을꿇은 이시이는『아깝게 패했다。다시한번 金에게 도전하고싶다』며 기자들에게 침통한모습을보였다。

이시이는『안면 수비를 철저히하지못한게 결정적인 패인이었다。또한 접근전에서 金의펀치를 많이맞아 대미지가 컸던것같다。나는 한체급 아래의 도전자였지만 체력서는 조금도 金에게 뒤지지않았다』고 말했다。

3月末 오로노와 5차방어전

金泰式-이바라(WBA플라이급 타이틀전)전이래 가장 화끈한 타격전을 보여준 게임이었으나 챔피언 金에게도 아쉬운점이 없지않았다。2회에서 연타공격으로 이시이를 KO시킬 기회를 잡았으나 결정타가 불발되어 기회를 놓쳤고 6、7회서도 각각 1개씩의 녹다운을기록했을뿐 끝내 마무리 펀치를 작렬시키지 못했다。또한 상체를 흔들지 않고 일직선으로 밀어붙이다가 기관총같은 이시이의 스트레이트·펀치를 자주 허용、수비허점을 드러냈을뿐 아니라 3차례나 카운터·펀치를 맞아 휘청거리기도 했다。링·사이드의 권투전문가들은 金의 맷집과 체력은 대단하나 세계챔피언으로서 공수기량이 단조롭다고 지적、앞으로맞지않는 권투를 할수있도록 기술을 다듬어야 하겠다고 진단했다。

金이 3회에서 불의의 일격으로 먼저 쓰러지기는 했어도 경기는 예상했던대로 초반부터 金의 일방 페이스였다。이시이는 金의 거친 초반 강공에 말려 1、2회에서 필사적으로 버티었고 3회에서 선제녹다운을 얻어 한때 반짝했으나 정면타격전에서 金의 파워에 눌려 사실상 6회에서 승패가 판가름나고 말았다。

金이 최근 洪秀煥트레이너와 결별한후 새로 세컨드로 맞아들인「명트레이너」金俊鎬씨는『이시이의 스트레이트가 워낙 날카롭고 몸이 유연하여 접근 공격이 여의치 못했다。복부공격을 많이 하지 못한것도 이때문이었다。6회이후 KO는 시간문제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7회까지 3부심의 채점결과를 보면 70-62、68-63、68-61로 3명모두 金의 우세였고 日本기자들도 金이 많은 점수차로 이기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대전에서 金은 4천여만원의 개런티(매니저몫제외)를받은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시이는 1만달러를받았다。

金喆鎬"레프트先制 잘맞았다" 이시이"다시 도전하고 싶다"

◆金喆鎬의 말=레프트 선제 공격이 주효해 이긴것같다。당초 10회이전에 K.O로 끝내겠다는 의욕으로 연습했는데 운좋게 예상이 들어맞아 기쁘다。이시이는 비록나에게 패했지만 투지가 뛰어난 훌륭한 선수였고 특히 오른쪽 스트레이트가 날카롭고 순발력이 뛰어났다。앞으로 있을 5、6차 방어전에 대비 陳忠秀트레이너와 함께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

全대통령이 祝電

全斗煥 대통령은 10일 하오 WBC슈퍼플라이급 선수권을 방어한 金喆鎬선수에게 축전을보내 치하격려했다。

金喆鎬 2位랭크 美링誌랭킹 발표

【뉴욕 10日 UPI=聯合】WBC(세계권투평의회) 슈퍼플라이급챔피언 金喆鎬가 10일 美권투전문잡지 링誌가 발표한 각 체급별랭킹에서 밴텀급2위로 기록됐다。

이밖에 前WBA(세계권투협회) 주니어플라이급챔피언 金煥珍은 플라이급 4위로 OPBF(동양태평양권투연맹) 주니어페더급챔피언 鄭順鉉은 동급9위로 각각 랭킹됐다。

中共 첫選手團파견 오슬로 스키大會에

【홍콩9日AP=聯合】中共은 사상처음으로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오슬로에서 열리는 금년도 노르딕월드 스키선수권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할것이라고 中共관영 新華社통신이 9일 보도했다。

이통신은 中共스키협회가 이번 스키대회에 남자3명、여자3명등 모두 6명의 선수를 파견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선수訓鍊시설 제공 馬聯,한국제의환영

【쿠알라룸푸르10日로이터=聯合】말레이지아 아마경기연맹(MAA)은 말레이지아선수들의 훈련을 위해 각종시설을 제공하겠다는 韓國정부의 어떠한 제의도 환영할것이라고 나사타르·심 말레이지아 코치위원회위원장이 10일 말했다。

심위원장은 오는11월 뉴델리 아시안게임에 대비、선수들을 훈련시킬만한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못한 말레이지아로서는 韓國측의 그같은 제의가 커다란 도움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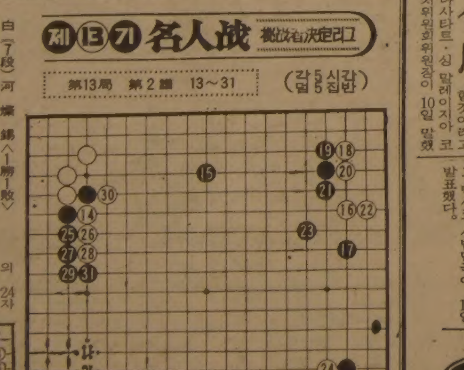
솔레이만檢察송치 3일이내拘束결정

【멕시코시티10日AP=聯合】멕시코경찰은 2억달러상당의 공금횡령을 해외로 밀반출하려던 혐의로 지난9일 구치했던 호제·솔레이만 WBC(세계권투평의회)회장의 사건을 검찰총장실로 송치했다고 멕시코 사법당국이 10일 발표했다。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3局 第2譜 13~31 (각5시간 덤5집반)

白(7段)河燦錫〈1勝1敗〉
黑(6段)姜哲民(0勝4敗)



白14와 24의곳을 버려둔채 黑13、15에 선편한 것은 姜6단의 유동성있는 작전이거니와 여기서 白16에 걸친점이 시급한 要所였다。

黑17의 급한협공을 예상하고 白18로、3三에 침입하여 黑23때 다시 우하귀를 白24로 갈은데까지 白은 일관된 실리작전을 우선 성공한 셈이다。

黑은 요소요소에 선착한점이 힘을 쓰기는 하나 白의 착실한 실리에 비해 그세력이 집구실하기에는 상당한 난관을 각오해야 될것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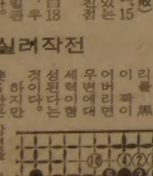
그렇다면 白16을 협공한 黑17은 멀리두는 수는 없었을까。이에 대해 趙南哲8단은 참고도를 제시했다。

黑1로 우변 화점을 점령해도 白은 역시 2로 3三에 뛰어들것이니 그때 黑3이하 白10까지 두고나서 실전보의 24자리를 黑이 짝이 어버리면 우변에대 세력이형성된다는 것이다。

白、일관된 실리작전

하지만 姜6단은 상변을 중요시하고 실전처럼 처리한 모양이다。

좌상귀쪽을 黑25로 늘어 이하 31까지 일사천리、이른바 외길인 때문에 노타임이다。도중 黑27로 28자리를 젖히면 白27에 끊겨 黑이무리。또 黑31로는 좌하귀를 黑「가」로 지키고싶지만 가사 白이대음「나」로 붙여 좌상黑을 위협하면 적절한 대응책이 없다。때문에 黑31은 正手인데 白은어떻게 이黑세를 견제할지。【一凡】



주간女性

한국의 妓生

밤마다 合寢

글 全完吉
그림 李良友

高麗나 朝鮮에서 妓女를 훈련시켜 各邑 各地에 배치한 목적을 한두가지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하였다. 그러면 무엇때문에 어디에 배치하고,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그 속 사정을 알아보자.

♣邊方妓의 役割

중국에서 그랬듯이 邊方에 주둔시킨 將卒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기생을 배치했었다. 고려에서도 그랬겠지만 상세히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世宗때 기생을 邊方에 배치했다는 기록이 있다. 즉 세종은 金宗瑞를 咸吉道都節制使로 임명하여 女眞族을 내몬 뒤에 六鎭을 설치하고 四邑을 두었는데 이곳에 주둔하는 將卒이 가족을 동반하지 않으므로 기생을 두어 기생으로 하여금 의복을 세탁케 하고 위로케 하였다. 세종15년(1433)의 일이다.

3년 뒤인 1436년 12월에 咸吉道監司에게 내린 傳旨 全文을 보면 邊方에 기생을 배치한 이유를 소상히 알 수 있다. 「예부터 邊鎭에 娼妓를 두어서 軍士가운데 아내가 없는 자를 접대케 한 유래가 오래다. 【이는 고려의 遺俗이란 의미인가?—筆者】 지금도 변진과 州郡에 官妓를 두어서 行客(주로 中央에서 오는 官員)을 접대케 하고 있다. 함길도의 慶源·會寧·鏡城邑은 우리나라의 큰 요새다. 북쪽 국경지대에서 방위에 임하는 軍士들은 멀리 집을 떠나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그러므로 일상의 자질구레한 일에 곤란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 妓女를 두어 士卒을 접대함으로써 사리에 맞도록 하라」<朝鮮王朝實錄>.

世宗의 이러한 조치는 睿宗·成宗·燕山·中宗에 의해 답습되었을 뿐만 아니라, 名君의 善政으로 칭송받았다. 예를 들면 李睟光은 『우리나라에서 祖宗祖이래 邊鎭에 기생을 둔 뜻이 가히 지극하다』 예찬하고, 장수가 군사들에게 즐거움을 나누지 않고 독차지한다고 나무라기도 했다. <芝峰類說>

즉 기생이 將卒의 아내 代役으로 邊方에 배치되었던 것이다. 변방에 배치된 기생은 잠자리뿐만 아니라 군사의 옷을 깁고, 세탁하고 꿰매는 일도 담당하여 代婦노릇을 했다.

그런데 기생은 이처럼 邊方軍士를 위하여 봉사했던 것만은 아니다.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 使臣에게 侍寢하고 音樂人으로서 동원되었다.

♣京妓의 用途

高麗의 睿宗·毅宗·高宗을 비롯하여 忠烈王은 女樂을 좋아한 나머지 자주 演奏하였으며 倡優雜伎와, 妓樂百戲를 演出했다. 王 자신이 즐겼음은 물론 六臣을 모아 놓고 연회를 열었는가 하면 燃燈會나 八關會와 같은 국가행사에도 女妓를 이용했다. 宋使 劉逵이 왔을 때는 山臺戲를 배설하고 女樂으로 하여금 흥을 돋구었다.

이와 같은 관례는 조선에 이르러서도 그대로 답습되었다. 아마도 세종때부터 外國使臣에게 기생이 제공된듯하다.

세종 24년(1442) 1월에 어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持平 朴譮가, 예전엔 明나라 사신이 오면 女妓를 요구하더라도 太平館의 관리인이 슬며시 접대하고 조정에서는 모른체 했는데 지금 온 사신은 제멋대로 기생을 관계하고 부하들에게까지 기생을 주어서 淫行하게 하니 만일 이런 사실이 중국에 알려지면 우리나라를 깔보지 않을까 염려된다 하였다. 이에 세종이 『네 말이 옳은듯하다. 그런데 예전에 사신에게 남몰래 시침시켰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는가? 예전에 崔眞이 사신으로 왔을 때 함길도 기생을 사랑한다 하므로 데려다가 접대케 한 일은 있다. 또 太祖·太宗때에도 그런 전례가 있다. 그리고 女妓를 아낄 필요가 있는가. 네 말은 論旨가 옳지 않다』고 힐난했다.

이후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사신에게 기생을 시침시키기로 관례가 되었다.

명나라 사신뿐만 아니라 倭使·淸使에게도 그랬다.

그러나 모든 사신이 侍房기생을 요구했던 것은 아니다. 給事中 張寧이 副使 武忠과 왔을 때 태평관에서 그들을 위하여 연회를 베풀었다. 武忠이 기생 紫洞仙에게 자주 눈짓하는 기미를 알고 張寧이 館伴에게 부탁했다.

『大人이 燕나라와 趙나라 사이에서 태어났고 노래부르는 고장에서 자랐는데 만리나 되는곳에 와서 회포를 풀지 못하고 있으니 위안해주는 것이 어떻겠소.』 그러므로 관반이 곧 아름다운 기생 여러명을 데려다가 술상을 베풀고 담소하며 즐겼다. 무충은 아름다운 기생을 얻었다하여 무척 즐거운 표정이었다. 그러나 밤이 깊자 給事가 中門으로 나와 호장에 걸터앉아 일일이 기생의 이름을 點考하여 보내고 문 빗장을 걸고 돌아왔다. 文忠은 상사가 한 일이므로 어찌지 못하고, 상한 기분을 겉에 나타내지 않으려 애썼다.

張寧은 비록 부사가 기생과 동침하는 것을 막았지만 기생 자동선을 무척 흠모했었다. 조선에 오는 중국 사신들이 자동선 보기를 원했기에 그를 데려다가 사신을 접대하기까지 했다. <靑坡劇談>에 이런 일화가 소개되어 있다.

宗室 永川君은 기생 靑娥月과 사랑에 빠졌었는데 재주와 미모가 뛰어난 자동선을 보자 곧 사랑을 그에게로 옮겼다. 그가 松都에 갔을 때 이를 안 徐達成이 『청교의 버들은 가슴 아프게 푸른데 紫洞의 안개는 마음에 흡족하게 짙었구나』라고 시를 지어주자 영천군이 기뻐하고 여러 사람앞에서 자랑스럽게 읽기까지 하였다.

張寧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연회때마다 자동선을 눈여겨보고 『참으로 傾城할 자태이다』고 감탄하였다. 중국의 사신 金湜이 濟川亭에서 놀때 예쁜 기생들이 앞에 가득한데도 『張寧이 칭찬하던 자동선은 어디있소』 하였다. 예조의 관리가 거짓 다른 기생을 가리켰다. 영천군이 사랑 하는 기생이므로 그런 것이다. 그랬더니 김식이 『아니오, 그가 자동선이라면, 張寧이 칭찬하지 않았을것이오』 하면서 고개를 저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예조 관리가 더 거짓말 할 수 없으므로 부랴부랴 말을 달려 자동선을 영천군집에서 찾아왔다. 그제서야 김식이 웃으며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군』 하였다.

아마 중국의 사신들이 모두 기녀 동침을 원하지는 않았던듯 싶다. 祁順(기순)이 왔을 때 그의 방에 기생을 들여보내자 이런 시를 지어 거절했으니까.

『聖朝의 風化를 萬方이 우러러보노니, 남녀사이의 綱常은 근엄함이 소중하오. 그윽한 맹세는 다만 차가운 매화와 함께 할뿐, 아름다운 꽃을 위하여 따로 情을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龔用卿(공용경)은 이와 달랐다. 一朶紅의 아름다움에 반하여 술에 취하자 먹을 담뿍 찍은 붓으로 그녀의 얼굴에 칠했다.

그런데 倭使에게 女樂을 베풀기는 하였으나 中宗4年에 마지못해 한번 시행했을 뿐이고, 倭國을 깔보았었기 때문에 男樂으로 대신하였다.

內外 貴賓의 잠자리 돕고 邊方 將·卒의 代婦노릇도

1876年에 韓日修好條約을 맺어 국교가 수립된 뒤에도 法令으로써 조선 妓女(娼婦포함)의 倭人 同宿을 엄금하였다. 이 조치가 倭人의 감정을 자극시켜 1881년 12官紳의 시찰단(紳士遊覽團)이 일본에 갔을 때 소에지마(副島種臣)가 魚允中에게 두 나라가 修交하여 우방이 되었는데도 왜 창녀와의 동숙을 금하느냐고 따졌다.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어느나라건 외국사신 연회에 女樂을 폐지하고 男樂으로 대신했다.

어쨌든 倭使·明使·淸使에 女樂을 베푼 사실은 분명한데 이는 예사롭게 보아넘길 史實이 아니다.

왜냐하면 邊方엔 將卒 위한 구실로 妓女를 두고 內地엔 두지 않으려 하였다가 외국 사신을 접대한다는 구실로 內地에도 妓女를 두었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內地 기생 즉 京妓보다 「邊方 기생」(鄕妓)이 더 많았다.

그러면 이들 기생은 외국사신과 邊方將卒 위안에만 동원되었을까? 외국사신과 장졸 위안외에 外國行使臣과 出張客(이 역시 使臣으로 부름)을 위하여도 동원되었다.

먼저 燕行使臣 接待例를 보자.

♣茶母들의 苦役

1712년에 冬至使兼謝恩使로 北京에 다녀 온 金昌集一行을 수행한 金昌業이 여행기<燕行日記>를 남겼는데, 이 일기를 보면 各 고을 守令이 기생잔치와 시침으로 燕行使臣을 얼마나 厚待하였는지 알게된다.

일행이 평양에 이르렀을 때다. 庶尹(官職名) 黃爾章이 배를 가지고 대기하고 있었다. 배를 보니 정자가 있고, 사면에 朱欄이 설치되고 「碧漢浮槎」란 標이 붙어 있었다. 배에 오르니 鮮果가 나오고 기생이 두 줄로 늘어 서 있다. 이것이 관서의 호화스런 자랑거리였다.

밤에 和家에서 잤는데 茶母를 부르는 소리가 새벽까지 끊이지 않기에 까닭을 알아보니 裨將과 驛院輩들이 그렇게 차모를 찾았다는 것이다. 대부분 읍의 기생이라야 노약자를 빼고 손님을 치를 만한 자는 기정해야 수십 명을 넘지 못한다. 이들을 三行에 나누어 배정하자니 비장이나 역원에게는 차모 하나 꼴이었다. 숙소가 다르다 보니 이리저리 불려가야 된다. 이때문에 司令의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라 하였다. 기생도 마찬가지다. 미친 듯이 하룻밤에 너댓군데를 돌아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평양기생들은 燕京에 가는 사신과 동침하는 것을 「別付」라 부른다.

그런데 金昌業일행은 이튿날도 평양에서 머물렀으며 역시 서윤으로부터 妓樂을 대접받았다. 그리고 이들은 順安·肅川·安州를거치고 嘉山·定州·義州를 지나 중국으로 향했는데 읍에서 숙박할때마다 기생이 現身하였고, 가산에서는 기생들이 길 양쪽에 늘어서서 안녕히 다녀오라고 전송하였다.

사신을 접대하기는 갈때나 올때도 마찬가지다. 김창업일행이 중국에서 돌아오면 1713년3월18일의 日記를 보면, 定州 主守 洪以度가 만나보기를 청하기에 大廳에 이르러보니 거가에는 아직 머리를 올리지않은 隨廳妓가 있었는데 용모가 제법 아름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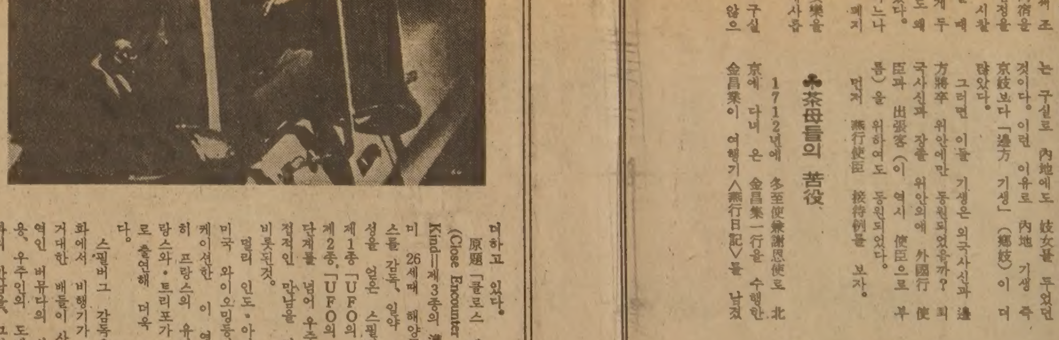
내가 말을 잡고 희롱하면서 이름을 물었더니 나이는 열여섯이고 駕鶴이라 하였다. 밤에 가학이 어린 기생 楚玉과 劍舞를 추었는데 초옥은 더욱 절묘하였으며 나이 겨우 열세살이었다. 검무는 우리들이 어렸을 때 보지 못하던 것으로 수십년 동안에 점차 성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8도에 두루 퍼졌다. 기생이 있는 고을은 모두 服色을 갖추어 놓고 풍악을 울릴 때는 반드시 먼저 기생을 바쳤다. <다음호에 계속>

AH映画

버뮤다 3角지대 神秘다룬 巨作

스필버그 監督·프랑스와 트리포 主演

클로스·엔카운터



미국 영화계에서 鬼才소릴 듣는 스티븐·스필버그의 UFO관련 초거작 미스터리작품이다. 약관 29세로 그가 가진 영화적인 상상력과 미국영화계의 최신 기술을 총동원한 이 영화는 그 자신이 15세께 부터 키워온 우주에의 꿈을 집대성, 장대한 파나비전 스크린과 돌비 스테레오의 완전 입체음향으로 창업을 더하고 있다.

原題「클로스 엔카운터」(Close Encounter of the 3rd Kind—제3종의 遭遇)란 이미 26세때 해양공포물 조스를 감독, 일약 세계적 명성을 얻은 스필버그자신이 제1종「UFO의 목격」, 제2종「UFO의 흔적」의 단계를 넘어 우주인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정의한데서 비롯된것.

멀리 인도·아마존유역·미국 와이오밍등지에서 로케이션한 이 영화는 특히 프랑스의 유명감독 프랑스와·트리포가 주연급으로 출연해 더욱 이채를 띤다.

스필버그 감독은 이 영화에서 비행기가 실종되고 거대한 배들이 사라지는 지역인 버뮤다의 신비를 이용, 우주인의 도래와 인간과의 만남을,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실종 비행기의 조종사와 배의 선장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동동을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음악은「조스」「스타워즈」「워터루브리지」등의 존·윌리엄즈가, 촬영은 조스의 쥴비 빈·모스, 특수효과에는 머글러스·트럼불이 맡았다. (국제·허리우드 상영)

映画界 落穗

크리스토퍼·리 邦畵에 出演교섭

「드러큘러」에 主演…泰昌서 기획한 怪奇物에

怪奇영화「드러큘러」와 007시리즈「황금총을 가진 사나이」에 주연, 우리나라에도 널리 소개된 크리스토퍼·리(60)가 우리나라에 올것같다.

泰昌興業이 기획중인 한 괴기영화에 출연교섭을 받고있는 그는 곧 계약이 성사되는대로 한국에 올 예정.

현재 泰昌이 구상중인 이 작품은 대규모범죄와 크리스토퍼·리를 관련시켜 불가사의한 사건을 일으키게 하고, 결국 한국의 佛敎와 怪力의 싸움에서 佛敎가 이긴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흉측한 역이나 악역을 많이 하고있는 그는 英國의 名門출신으로 2차대전때는 英國공군에서 파일러트로도 크게 활약했다.

그는 47년「유리의 회랑」이란 영화에 데뷔한이래 57년「프랑켄시타인」에서 주연을 맡았다.

「白鯨」「피의江」「三銃士」등에도 출연했고, 1m90의 훤칠한 키에 수개외국어를 능숙히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俳優겸歌手 할러웨이死亡

名聲의 英스타…향년91세

뮤지컬영화「마이 페어 레이디」에서의「둘리틀」역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英國배우겸 가수 스탠리·할러웨이옹이 지난주 英國의 한 요양원에서 사망했다. 향년 91세.

1890년10월 런던에서 한 법률서기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엄격한 빅토리아식 교육을 받았으며 1913년 밀라노에서 오페라수업을 받았으나 곧 제1차대전의 발발로 사병으로 英國軍에 입대했다.

종전과 함께 중위로 제대한 그는 英國 코미디 영화의 황금기작품인「더 레이번 더 힐몹」등에 출연, 각광을 받았으며 뉴욕에서 처음 데뷔한것은 54년「한여름밤의 꿈」에 출연했을 때였다.

그는 이어「약자의 행운만으로」「시간에 맞게 교회에 데려다주오」등의 뮤지컬무대에서 잇달아 선풍적인 인기를 얻어 뮤직홀의 천재라는 평을 받기도 했다.

해외 걸작 만화

◇"좌라"

庶民과 여행자를 위한 생활英語

담당 민병철
【美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I'M RETURNING MR. BROWN'S CALL.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Mr. Brown이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었다고 동료가 알려 준다. 상대방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는데, Can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라는 secretary (비서) 의 질문에 「Mr. Brown이 전화를 하셨다기에 다시 전화를 드리는 겁니다」라고 하는 경우는 간단히 I'm returning Mr. Brown's call. 같이 표현한다.
이런 경우 자기 자신을 알리는 경우는 물론 본인의 이름은 대면서 This is Mr. Park returning Mr. Brown's call. 하면 될것이다.
대부분 secretary가 받는 경우 Regarding what?(무슨용건이신가요) 하고 묻게 되는데, 그런때는 Regarding the accident. (그 사고에 관해서)라든지 Regarding the meeting. (그 모임에 대하여) 라고 대답하여 주면 된다. 이때의 regarding은 「~에 관하여」라는 전치사로서 같은 말로는 concerning이 있다.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었을때 본인이 아니면 용건을 말하고 싶지않을 시는 This is a personal call. (개인적인 통화입니다) 이라든지 I'll call again later. (나중에 다시 걸겠읍니다)혹은 Please have him return the call. (그 분의 답례전화를 부탁합니다)등을 이야기할수 있다.

A : Hello, United Air Lines.
B : This is Mr. Park from the University of Chicago.
A : Can I help you?
B : I'm returning Mr. Brown's call.
A : Alright. I'll connect you with Mr. Brown.
B : Thank you.
A : 여보세요. 유나이티드 에얼라인스입니다.
B : 시카고대학에있는 미스터 박이라는 사람입니다.
A : 도와드릴까요?
B : 브라운씨가 전화하셨다기에 답례전화를 드리는겁니다.
A : 좋습니다. 브라운씨와 연결시켜드리죠.
B : 고맙습니다.
※personal: 개인의. a personal letter친전편지. connect: 연결하다. You're connected. (상대가)나왔읍니다. concerning: ~에 관하여. ~에 대하여.

GIVE ME SOME FEEDBACK.

상대방에게 어떠한 상황을 설명하여주고 거기에 대한 opinion (견해)내지는 advice(조언)를 받고자 할때 쓰는 표현이다. 다른사람들의 pay(급료)는 다올랐는데 내것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boss에게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해야 할지, 아니면 좀더 참고 기다려보아야할 것인지, 자기 혼자생각으로는 판단이 어려울때 이러한 상황을 상대편에게 충분히설명해주고서 「당신의 조언을 달라」고 할 때 바로 이 Give me some feedback.을 사용한다.
「당신이라면 이럴때 어떻게 하시겠읍니까?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묻는경우 What would you do in my place? Give me some feedback. 하면 될것이고, 「이런 상황에 대하여 조언이 필요합니다」라고 할때는 I need some feedback on this situation. 이라고 하면된다. 물론, 위에나온 What would you do in my place?의 문장은 What would do if you were in my place? 의 약형으로서 「당신이 만일 내입처지라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말이다.

A : Tom, I've been thinking about that Cadler job.
B : Oh? What will you do?
A : Give me some feedback. I'll take it, if they increase the pay.
B : Gee, I don't know what you should do.
A : Then, what would you do in my place?
B : Well, I'd take the job anyway.
A : 탐, 그동안 캐들러직장에 대해서 생각해보았지요.
B : 그래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A : 조언을 좀 해주세요. 만일 급료를 올려준다면 그직장을 잡겠어요.
B : 글쎄요, 당신이 어떻게해야좋을지 나도 모르겠군요.
A : 그렇다면 만일 당신이 내처지에 있다면 어떻게하시겠어요?
B : 저같으면 어쨌든 그직장을 잡겠어요.
【발음】 some: 단어하나만 읽을때 「쌤」, 회화체로 빠르게 발음되는경우「씀」이라고 발음된다.

본 난의 담당 「민병철 생활영어」책은 이중언어 교육처및 교포들의 영어교육 여러곳에서 사용하고 있다.

구입처 :
B. 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 S. A.
전화 : (312) 966-4050
책 : 제1권(12불) 제2권(12불) 제3권(12불)
카세트 · 1권용(33불) 2권용(38불) 3권용(38불)
비디오 · BETA(30불)
VHS, 65불)
※U. S 마니오더에 한합니다.

連載小說

스물세살의 자서전

—人間市場—

金洪信 作
崔然石 畵

(61)

지난 줄거리

총찬이는 죄없이 계속 박형사의 조사를 받으며 불안해 한다.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자 총찬은 또 한번 놀란다. 김갑산 회장의 외손자가 유괴되었기 때문에 그 혐의자로 조사를 받는다는 걸 알았다. 진범이 잡히지 않으면 유괴범으로 곤욕을 치르게 됐지 모르는 순간이었다. 박실장을 괴롭힌 댓가치고는 너무 큰 댓가를 치르게 된다. 유괴사건은 오리무중으로 진전이 없기만 하다.

의심이 갈만한 사람들의 알리바이는 정확해서 더 이상 조사방향을 고정시킬 수 없게 되었다. 나는 경찰서를 나서며 박형사에게 슬쩍 물어 보았다.

『내가 진짜 범인처럼 보였읍니까?』

박형사는 내 손을 움켜린 채 뒷머리를 긁적였다.

『학생이 젤 의심 가게 생겼더군. 하는 일도 그렇고 전력도 화려해서 말야. 거기다 전과가 없다는 게 지독한 지능범처럼 보이더라 이말야. 애 잃은 부모도 학생을 제일 의심하고 있어.』

『굶어 죽으면 죽었지 유괴 따위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읍니다. 박실장한테 아직도 감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장인을 없애서 재산을 가로 채려는 사내니까 말입니다.』

『이해 하게나. 자네, 정초에 액땜 했다 생각해. 살다보면 별의별 꼴 다 보는 거야.』

박형사는 내 등을 밀었다. 나는 경찰서 마당에 늘어서 있는 신문사와 방송국 차들을 보면서 피식 웃었다. 만약 유괴된 애가 이름없는 집 애였다고 해도 저렇게 시끌덤벙할까?

애를 유괴 당했을 때의 부모 마음은 없는 집 애나 있는 집 애나 마찬가지일 것같다. 그런데 사회에서 보는 눈은 그렇지 않았다.

집으로 온지 하루만에 김갑산 영감의 전화를 받았다.

『걱정이 크시겠읍니다. 저도 엇저녁에 나왔읍니다. 연락할 길도 없고해서 전화도 못드렸읍니다.』

김갑산 영감은 풀 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위와 자식한테 당할 때도 정정하던 늙은이였었다.

『이리 좀 오게. 할 얘기가 있네.』

김갑산 영감은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만 오라고 했다. 나는 주섬주섬 옷을 챙겨입고 김갑산 영감이 오라는 곳으로 갔다.

초췌한 모습이었다. 상속을 끝내고 돌아설 때의 모습과 또 달랐다.

『자넬 귀찮게 해서 미안하네만 나를 좀 도와줘야겠네.』

『말씀만 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겠읍니다.』

『고마우이. 자네라면 믿을 것 같아서 불렀네. 처음엔 나도 자넬 의심했지.』

『그러실 줄 알았읍니다.』

『미안하네. 경찰에서 자네가 죄없다는 걸 얘기하길래 안심이 되더구만. 내가 다급한 마음에 자네까지 의심한 게 미안하기도 하고…』

『또 긴히 자네한테 할 얘기도 있었네.』

『마음놓고 하세요. 어렵지만 저를 믿어 보시는게 좋으실 겁니다.』

김갑산 영감은 담배를 꺼내 물고 내 눈을 조용하게 응시했다.

『자네도 한때 태우지.』

『괜찮습니다.』

『가리지 말게. 나한테 괜찮아.』

나는 담배를 받아 불을 붙였다. 김갑산 영감이 길게 연기를 뿜었다.

『자네가 이번 일을 어떻게 보는지 알고 싶네.』

『말씀드리지요. 신문에 난 얘기하고 조사 받으며 느낀대로라면 이번 명호군 유괴사건은 영성하기 이를데 없는 유괴같습니다. 그리고 집안사정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의 소행이거나 수사기관에 오래 근무해서 앞뒤를 기가 막히게 잘잰 사람 소행이거나 둘중에 하나고 생각했읍니다.』

『그리고 또.』

『밝혀지지 않았지만 가정이 좀 복잡하지 않느나 그런 생각입니다. 아 전 순전히 제 느낌입니다.』

『또 다른건 없나?』

『감히 말씀 드린다면 가족내에 범인이 있을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읍니다.』

김갑산 영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 얘기를 듣고 있었다.

『따님이 의심스럽다는 생각도 했읍니다. 터무니 없는 상상일 수도 있지만…』

괴로운 표정의 김갑산 영감의 얼굴을 쳐다보며 집안 사정이 퍽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네가 역시 예리하군.』

『제 생각이 맞습니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내 집안 문제라 부끄러운 애기들 뿐일세.』

『말씀해 주시죠.』

내 호기심이 발끈 일어서기 시작했다.

『경찰도 다 아는 사실이네. 그쪽도 조사를 철저히 한 모양인데

가족중에 犯人이 있을수있다니 자넨 역시 예리하군

돈은 충분하게줄테니 내 秘書로 뒷 調査 좀해주겠나

아무 단서도 잡을 수 없다뿐이지.』

『무슨 일인데요?』

『내가 돈버는 일에 눈이 어두워서 자식간수를 잘못한 죄지만…두 애 사이가 안 좋아. 서로 내 주장이고 별거했다가 만나고 해서 내 속깨나 썩인 애들이지.』

『그건 알고 있읍니다. 지난번에 조사할 때 알았던 거지요.』

『문제는 거기에 있지않나 해서 애길세. 저렇게 내버려뒀다가 막상 해결됐을 때 이 늙은이가 또 챙피당하게 될까봐 그러네. 이걸 어쩌면 좋은가 이 말일세.』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없네. 그저 느낌일세.』

『제게 어떤 일을 시키려고 그러세요? 부르셨을 땐 그만한 생각이 있으셨을텐데요.』

『으음.』

신음하듯 했다. 그도 이제야 돈가지고 안되는 일이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 것 같았다.

돈 가지고 안되는 게 별로 없는 건 사실일 것이다. 적어도 그가 대재벌 그룹의 총수로 군림할 때부터 몇푼의 돈을 뿌려서 그가 필요로 하는 건 무엇이든지 손에 쥐는 법을 배웠을 것이다. 돈이면 사람도 사들일 수 있고 돈이면 빼어난 미모의 여자들도 긁어 모을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공인으로서의 김갑산은 역사를 인식하지 않았다. 돈벌레로 그의 일생이 기록되리라곤 생각하지 않았다. 늙으면 자식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자서전이나 회고록을 쓸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 기록에다 글장이를 돈으로 우려내고 그의 일생을 지켜본 사람들의 듣기 좋은 소리만 삽입해서 스스로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자찬할 생각이었을 것이다.

아무리 구렁같이 살아온 사람이라도 뒤를 돌아다보고 정리를 할때면 최선을 다해, 비겁하지 않게 무엇인가를 해냈다고 착각하게 되는것이다.

자서전을 한번이라도 써봤거나 쓰려고 별렀던 사람은 남들이 남긴 자서전이 얼마나 사기술에 능한 가짜 인생기록인지 알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제말이 틀렸읍니까? 자서전입네 회고록입네 쓸 때 제 양심을 기만한 저 기라성같은 사람들에게 어떤 심판을 내리실건가요.

곤장 백대요.

밤 독하게 자시라니까 왜 자꾸 이래요. 지옥에 가면 마귀들이 갈겨놓은 똥통이 있을 거예요. 그 자식들 처먹은 게 빤해서 되게 떡적지근한 똥을 싸댔을 겁니다.

거기에다 거꾸로 처박아 버리세요. 하나님, 제발 그런 땐 독종이 되시란 말입니다.

버르장머리 없는 왜놈들만 똥통에 튀길게 아니라니까 왜 자꾸 그러세요. 히틀러, 나폴레옹, 종교전쟁의 주역들,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놀이를 즐기는 녀석들, 좌우간 싸움질 잘하고 총 잘쏘고 뒤통수 잘 치는 사내들 몽땅 몰아다가 거꾸로 박아버리세요. 우린 용감한 하나님만 믿습니다.

『자네가 뒷조사 좀 해주겠나. 내 손자 좀 구해주게.』

탄식이 섞인 소리였다.

『만약에 사위나 따님이 얽혀 있다면 어쩌시겠읍니까? 지난번처럼 몰어두라실 겁니까? 그렇다면 아예 얼씬거리지도 않을 겁니다.』

『내 자식들이 그렇게도 밉나?』

『회장님 자제분들이라 미운게 아니고 저보다 잘살고 잘나고 아버지 잘 만나서 미운게 아닙니다. 미운 짓하는게 미운 겁니다. 회장님 아녔으면 그때 허리를 못쓰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읍니까? 회장님도 똑 같은 겁니다. 돈 가지고 안되는 게 있다는걸 회장님도 아셔야합니다. 그라고 회장님은 솔직하게 회고록을 쓰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 튼 노인네 흉내 내지 마시고 그냥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두 참…』

김갑산 영감은 혀를 끌끌 찼다. 내 당돌한 말이 귀에 거슬렸던 모양이었다.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데 함부로 뛰어들 순 없잖습니까?』

『그래서 편법을 생각한 걸세. 자, 네가 내 개인비서 노릇을 해주는 형식으로 해서 나도 한애비니까 나대로 알아본다 이거지.』

『어떤 식으로요?』

『활동할수 있는 돈은 충분히 주겠네. 넙치 형하고 같이 나서 보게.』

『따님이나 사위를 다잡아 앉힐순 없잖겠읍니까? 자식 잃은 부모의 슬픔을 생각해서라도 말입니다.』

『그야 그렇지. 그러나 자네라면 경찰 조사를 방해하거나 월권행위를 하지 않고도 경찰과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볼수 있을텐데.』

『저를 그렇게 믿으십니까?』

『할수 없지 않은가. 믿기 싫어도 이럴 땐 믿는 수밖에.』

『너무 솔직하신데요.』

『자네가 솔직하잖는가.』

나는 잠시 생각했다. 머리속에 떠오르는 건 없었지만 손을 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내 느낌대로 그리고 김갑산 영감의 걱정대로 한구멍을 파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이것은 그들에 대한 미움의 또다른 표현인지도 모르겠다. 아직도 가시지 않았다는 내 증오심의 표현인지도 모르겠다.

『해보겠읍니다. 대신 제가 좀 지나친 짓을 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중간중간 짚히는 일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겠네. 내 손자를 곱게 찾아 주게. 그놈이 되게 보고싶네.』

김갑산 영감의 얼굴은 노여움과 격정이 같이 하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 속엔 물기가 서려지고 있었다. 그가 아무리 우리나라 돈을 주물럭거렸던 재벌이었다고 해도 그런 일엔 별 수 없는 늙은이에 불과했다. 재벌이라고 해서 불로장생할 수야 없겠지. 남보다 조금 오래 사는 거야 모르지만.

지나친짓 해도 容恕해 준다면 발벗고 나서 보겠읍니다

이렇게 늘씬한 아가씨가 中國 십팔본을 傳受했다니요

『넙치 형, 이번 일도 꼭 좀 도와 줘야겠어요.』

내가 찾아가서 앞뒤 사정을 다 애기한 뒤에 이렇게 말했다.

『도와주곤 싶다만 뭐가 보여야 돕든 말든 할 거 아니냐?』

넙치 형은 내가 딱하다는 듯이 말했다. 아직도 나이가 어려서 하고 다니는 짓이 경솔하다는 뜻 같았다.

『형, 이건 내가 당한 거라구요. 며칠 고생한 게 억울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의심을 받았다는 것이 억울해서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녜요.』

『무슨 말인가 안다. 나보고, 뭘 어떻게 도와달라는 거야?』

『여자애들 가운데 발 빠르고 의리있는 애들을 좀 찾아줘요.』

『그거야 네가 더 잘 알잖아.』

『그때 애들은 다 시집 가서 잘 살고 있어요. 팔팔한 애들 좀 애기해 줘요.』

『애가 전에 와서 고기 내놓으라고 떼쓰네.』

『형, 발랑 까진 애들 싫어서 그래요. 내가 아는 애란 빤하잖아요.』

『너한테 못당하겠다.』

넙치 형은 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데리고 나갔다.

『애가 은숙이다. 여기 사범이니까 함부로 눈 흘기지 마라. 괜히 코피 난다.』

은숙이는 전혀 운동하는 여자같지 않게 곱상하고 늘씬하게 생긴 여자였다. 중국인에게 십팔본을 정통으로 전수받은 여자라고 했다. 흔히 십팔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이고 중국쪽에선 십팔본으로 쓴다고 했다.

『내가 다 얘기했으니까 너희들끼리 잘 맞춰라.』

넙치 형은 은숙이를 소개해 준뒤에 훌쩍 가버렸다.

『이렇게 이쁜 여자도 운동하는걸니까?』

내가 농담조로 물었다.

『총찬씨 같은 미남이 운동을 하니까 그렇겠죠.』

여유있는 대답이었다. 그녀의 몸과 눈동자는 예민한 신경조직을 느끼게 했다. 어디다 내놓아도 미인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였다.

『하필 운동을 하게 된 이유라도 있나요. 이쁜 여자가 시집이나 가잖고.』

『오빠가 얘기하지 않던가요?』

『아뇨. 전혀 들은말이 없어요.』

『우린 화교예요.』

『아하!』

나는 그녀의 가문을 대충 짐작할 수 있었다. 넙치 형이 그녀를 소개해 준 것도 다 뜻이 있었던 것같았다. 함부로 보통여자를 소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술가의 가문에서 자란 은숙이를 소개한 것이었다. 그런 대국적 기질의 가문에서 자란 여자라면 나중에라도 말이 새어나가지 않을 뿐더러 철저하게 의리를 지킬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넙치 형한테 자세한 얘긴 들으셨겠지만 이번 일은 어린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어렵더라도 각오를 단단히 해야 돼요.』

『알아요. 우리 중국에서도 유괴사건이 나면 지방사람 전부가 수색대가 됐었다는 애길 들었어요. 지금 상황하고야 다르겠지만 말예요. 시키는대로 고분고분할께요.』

『고마와요.』

『일 끝나면 한수 가르쳐 줘요. 넙치 오빠 애기론 오빠보다 한수 위라던데요? 예날 중국같으면 천하를 호령했을 거라구요.』

『내가 예날 중국에서 태어났더라면… 글쎄, 벌써 칼 바람에 흙이 됐거나 중국 천하를 삼켰거나 그랬을 것도 같은데….』

『농담 말아요. 총찬씨가 생각하듯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녜요. 세살 때부터 산 속에 데리고 가서 마흔살이 넘어서야 겨우 사람 구경시키면 무가들이 수두룩했어요. 그 초인적 실력은 정말 신기였어요. 정말 철저한 도였어요.』

『우리나라 불가에도 그런 도인들이 계셨지요.』

『그건 동양만이 갖는 유일한 독도잖아요?』

『우리가 짝은 잘 맞췄습니다.』

우리는 세밀한 작전을 짜나가기 시작했다. 경찰활동에 월권행위를 하지 않는 범위와 김갑산 영감 외에는 전혀 눈치 채지 않게 가족들과 그 주변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만 하기 때문이었다.

『우선 우리는 먼데서부터 훑죠. 은숙씨가 필요했던 건 바로 이거예요.』

나는 사인펜으로 대충대충 그린 김갑산 영감네 족보와 주변 인물에 대한 관계를 적은 종이를 내밀었다.

『은숙씨는 명호 어머니 쪽을 맡아요. 친구들과 동창모임이나 계모임 따위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야 돼요. 눈치 채지 않게 조심해서 진행해요. 매일매일 보고를 해서 그때 그때 새로운 작전을 짭시다.』

『김 회장님도 딸을 의심하나 보죠?』

『구체적인 말을 하진 않지만 무슨 애기거리가 있나봐요. 겉으로야 손자를 찾고 싶지만 속으론 손자를 찾아야겠고 딸이나 사위도 구해야 되겠는 모양예요. 이건 김갑산 영감이 시킨 일이니까 큰 걱정은 안해도 돼요.』

『돈 많다는 게 그렇게 복잡한건 모양이죠?』

『부자되기도 어렵지만 부자가 된 뒤엔 더 어려운 거예요.』

『부자 돼봤어요?』

『앞으로 돼볼까 생각 중예요.』

『그때나 모른체 하겠죠?』

『물론이죠. 나도 엽치기 애부자 흉내 좀 내봐야 할 거 아녜요.』

『그때 가서 존경할께요.』

『꼭 존경해 주쇼.』

우리는 깔깔거리며 웃었다.

『서너명이면 될까요?』

『은숙씨 같은 여자라면 남을 거예요.』

『농담 그만하세요. 안속아요.』

『좀 속아 줘요. 총각 설움을 처녀가 아는거 아녜요.』

『애인 있다던데요 뭘.』

『누가 그래요?』

『넙치 오빠요.』

『그 형은 쓸데 없는 소리까지 하구 그래.』

『내가 물어봤어요. 하두 소문이 자자해서 말예요.』

『요새 애인 하나 가진 사람 봤어요?』

『엉큼 떨지 마세요.』

『난 씨가 토종이라서 토종 여자한테 장가갈 거니까 염려는 꽉 붙들어 매도 돼요.』

『자유는 착각이라고 누가 그러대요.』

『중국서 건너온 애기겠죠.』

『우리 그만해요. 이러다가 시작부터 싸우겠어요. 앞으로 계속 친해져야 할 사람끼린데.』

『들던 중 반가운 소립니다.』

우리는 치밀하게 작전계획을 세우고 헤어졌다. 사뿐사뿐 걸어가는 그녀의 뒷 모습을 쳐다보며 그녀를 홀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이놈의 욕망이란 놈의 버릇을 고칠 길은 없을까?

〈다음주에 계속〉

무슨 광고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성심껏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한국일보광고국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THE KOREA TIMES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렌.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유경험자 스토아 헬퍼구함 :
세파드×돈·밀스
☎ : 491-9701(6시이전), 292-8838(6시이후)

토요일, 일요일에 일하실 여자분
캐쉬어 구함(12시부터 오후8시까지 근무)
다운타운지역 ☎921-0624 Mr. 한

청소, 수퍼 바이저 할분과
스프레이 버핑 하실분 구함
☎962-0019

가게 매니저 구함.

☎449-1871 Mr. 권

★ 파트 타임 헬퍼구함.
서쪽지역. ☎769-5956

주방일 도우실분 구함.

☎532-2727

매매및 양도

다운타운—하이 볼룸 그로서리 스토아
현매상, 월 $50,000이상. 좋은 리스.
아스킹 $150,000 ☎535-0028(Mr. Kim)

"꿀"팝니다(토종꿀과 로얄젤리)
30 DEWSON ST.(오싱톤×칼리지)
반드시 영어로 문의하실것 ☎ : 534-0563

이주관계로 "가와이"피아노 팔려고 합니다.
GOOD QUALITY
☎ : 425-0635

집안사정으로 급히 버라이어티가게 팝니다.
렌트 $570(월) 리스 5년 + 5년
주매상 $5,200 ☎298-7635(Mr. 정)

● 세탁소(맞춤, 수선도함)
아스킹 $13,500
● CONVENIENCE STORE(베더스트지역)
B. HOUR; 9 : 00AM~9 : 00PM
아스킹 $19,000 ☎ : 763-5555 DORIS BURDA
R. CHOLKAN CO. LTD. REALTOR

스토아 매니져 구함, 또는 가게를
팔수도 있음 몬트리올지역
(SMALL DOWN PAYMENT)
☎ : 1-514-637-6444

그로서리도 포함된 버라이어티 스토아, 아파트 많은 지역임, 주매상 : $4,500, 아스킹 : 42,000+스탁
렌트 : $650+하이드로(월)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주소 : 550 SHEPPARD AVE. W.

버라이어티 스토아(미니·마트)팝니다
<5개월전 개업 : 개인사정으로 급히 가게처분 하기원함>
상점넓이 : 2000sq. ft., 스토레지룸 : 1500sq. ft.
주매상 : $3,700, 핀볼머신 수입 $250(주)
렌트 : $570(월), 리스 : 5년+5년 옵션
권리금 : $20,000+스탁, 위치 : 런던·온타리오

☎ : 1-519-473-4654(MR. KIM)

가정형편상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크리스티 × St. Clair)
☎ : 656-5358

이윤높은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3,000~4,000 관심있는분 직접 내방바람.
250 Sheppard Ave. W.

①그로서리(주매상 $5,000)
②써브·마린+건물($135,000)
③갤러리(영×블루어)
☎ : 481-3443(B) 황 순 일
Canada Permanent Trust Realtor.

하우스 렌트

집세놓음(스카브로 동부지역) : 3 베드룸 방갈로, 차고 있음, 지하실 꾸며져 있으며 화장실2개, RENT $400 +하이드로(월), ☎ : 822-4480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 : 751-9236, 757-2106 홍진표

— 한인기관및 단체명 —

- 총 영 사 관 : 598-4608
- 한 인 회 : 755-9288
- 노 년 회 : 755-8079
- 실업인협회 : 752-7771
- Y M C A : 536-1166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 : (B) 752-3111, (R) 298-2546

D. F. McALLISTER R. E. LTD.
투자 전문(IC & I)
(B)497-0600, (R)298-8558 김시성

미 용

킴스 미용실
B)532-7094 R)248-2437(코리아하우스 뒤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보 석

다이아몬드·스타=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Mr. LEE

사 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 각종 증명사진
☎ : 534-1085 김 춘 탁 619 BLOOR ST. W.

60 MINUTE PHOTO LAB
● 1시간에 모든 현상이 가능
● 교포께 특별히 10% 할인해 드립니다.
● 프린트 싸이즈(4×6)품질보장
● KNOB HILL FARM DIXIE MALL ☎ : 274-4328
50 BLOOR ST. W. ☎ : 967-7121

새한칼라 현상소
●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VIDEO 촬영
● COMMERCIAL ● ART PHOTOS ● WEDDINGS

시설및 수리

목공소 FineWoodwork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676-1173 769-8468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싸우나 설치, 진열장 찬장등 가구제작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보수·가게신설·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김부원
☎ : (B)245-5544(PAGING)2790, (R)255-2161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 INVENTORY —
①STORE인수, 인게 INVENTORY
②STORE정기조사 INVENTORY
③STORE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 : 259-5822, 255-8301(B), 252-2963(R) MR. 오

에어콘·히팅·냉장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 : 221-5441
미스타 이

PEOPLE'S
(상업용, 가정용 냉동기)
499-1203
미스타 원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746-3840-1(B), 493-9945(R) 김 봉 균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파티드레스·웨딩드레스·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운전학교

오 행 근 운 전 학 교
423-3035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전기덕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ROGERS GARAGE(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번 달 원
☎ : 651-9324(B), 226-5430(R)

꽃 집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크로스웨이(구 플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65 남파·김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 안)
•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 배달함.
875 JANE ST. TOR. ☎ : B)769-0609 R)242-5194(여정용)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태 권 도

박종수 태권도장 사범 :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손명수 태권,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AT RUNNYMEDE 써브웨이)
☎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
1963 WESTON RD.(1층)
☎ : 247-7577(웨스톤×로렌스)로브로 앞

카펫·카텐·

카펫 크라닝 : 카펫·소파·췌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 W.
☎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한 방 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Ontario St. #517(St. Jamestown)박영숙

동 양 한 약 상 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 병 섭 M.C.I.C. R.M.
*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거의다가 서임)
VISA 또는 MASTER CHARGE는 CASH이상 환영.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 진풍웅담 ● 녹용 ● 우황청심환 ● 사향 ● 경명주사
●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하르빈 한약상사
▪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 20년간 하르빈한의 대학교수
▪ 정확한 진단과 처방
▪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 중국 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서 춘 봉
☎ : (B)536-6854 (R)743-0752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 : 960-5736(B), 844-0178(R)

공인회계사 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 : 273-7300 MISSISS.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 3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 BOOK KEEPING & ACCOUNTING
● MANAGEMENT CONSULTING 이 영 철
● INCOME TAX PREPARATION ☎ 239-6802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745-6792(Mr. 우)

기 타

브랜든 운동구점(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취급
337 BLOOR ST. W. ☎ : 598-3732 이 건 영

ZAP SUREKILLER ☎ :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O'Kim Embroidery
각종 꽃수, 명찰, 마크, 아동복, 부인복
Covering등. ☎ : 633-9341

통닭. 오뎅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전문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함.
☎ : 537-0432(미스타. 리)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혜숙

K C ENGINEERING INC
☎ : (416) 624-4319
COMPLETE BUILDING DESIGN
& PROJECT MANAGEMENT
건축설계, 공사감독
공사견적, K. C CHUNG P. ENG
STRUCTURAL ENGINEER

자동차를 파실려구요?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流星의 賦

<307>

李炳注 作
李友範 畫

虛實의 時間 ④

『일본의 관백(關白) 수길은 서(書)를 조선국왕 각하(閣下)에게 바치노라. 귀서를 흔독하고 궤서재삼(披閱再三) 하였던 바, 본조는 비록 60여주라 할지라도 최근 몇해 동안에 제국이 분리하여 국강(國綱)을 어지럽히고, 세례(世禮)를 폐하여서 조정 정치를 듣지 않는지라, 그러므로 내 적분을 견디지 못하여 3, 4년 사이에 반신(叛臣)을 치고, 적도(賊徒)를 없이하여 이역(異域) 원도(遠島)까지 모두 장악하는 바 되었다. 돌이켜 보건대 나의 출신은 비루한 소신(小臣)이지만 일찌기 임태(孕胎)되었을 때 자모(慈母) 배 속에 일윤(日輪)이 들어가는 것을 꿈 꾸었으매, 점 치는 사람이 말 하길 일광(日光)이 미치는 곳마다 조림(照臨)치 않는 곳이 없으므로 장년(壯年)에 반드시 팔표(八表)에 인풍(仁風)을 듣고, 사해(四海)에 위명(威名)을 얻을 것을 어찌 의심 하랴 하더라. 이러한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적심(敵心)을 가진 자는 스스로 파멸 되었으며, 싸워 이기지 않는 바 없고, 치면 취(取)하지 않는 바 없어 천하가 곧 평정되어, 백성이 모두 귀복하니라. 그래 민부재족(民富財足)하여 토공(土貢)이 이전보다 만배(萬倍)가 되니 본조(本朝)의 개벽이래, 조정의 성사와 낙양(洛陽=京都)의 장관이 오늘만 함이 일찌 없었도다. 대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래 산다고 해도 고대로 백년을 넘기지 못하거늘 어찌하여 울울하게 지날 수가 있으랴. 나라가 서로 막히고 산해가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한번 뛰어 대명국(大明國)에 들어가 오조(吾朝)의 풍속을 그곳 사백여주(4百餘州)에 펼치고 제도(帝都)의 정화(政化)를 억만년에 걸쳐 베풀고자 하는 것이 나의 포부인지라. 귀국이 선구가 되어 입조(入朝)한다면 원려(遠慮)가 있음으로해서 근우(近憂)가 없게 되는 것이 아닐손가. 비록 원방에 있는 소도(小島)로서 해중에 있는 나라라도 진공(進貢)이 늦어지면 허용치 않을 것이다. 내가 대명(大明)에 들어가는 날 사졸(士卒)을 거느리고 군영(軍營)에 임한다면 더욱 인맹(隣盟)을 좋게 다스릴 것이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오직 가명(佳名)을 삼국(三國)에 떨치고자 함에 있도다. 방물(方物)은 목록과 같으니 받아주기 바라는 바이다』

일견해도 모욕적인 문서임엔 틀림이 없다. 김성일이 아니라도 분통을 터뜨리지 아니할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김성일은

『이런 국서는 받아갈수 없다』

고했다.

일본측에서는 수길의 뜻을 거슬러가며 달리 답서를 쓸 수 없다고했다.

치열한 논란(論難)끝에 일부의 자귀(字句)를 수정하도록 합의를 보았는데 수정하라고 우리가 제의한 것은 「각하」「입조」「방물」 여섯자였다. 일본측은 각하를 전하(殿下)로 방물(方物)을 폐물(幣物)로 고치는데 동의했으나 「입조(入朝)」란 문자만은 끝끝내 고치지 않으려했다.

아뭏든 이 답서로 미루어 풍신수길의 침략의도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한 것인데 사신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 실로 통탄할 일이다.

野生猛獸天國 히말라야

세계의지붕 히말라야산맥이 있는 네팔에는 20세기초만 해도 약10만마리의 호랑이가 살았다.

하지만 네팔호랑이는 이제 6천마리로 줄어 그 보호가 시급해졌다.

네팔정부는 호랑이가 가장 많이 살고있는 시트완지방에 면적 1천평방㎞ 크기의 왕실국립공원을 세워 호랑이를 보호해오고있다.

네팔정부는 시트완공원한 가운데에 최신호텔을세워 육안으로 호랑이등 야생맹수를 관찰하고 그생태를 연구할수 있게했다.

시트완공원의 야생동물 생태연구는 미국 스미드소니언협회와 야생동물보호 국제협회의 도움을 받고있다.

시트완공원에서는 호랑이 사냥은 물론 호랑이 서식처를 망칠 나벌도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마리호랑이가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50~1백평방㎞의 숲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레스프레스誌】